

우리꽃으로만든 정원 식물도감

여섯 가지 주제정원과 식물이야기

학 교 정 원
옥 상 정 원
빗 물 정 원
실 내 정 원
약 초 정 원
텃 밭 정 원



우리 꽃으로 만나는 정원 식물도감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발행인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집필 진혜영, 송정화, 이정희, 김영재, 이해주, 송유진, 최우경, 정재련, 이은주

사진 정재련, 송유진, 최우경, 이은주, 김성식, 남춘희, 전윤창, 이혜진, 문애라, 김윤하, 정수영

스케치 권수연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디자인 임파컴

발간등록번호 : 11-1400119-000247-01

ISBN : 979-11-87031-05-5093480

©국립수목원 2015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무단복제나 전제를 금합니다.

우리 곁으로 만드는 정원
식물도감

여섯 가지 주제정원과 식물이야기

책을 펴내며

올해 7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에서도 정원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가드너 다이어리 발간, 정원박람회 및 가든쇼에 자생식물 모델정원 조성, 청와대 사랑채 야생화 전시, 생활정원공모전 개최 등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우리꽃으로 만드는 정원식물도감」은 6개의 주제정원에 대한 이야기와 그 정원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정원은 조성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담을 수 있기에 그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수확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정원 중 공공 공간에 적합한 6가지 주제정원(텃밭, 약초, 실내, 빗물, 옥상, 학교정원)을 탐구하고, 각 주제에 맞는 자생식물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책에는 6가지 주제정원에 대한 역사적 고찰, 조성할 때의 마음가짐, 모델정원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가지 모델정원에는 정원의 공간을 만들고 주제에 적합하고 기르기 쉬운 야생화를 선정하여 자생지

환경에 따른 식재·관리·증식하는 방법을 실었습니다.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정원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정원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원은 수확하는 즐거움과 함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며,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창조하는 것에 대한 기쁨, 노동의 즐거움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우주가 담겨 있는 정원을 우리식물로 가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2015년 12월
국립수목원장

차례

- 4 책을 펴내며
- 8 일러두기
- 9 이 책을 보는 방법

텃밭정원

- 12 텃밭정원에 대한 기록
- 14 텃밭정원 철학
- 20 텃밭정원 공간구상
- 22 텃밭정원 모델정원
- 24 텃밭정원 식물 20종

- | | |
|----------|----------|
| 24 감국 | 34 벌깨덩굴 |
| 25 갯기름나무 | 35 삿갓채 |
| 26 고려엉겅퀴 | 36 산초나무 |
| 27 고사리 | 37 생강나무 |
| 28 곰취 | 38 오미자 |
| 29 냉초 | 39 우산나무 |
| 30 눈개승마 | 40 잔대 |
| 31 머위 | 41 참나무 |
| 32 미역취 | 42 참취 |
| 33 배초향 | 43 파드득나무 |

약초정원

- 50 약초에 대한 기록
- 56 약초정원 철학
- 60 약초정원 공간구상
- 62 약초정원 모델정원
- 66 약초정원 식물 20종

- | | |
|----------|---------|
| 66 개똥쑥 | 76 삽주 |
| 67 골담초 | 77 송방망이 |
| 68 골등골나물 | 78 용담 |
| 69 골풀 | 79 익모초 |
| 70 구절초 | 80 절굿대 |
| 71 꽃향유 | 81 쥐손이풀 |
| 72 도라지 | 82 짚신나물 |
| 73 백선 | 83 찔레꽃 |
| 74 뱀무 | 84 참당귀 |
| 75 복분자딸기 | 85 톱풀 |

실내정원

- 88 실내정원에 대한 기록
- 90 실내정원 철학
- 92 실내정원 공간구상
- 94 실내정원 모델정원
- 98 실내정원 식물 20종

- | | |
|------------|-----------|
| 98 관중 | 108 부처손 |
| 99 넉줄고사리 | 109 산호수 |
| 100 대사초 | 110 송악 |
| 101 도깨비쇠고비 | 111 일월비비추 |
| 102 돈나무 | 112 자금우 |
| 103 만병초 | 113 줄사철나무 |
| 104 맥문동 | 114 콩짜개덩굴 |
| 105 모람 | 115 큰애기나리 |
| 106 백화등 | 116 털머위 |
| 107 봉의고리 | 117 환괘이는 |

빗물정원

- 120 빗물정원에 대한 기록
- 122 빗물정원 철학
- 124 빗물정원 공간구상
- 126 빗물정원 모델정원
- 128 빗물정원 식물 20종

- 128 고광나무 138 박하
- 129 괴불나무 139 벌개미취
- 130 금낭화 140 붓꽃
- 131 꼬리조팝나무 141 산수국
- 132 노루오줌 142 속새
- 133 돌단풍 143 수수꽃다리
- 134 동의나물 144 앵초
- 135 말발도리 145 주걱비비추
- 136 물레나무 146 피나무
- 137 마나리아재비 147 화살나무

옥상정원

- 150 옥상정원에 대한 기록
- 152 옥상정원 철학
- 158 옥상정원 공간구상
- 160 옥상정원 모델정원
- 164 옥상정원 식물 20종

- 164 기린초 174 억새
- 165 꿀풀 175 오이풀
- 166 돌나물 176 좁작살나무
- 167 땅채송화 177 청사초
- 168 마타리 178 층꽃나무
- 169 매발톱 179 큰평의비름
- 170 물싸리 180 패랭이꽃
- 171 바위솔 181 할미꽃
- 172 산꼬리풀 182 해국
- 173 양지꽃 183 흰말채나무

학교정원

- 186 학교정원에 대한 기록
- 188 학교정원 철학
- 190 학교정원 공간구상
- 192 학교정원 모델정원
- 196 학교정원 식물 20종

- 196 노루귀 206 수련
- 197 더덕 207 수크령
- 198 독활 208 썩부쟁이
- 199 등 209 엉겅퀴
- 200 마름 210 은방울꽃
- 201 물봉선 211 제비꽃
- 202 물수세미 212 참나리
- 203 민들레 213 창포
- 204 부들 214 초롱꽃
- 205 분꽃나무 215 흰강귀비

부록

- 216 야생화로 꽃피우는 여섯가지 요리
- 217 야생화로 꽃피우는 여섯가지 요리
- 230 참고문헌
- 232 국명 찾아보기
- 234 학명 찾아보기

일러두기

1. 책에서 활용한 식물소재는 모두 우리 산과 들에서 자라는 자생식물로, 6개 주제정원에 선정된 20종의 식물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2. 국명은 국립수목원의 「국가표준식물목록」을, 학명, 영명은 국립수목원의 「한반도 자생식물 영어이름 목록집」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산림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희귀식물 중 멸종위기종(CR), 위기종(EN), 취약종(VU)은 도감에서 제외하였다.
4. 한국 특산식물(Korean Endemic Plants)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에서 적응하여 진화해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귀중한 유전자원이므로 별도로 표기해 두었다.
5. 모든 모델정원은 '이상적'으로 설계되었고, 실제 적용시 대상지의 잠재력과 환경을 읽고 이끌어내, 공간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 책을 보는 방법

책을 구성하는 여섯가지 주제정원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정원입니다. 이 책에는 주제 정원의 역사를 “정원에 대한 기록”에서 우선 고찰해보고, 주제정원을 조성할 때 염두 해 두어야 할 기본적인 생각들을 “정원 철학” 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정원 철학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모델정원을 “정원 공간구상” 페이지에서 구상하고, 주제정원에 적합한 야생화 20종을 제안하는 순서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별 목차

- | | |
|--------------|----------------------------|
| 1. 정원에 대한 기록 | ← 주제정원에 관한 역사, 사례 |
| 2. 정원 철학 | ← 정원 조성시 지녀야 할 마음가짐 |
| 3. 정원 공간구상 | ← 모델정원 공간구상 |
| 4. 정원 모델정원 | ← 모델정원 설계 |
| 5. 정원 식물 20종 | ← 주제정원에 적합한 야생화 20종에 대한 설명 |

과명 속명

국명

크기

생활형

식물 특징

자생지

식재지

관리 방법

증식 방법

국화과 산국속 *Asteraceae Dendranthema*

001 감국 *Dendranthema indicum* (L.) Des Moul.
Indian dendranthema

여러해살이풀 160-150cm 후 9-11월, 노란색

꽃잎은 말려 두었다가 차로 마시는데 항기류유며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음. 어린 잎은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대체서 무쳐먹거나 김치로 담가먹음.



자생지 양지 혹은 반 그늘의 풀숲


식재 양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질이 많은 토양

관리 심은 뒤 2년이 지나면 흙에 새로운 유기질을 공급해줘야 함. 물은 2-3일 간격으로 줌

증식 11월경에 열리는 종자를 바로 파종, 이듬해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 포기나누기

*산국은 한국은 화서의 크기로 구분한다. 산국은 지름이 1.5cm, 감국은 2.5cm.



25 해바라기밭의 산국

학명

영명

꽃이 피는 시기, 꽃색

프랑스 조경가 질 클레망은 최초의 정원이 채소밭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의 시골에서는 정원이라는 단어가 다름 아닌 채소밭을 가리키며
나머지는 다 풍경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정원은 인간이 자연에 울타리를 친 순간
탄생했으며, 정착해서 살기위해 집 한켠에 채소와 약초를 심는 것이
정원의 자연스러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양평, 봄파머스가든

텃밭정원

Edible Garden

먹을 수 있는 식물로 만든 정원

텃밭이 '먹는 것'에 집중한다면,
텃밭정원은 먹을 수 있는 식물에 '관상가치'를 부여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이다.

텃밭정원에 대한 기록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가꾸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포도넝쿨이 그려진 이집트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로마의 빌라 정원과 중세 수도원 정원을 거치며 채소밭은 정원의 영역에서 실용적인 형태로 존재했다. 17세기 베르사유 궁전에 조성된 “왕의 채소밭 Le Potager du Roi”은 소박한 채소밭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원이다. 불가능이 없는 루이 14세의 권력에서 채소밭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형태로 탈바꿈하며 9ha의 넓은 땅이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할되어 채소가 심겨지고, 채소를 가꾸는 행위가 살아있는 극장이 되기도 했다.



왕의 채소밭, ©Paris Histoire,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otager_du_Roi.jpg

우리나라에서 채마밭*은 집 뒤에 놓인 일상적인 공간이었다. 200여년 전에 정약용 선생이 만든 채마밭은 규모는 작지만 지속가능하고 감각적인 정원이었다. 선생은 집터를 잡을 때에도 산수가 아름다운 곳을 우선으로 여겼으며, 채마밭 역시 네모 반듯하게 구획하여 싹이 텃을 때 무늬마저 고려해 작물을 식재하였다. 또한 연못에 물을 대고 채마밭에도 활용한 것을 보면 자연의 흐름을 정원에 실용적으로 활용한 철학이 느껴진다.

뜰 앞엔 높이 두어 자 되는 가림 벽을 하나 둘러두고, 담 안에는 갖가지 화분을 놓아둔다. 석류, 치자, 백목련 같은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갖추는데, 국화를 가장 많이 갖추어서 모름지기 마흔 여덟가지는 되어야 겨우 구색을 갖추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뜰 오른쪽엔 조그만한 연못을 파는데, 사방이 수십 걸음을 넘지 않을 정도로 한다. 연못에는 연꽃 몇십 포기 심고 붕어를 기른다. 따로 대나무를 쪼개 홈통을 만들어서 산골짜기의 물을 끌어다 연못에 대고 연못에서 넘치는 물은 담장 구멍을 통해 채마밭으로 흐르게 한다.

채마밭은 수면처럼 **고르게 잘 갈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밭두둑이 네모반듯해지게 밭을 구획해서 아욱, 배추, 파, 마늘 등을 심되 **종류별로 나누어 서로 섞이지 않게 한다**.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고무래를 사용하여, 싹이 났을 때 보면 아롱진 비단물결 같은 무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겨우 ‘채마밭’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떨어진 채마밭 둘레에는 오이도 심고 고구마도 심지만, **장미 수천 그루를 울타리로 심어 놓는다**. 그러면 **늦봄과 초여름이 교차되는 때 짙은 향기가 채마밭을 둘러보러 나온 사람의 코를 찌를 것이다**.

정약용, 박무영 역, 『똥 세상의 아름다움』(서울: 태학사, 2001), p.101.

*채마밭(菜麻-): 무, 배추 등 채소를 심는 밭

텃밭정원 철학

“텃밭이 아닌 텃밭정원이다.”

텃밭정원은 아름다워야 한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나물과 쌈의 재료가 되는 식물의 꽃과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식물소재의 감각적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정원을 만들자

심고 싶은 식물의 향, 색, 촉감, 이른 봄의 새싹...

텃밭정원은 여유로운 취미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확하기 위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자연에서 적당한 노동을 통해 몸과 정신이 맑아지며 나무그늘 아래서 한 주간의 생각을 정리하며 여유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휴식을 위한 그늘이 있는 공간, 정원을 바라보는 장소, 그림 그리는 장소...

텃밭정원은 지구 생태계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곤충과 새를 맞아들이고 자연 빗물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정원을 만들자

부지 잠재력 활용(물과 녹지의 흐름, 향, 전망 등), 환경에 적합한 수종 선택, 빗물 활용, 새들이 좋아하는 정원...

위즐리 가든 RHS Wisley garden

RHS 위즐리 가든 내 키친 가든(Kitchen garden)은 텃밭정원의 표준 모델이다. 텃밭정원은 영역을 구획하는 산울타리, 울타리 내부에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 식재공간, 그 안에 가지런히 정형적인 패턴으로 심겨진 먹을 수 있는 식물들, 그리고 작업을 위해 직선으로 포장된 길로 구성되어 있다.



RHS Wisley garden의 Kitchen garden 모델정원 _Google earth 위성사진



목재 베드, 유리온실



도구보관함과 텃밭



온실 내 종자 파종 후 관리



비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안내, 텃밭

텃밭정원 공간구상

1. 공간구조 : 닫혀 있는 아늑한 공간

서양의 텃밭정원은 사방에 울타리가 쳐져있는 경우가 많아 'walled garden'이라고도 한다. 전통 주택정원의 채마밭도 집 뒷편에 자리하며 산이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공간이었다. 산에서 자라는 나무로 만든 산울타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새와 곤충의 먹이이자 보금자리가 되기도 한다.

2. 필수공간 : 쉴 수 있는 공간 계획

농사일에 빠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새참과 낮잠시간으로 육체 노동 후 그늘에서의 휴식은 더 달콤하다.

텃밭정원 계획에 있어 중요하지만 빠뜨리기 쉬운 곳은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휴게공간은 정원을 감상하는 장소이자 쉴 수 있는 장소, 수확한 생산물을 곧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계획한다.

3. 식재공간과 동선 계획

배수와 관수시설을 점검한 후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식재 공간을 조성한다. 정원, 휴게공간, 주방 등 실내공간과 통하는 장소를 고려하여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주동선은 걷기 편하고 청소하기 쉬운 재료(점토벽돌, 시멘트벽돌, 자연석 등)로 계획한다.

산울타리 계획 Tip

- ▶ 산울타리 높이는 가리고 싶은 시선, 보고 싶은 경관 그리고 넘어보는 시선의 높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 ▶ 산울타리에 적합한 자생식물
상록성: 측백나무, 구상나무, 주목, 잣나무, 향나무, 비자나무, 회양목 등
난대성: 호랑가시나무, 동백나무, 차나무, 광나무, 돈나무, 팥광나무 등
낙엽성: 짙레꽃, 매자나무, 흰말채나무, 말발도리, 고광나무, 병꽃나무, 조팝나무, 화살나무, 덜꿩나무, 길마기자나무, 쥐똥나무, 개나리 등

휴게공간 계획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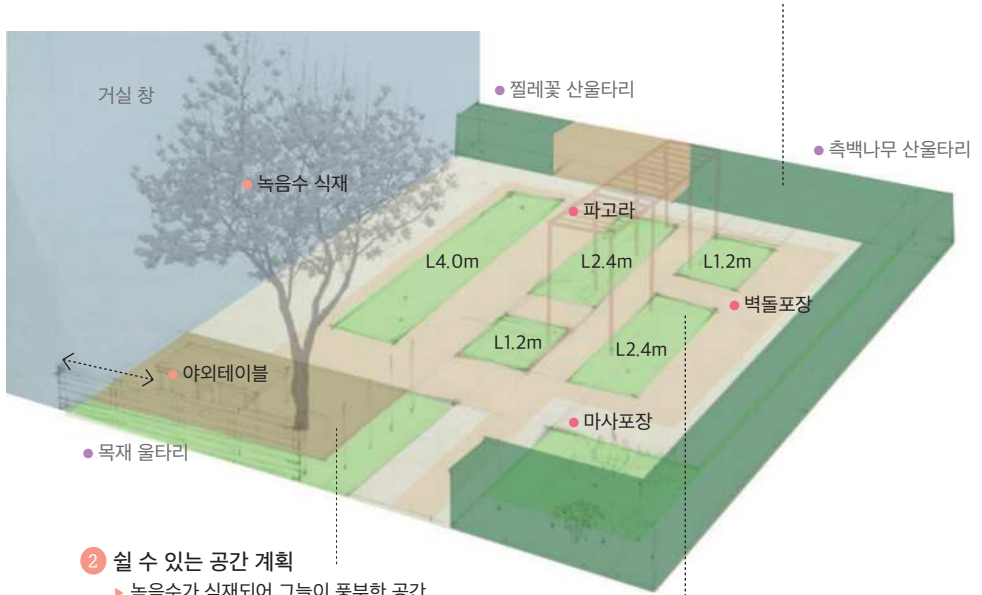
- ▶ 일하는 공간과 분리된 별도 공간으로 계획
- ▶ 의자, 테이블을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평평한 땅으로 계획
- ▶ 녹음수, 덩굴이 울려진 파고라 등으로 그늘지는 공간 확보

식재배드 Tip

- ▶ 동선과 구분되는 식재공간 경계 필요
- ▶ 폭 1.2m를 이하로 계획(손이 닿을 수 있는 양쪽 길이 고려)
- ▶ 높이가 90cm 이상이면 작업이 편리하지만 흙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계성이 떨어짐

1 닫혀 있는 아늑한 공간

- ▶ 산울타리, 목재울타리, 건물로 둘러싸인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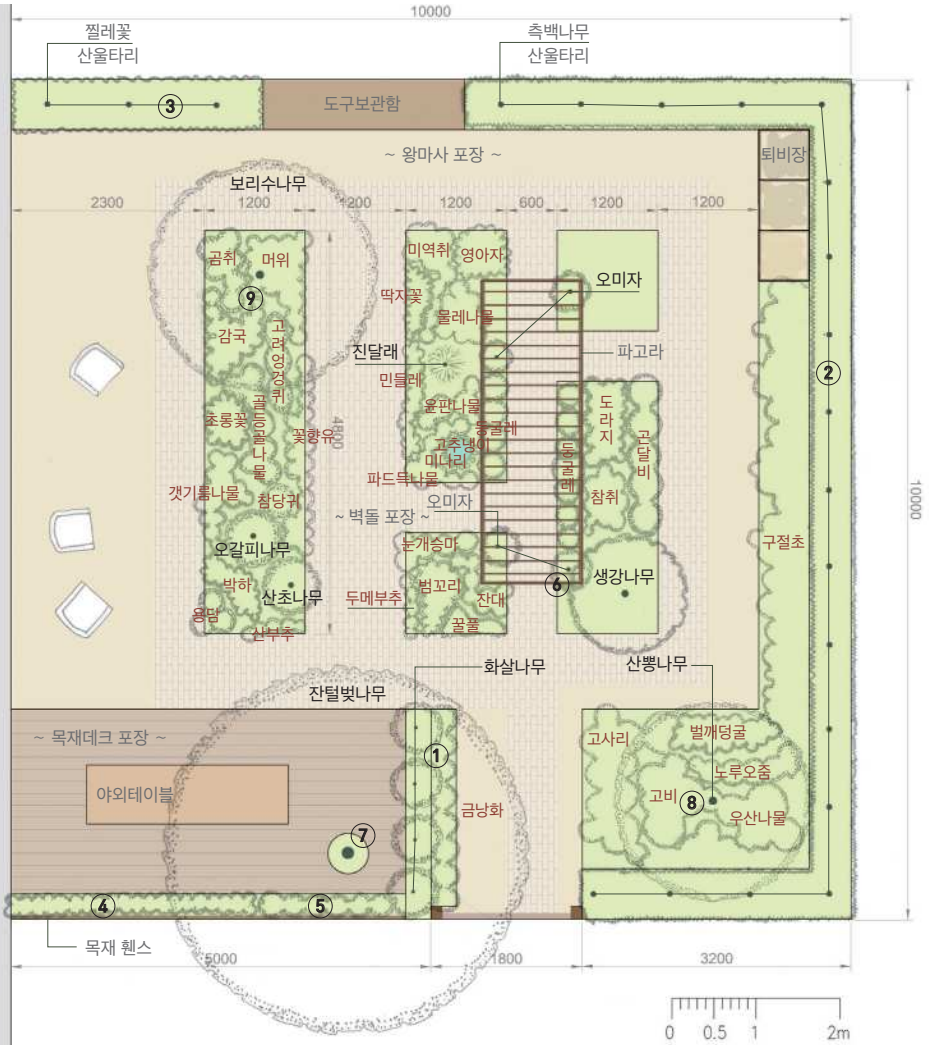
2 실 수 있는 공간 계획

- ▶ 녹음수가 식재되어 그늘이 풍부한 공간
- ▶ 울타리와 식물로 둘러싸여 정원을 바라보는 공간
- ▶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3 식재공간과 동선계획

- ▶ 식재공간 7개소
(폭 1.2m X 길이 1.2m, 2.4m, 4.8m)
- ▶ 주동선 벽돌포장, 나머지 공간 마사포장

텃밭정원 모델정원



울타리가 되는 나무



① 화살나무



② 측백나무



③ 찔레꽃



④ 으아리



⑤ 더덕



⑥ 오미자

그늘을 주는 나무



⑦ 잔털벚나무



⑧ 산뽕나무



⑨ 보리수나무





① 곱취



② 머위



⑥ 꽃향유



④ 감죽



⑤ 고려영경기



⑬ 박하



⑧ 초롱꽃



⑦ 골등골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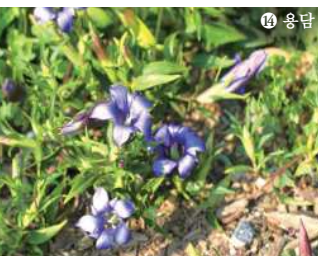
⑮ 산부추



⑨ 갯기름나물



⑩ 참당귀



⑭ 움담



16 미역취



17 영아자



20 율관나물



19 물레나물



18 딱지꽃



20 고추냉이



20 진달래



20 등굴레



21 퉁들레



25 파드득나물



24 미나리



① 눈개승마



⑤ 풀꽃



⑥ 고사리



⑦ 고비



② 두메부추



④ 잔대



③ 우산나물



⑧ 벌깨덩굴



⑩ 도리지



⑨ 참취



⑪ 곤달비



⑫ 노루오줌



⑪ 구질초

감국

Dendranthema indicum (L.) Des Moul.
Indian dendranthema

여러해살이풀 ↑60-150cm ❀ 9-11월, 노란색

꽃잎은 말려 두었다가 차로 마시는데 향기로우며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음. 어린 잎은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데쳐서 무쳐먹거나 김치로 담가먹음

자생지 양지 혹은 반 그늘의 풀숲

식 재 양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질이 많은 토양

관 리 심은 뒤 2년이 지나면 흙에 새로운 유기질을 공급해줘야 함. 물은 2-3일 간격으로 줌

증 식 11월경에 열리는 종자를 바로 파종, 이듬해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 포기나누기

* 산국과 감국은 화서의 크기로 구분한다. 산국은 지름이 1.5cm, 감국은 2.5cm.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 Thunb. Coastal hogfennel

여러해살이풀 160-100cm * 6-8월, 흰색

“방풍나물”이라고 흔히 부르며,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있으면서도 씹는 느낌이 좋고 향긋한 향을 갖고 있어 잎과 줄기를 식용함. 부드러운 잎과 줄기는 데쳐서 먹거나 무쳐서 먹음

자생지 양지의 물 빠짐이 좋은 바위틈

식 재 주변에 습기가 많은 양지 (습윤하되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관 리 물은 여름에는 1-2일, 봄과 가을에는 2-3일 간격으로 줌

증 식 9월에 익은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이른 봄 포기나누기



고려엉겅퀴

Cirsium setidens (Dunn) Nakai
Gondre(Korean thistle)

여러해살이풀 ↑50-150cm ❁ 7-10월, 붉은 자주색 ㉞한국 특산식물(전국 분포)

“곤드레나물”이라고 흔히 부르며, 맛이 담백하고 향이 독특하여 어린 순과 어린 잎을 식용함. 씻은 찝에 묵나물을 넣고 곤드레 밥을 지어먹거나 국거리, 볶음, 조림, 무침 등으로 먹음

자생지 산지의 기슭이나 골짜기

식 재 건조가 계속되는 곳은 부적합, 토층이 두꺼워 배수가 양호하면서 보수력이 좋은 비옥지

관 리 토양이 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습하면 뿌리가 부패하면서 병해 발생)

증 식 11월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바로 파종, 이듬해 봄 포기나누기



090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0523 강원 정선

고사리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ex A.Heller

Eastern brackenfern

여러해살이풀 ↑60-100cm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쫄깃하고 담백한 묵나물은 비빔밥이나 육개장, 추어탕, 나물 잡채에 넣어 먹음. 뿌리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함

자생지 산록지대의 양지

식재 양지나 음지, 건조하거나 척박한 곳에서도 비교적 잘 자람

관리 6월 하순까지 잡초 제거, 장마철 배수작업으로 줄기가 부패하는 것 방지

증식 이른 봄 포기나누기



곰취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Fischer's ragwort

여러해살이풀 ↑1-2m ❁ 7-9월, 노란색

잎은 부드러운 씹싸름한 맛과 은은하게 풍기는 상큼한 향이 있어 생으로 씹으로 식용함. 연한 잎을 뜯어 장아찌를 담가 먹거나, 데쳐서 무쳐먹음

자생지 서늘한 고산지대 습지, 깊은 산 습지, 높은 산 양지바른 풀밭
식재 반그늘이나 음지, 강한 빛을 볼 경우 잎이 역세져서 식용에 부적합

관리 물은 잎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인 늦은 봄에는 하루 간격으로 줌(터위와 건조에 약한 식물이므로 통풍과 관수에 주의를 요함)

증식 10월경에 열리는 종자를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곰취 잎



곰취는 잎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에 두 줄로 된 적갈색 세로 줄무늬가 있음

동의나물 잎(독성)



0922 제주도



0828 광릉

냉초 *Veronicastrum sibiricum* (L.) Pennell

Siberian veronicastrum

여러해살이풀 ↑50-100cm ❁ 7-8월, 연보라색

이른 봄에 어린순을 나물, 쌈으로 이용하며 된장국에 넣고 끓여먹음. 약간 쓴맛이 있으나 데친 다음 잠깐 우려내면 쓴맛이 없어짐

자생지 산지의 습기가 약간 있는 곳

식재 여름철 더위에 약하므로 바람이 잘 통하는 반그늘

관리 너무 비옥한 토양에 식재하면 키만 크게 자라 관상 가치도 줄어들고 넘어지기 쉬움

증식 9-10월에 열리는 종자를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눈개승마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Kamchatka goatsbeard

여러해살이풀 ↑30-100cm ❁ 6-8월, 흰색

“삼나물”이라고 흔히 부르며, 쫄깃한 소고기 맛이 나며 어린순을 데쳐서 무치고, 묵나물로 먹기도 함. 울릉도에서는 잔치나 명절에 국으로 끓이고, 제사 때 나물로 씹. 비빔밥, 찌개, 잡채, 탕에도 넣음

자생지 낙엽이 많으며 반그늘 혹은 음지

식 재 반그늘의 공기순환이 잘 되는 곳(서늘한 공기가 있어야 잘 자라며, 공기순환이 안되면 꽃은 그 해에는 피지만 다음 해부터는 잘 피지 않음)

관 리 강한 광선은 피하고, 토양의 습도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습성이 좋도록 관리해야 함, 지나친 시비는 피함

증 식 8월경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바로 파종, 지하부의 뿌리가 거대하여 분주가 잘 안되는 편임



0406 국립수목원



0525 강원 화악산

머위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Giant butterbur

여러해살이풀 15-45cm ❀ 3-4월, 흰색

“머구나물”이라고 흔히 부르며, 약간 쓴맛이 있으면서도 특유의 향기를 갖고 있어 어린잎과 꽃줄기를 식용함. 잎을 무쳐 먹고 껍질은 장아찌로 이용되며 녹즙, 샐러드, 무침, 조림 등으로 먹음

자생지 산록의 다소 습기가 있는 곳

식재 양지의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있는 곳에 식재

관리 습기 많은 곳을 좋아 하지만 뿌리가 물에 잠기면 습해를 입으므로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함

증식 6월경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 이른 봄과 가을에 포기나누기

머위 잎



머위는 꽃이 핀 후 잎이 나오며 호박잎과 유사하며 잎이 부드럽고 잔털이 있음.

털머위 잎(독성)



털머위는 남부지방에 주로 자라며 잎은 상록성으로 두꺼우며 윤채가 나고 잎자루는 붉은 색을 띰.



03.27



04.14



05.03



05.14

머위 생활사



0401 국립수목원

미역취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Asian goldenrod

여러해살이풀 ↑30-80cm ❁ 7-10월, 노란색

“돼지나물”이라고 흔히 부르며, 독특한 향기와 고기맛이 나는 어린 잎을 살짝 데쳐 무쳐 먹거나 묵나물로 사용함. 묵나물은 정월대보름에 나물로 쓰임

자생지 산과 들의 벌이 잘 드는 곳

식 재 해가림이 어느 정도 되고, 배수가 잘 되는 곳

관 리 과다한 시비는 피하며, 척박하지 않고 물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해야 함

증 식 10-11월에 열리는 종자를 이른 봄 파종, 봄·가을에 포기나누기



0817 강원 화악산



0924 국립수목원

배초향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Korean mint

여러해살이풀 140-100cm ❁ 7-9월, 자주색

“방아잎” 또는 “깨나물”이라고 흔히 부르며, 독특한 향이 있어서 향신료로 사용되며 어린 순과 연한 잎을 식용함. 어린 잎은 나물로도 먹지만 잘게 썰어 부추와 함께 전을 부쳐서 먹음. 추어탕처럼 생선으로 끓인 찌개나 탕에 넣어 비린 맛을 제거하기도 함

자생지 양지의 전석지

식 재 햇별이 잘 들고 다소 습한 비옥한 땅(그늘진 곳에서는 향이 없어짐)

관 리 지나친 시비는 식물체를 과다하게 성장시키므로 관상용으로 식재할 경우 가치가 떨어짐, 잎이 많고 넓기 때문에 여름에는 하루 간격, 봄·가을에는 2-4일 간격으로 물을 줌

증 식 9월경에 채취한 종자를 저온 저장한 후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이른 봄 싹틔기 전에 포기나누기



꿀풀과 벌개덩굴속 Lamiaceae *Meehania*

벌개덩굴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Nettle-leaf mint

여러해살이풀 ↑15-30cm ✿ 5-6월, 연보라색

꽃은 차로 마실 수 있는데 청초한 박하향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으며, 입안을 살균하는 효과도 있음. 꿀이 많이 나서 밀원식물로 이용되기도 함. 어린 순을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씹쓸하고 알싸한 뒷맛이 있음

자생지 그늘진 계곡 주변이나 낙엽수림 하부

식재 물빠짐이 좋고, 약간 습기가 있는 그늘진 곳

관리 잎이 많기 때문에 여름이 나기까지 물이 많이 필요함

증식 7-8월에 열리는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듬해 봄에 뿌림, 5-7월경 지면을 옆으로 길게 기는 줄기의 마디를 잘라 삽목하면 손쉽게 번식시킬 수 있음



뽕족채 *Rhaponticum uniflorum* (L.) DC. Uniflower swisscentaury

여러해살이풀 ↑30-70cm ❁ 6-8월, 홍자색

꽃 아래 부분의 꽃받침이 뽕꾸기 앞 가슴 깃털 모양을 닮았다하여 뽕국채라 이름 붙였으며 뽕꾸기가 울 무렵에 꽃이 핌. 줄기 끝에 한송이씩 달리는 꽃은 엉겅퀴보다 크고, 총포로 묵직한 느낌을 줌. 흰 털이 난 어린순을 나물로 먹으며 전초는 말려 물로 달이거나 가루로 빵아 복용하면 해열, 해독, 습진과 종기치료에 효과가 있음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건조한 양지

식 재 양지의 배수가 잘되는 곳

관 리 관수는 2-3일간격으로 하며 건조에 견디는 힘이 강함

증 식 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



0519 국립수목원



0519 국립수목원



0928 국립수목원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Mastic-leaf prickly ash

낙엽활엽관목 ↑3m ❁ 8-9월, 연한 녹색

열매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장의 기능을 자극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며 기름을 짜기도 함. 어린순은 튀김·전으로 부쳐 먹고, 덜 익은 열매는 간장 장아찌·튀김으로 요리함

자생지 양지바른 산지 숲 가장자리와 들

식 재 햇빛이 비교적 잘 들고 배수가 잘되는 곳

관 리 뿌리는 실뿌리여서 깊게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특성이 있고 물에 약하기 때문에 과습에 주의

증 식 10월 경에 익은 종자를 2-3일간 건조시킨 후, 종자에 함유된 지방성분을 제거한 후 노천매장시킨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일부 종자는 2년 발아)



0729 국립수목원



0930 국립수목원



0731 국립수목원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Blume

Blunt-lobe spicebush

낙엽활엽관목 ↑3m ❁ 3-5월, 노란색

알싸한 생강 향이 줄기와 잎에서 남. 어린 잎은 향균작용이 있어 차로 먹고, 더 자란 잎은 생체로 또는 데쳐서 먹음

자생지 숲 속이나 전석지

식재 반그늘의 물 빠짐이 좋고, 유기질이 풍부한 곳에 식재

관리 유묘시에는 음수로 반드시 그늘에서 자라게 하고, 성목이 되어서는 반그늘에서 재배하는 것이 생육 및 개화결실에 좋음, 물은 봄·여름에 1-2일 간격으로 줌

증식 9월경에 열매를 채취하여 흐르는 물에 과육을 잘 제거한 후 바로 파종
봄·여름에 가지를 삽목하지만 발근율이 낮음



0410 경기도 의정부시



0410 국립수목원



0503 국립수목원



013 국립수목원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Five-flavor magnolia vine

낙엽활엽덩굴 ↑3-9m ❀ 6-7월, 흰색 또는 연한 분홍색

어린 순은 데쳐서 간장이나 고추장에 무쳐 먹음. 다른 나물과 섞어 먹으면 신맛이 잘 어울림, 열매는 다섯 가지 맛이 나지만 신맛이 가장 강하고 술을 담거나 효소를 만들며, 말려서 차로 마심

자생지 산골짜기, 전석지

식재 물 빠짐이 좋고 유기질이 풍부한 곳

관리 강풍에 약해 선바람을 막아주는 곳이면 적당하고,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곳은 피해야 함. 덩굴이 많이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철사, 나무, 벽 등 지지대 필요, 물은 2-3일 간격으로 줌

증식 11월경에 열리는 종자를 바로 파종, 이듬해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 포기나누기



우산나물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Palmate shred umbrella plant

여러해살이풀 ↑70-120cm ❁ 6-8월, 연자줏빛 도는 흰색

향긋하면서 독특한 향기를 지닌 우산 형태의 어린 잎을 나물로 먹음. 어린 잎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데쳐서 무치거나 된장국을 끓임. 전초는 말려두었다가 차로 마시기도 하며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술을 담가 먹기도 함

자생지 숲 속의 그늘 또는 반 그늘진 습한 곳

식 재 그늘에서 잘 자라며 토양 보습이 높고 비옥한 곳

관 리 습기 있는 땅을 좋아하지만 물이 고이는 곳에서는 썩기 쉬우므로 물 빠짐을 좋게 하고, 물은 봄에는 3-4일 간격, 여름에는 1-2일 간격으로 줘야 함

증 식 10월경에 종자를 받아 냉장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 봄·가을에 포기 나누기



잔대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 Hara
Three-leaf ladybell

여러해살이풀 ↑40-120cm ❀ 7-10월, 연보라색

“딱주나물”이라고 흔히 부르며, 상큼한 향이 좋아 잎을 그대로 된장에 찍어 먹거나 어린 잎을 따서 살짝 데쳐 무침으로 먹음. 껍질을 벗긴 뿌리는 더덕처럼 무침이나 구이를 하기도 함

자생지 산과 들의 벌이 잘 드는 곳

식 재 적당히 햇빛이 드는 양지의 물 빠짐이 좋고 유기질이 풍부한 곳

관 리 직사광선에서는 잎 끝이 타므로 한여름에는 차광하고, 물은 2-3일 간격으로 줌

증 식 10월에 열리는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냉장보관 후 이른 봄에 파종(파종 2-3일 전에 종자를 물에 담가 뉘야 함), 이른 봄 포기나누기



0718 국립수목원



0820 국립수목원



0831 국립수목원



0831 국립수목원

참나물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Chamnamul(Short-fruit pimpinella)

여러해살이풀 ↑50-80cm ❁ 흰색

샐러리와 미나리의 향기를 합친 상쾌하면서 독특한 향을 갖고 있어 봄철 입맛을 돋아줌. 어린 잎은 쌈을 싸먹거나 곱절이로 무쳐도 맛이 좋음. 매운탕에 넣으면 비린내를 제거 해줌

자생지 전국외 산지 숲 속

식 재 습기가 있는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 물 빠짐이 좋고 늘 습기가 보존되는 곳

관 리 대체로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며, 지나치게 건조한 곳에서는 생육이 좋지 않음

증 식 8월경에 익는 종자를 채종하여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파종 전 종자를 1주일 동안 물에 불리면 발아가 빨리됨) 이른 봄 포기나누기



참취

Aster scaber Thunb.
Edible aster

여러해살이풀 ↑1-1.5m ❁ 8-10월, 흰색

“취나물”이라고 흔히 부르며, 향긋한 초봄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 어린 잎과 꽃을 식용함. 어린 잎은 날 것으로 먹을 때 매우 쓰기 때문에 데쳐서 2-3회 우려내고 볶아먹음

자생지 전국의 산지 혹은 들판

식 재 양지 또는 반그늘의 보수력 있는 비옥한 땅

관 리 충분한 양의 시비를 보충해줘야 하며, 흙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

증 식 11월에 받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른 봄·가을 포기나누기



파드득나물

Cryptotaenia japonica Hassk.
East Asian wildparsley

여러해살이풀 ↑30-60cm ❁ 6-7월, 흰색 또는 연한 자주색

“반디나물”이라고 흔히 부르며, 줄기에 독특한 향기가 나며 맛과 향이 좋아 나물로 식용함. 부드러운 잎과 어린 순으로 쌈이나 겉절이를 하거나 데쳐서 간장이나 참기름으로 무치면 첫맛은 부드럽고 뒷맛은 짹짹함

자생지 숲 속의 그늘

식 재 약간 그늘지며 비옥하고 습기가 잘 보존되는 곳

관 리 봄에 싹이 돌아 날 때 주위에 같이 자라는 잡초를 수시로 제거해줘야 하며, 고온에서는 매우 약하므로 해가림 등으로 시원하게 해줘야 함

증 식 8월경에 열리는 종자를 파종하거나 이른 봄 싹트기 전에 포기나누기



0601 지리산 백사골



0716 국립수목원



0716 국립수목원

봄에 먹는 야생화

잎을 먹는 야생화

썩(차) | 노루귀(나물) | 조팝나무(튀김) | 짚레꽃(나물) | 모시대(쌈, 튀김) | 궁궁이(쌈, 곁절이) | 생강나무(차, 전, 장아찌) | 오갈피나무(떡, 국수) | 참나물(쌈, 샐러드, 김치, 튀김) | 산마늘(쌈) | 갯기름나물(나물, 차) | 곰취(쌈) | 민박쥐나물(쌈) | 참당귀(쌈, 차) | 수리취(떡) | 터리풀(테킨 쌈)

꽃을 먹는 야생화

진달래(생식, 전) | 머위(튀김, 차, 술) | 민들레(나물, 튀김) | 고추나무(나물) | 벌개영굴(차) | 뽕꼭채(꽃봉우리 샐러드, 나물) | 썩(차)



꽃비빔밥

뿌리를 먹는 야생화

오갈피나무(약술) | 삼주(샬음, 가루) | 모시대(나물, 구이, 볶음) | 잔대(장아찌, 구이) | 갯기름나물(조림) | 쇠무릎(약술) | 참당귀(약술) | 냉이(나물) | 으름덩굴(약술) | 씀바귀(무침) | 둥굴레(장아찌, 튀김, 조림) | 민들레(약술) | 무릇(조림, 조청)

식물 전체를 먹는 야생화

민들레(쥬, 튀김, 나물, 길절이, 김치) | 엉겅퀴(나물) | 고비(나물, 찜, 튀김) | 눈개승마(장아찌, 나물) | 천문동(묵나물) | 머위(나물, 장아찌, 찜) | 궁궁이(나물) | 벌깨덩굴(나물) | 삿갓채(묵나물) | 조팝나무(튀김) | 질경이(묵나물) | 화살나무(훈잎나물밥) | 모시대(묵나물) | 잔대(나물) | 미역취(나물) | 우산나물(나물) | 영아자(나물) | 풀송대(나물) | 갈퀴나물(나물) | 마타리(나물) | 고추나무(묵나물) | 어수리(나물) | 수리취(나물) | 고마리(나물) | 물레나물(나물) | 오갈피나무(튀김, 국거리, 묵나물, 장아찌) | 참나물(나물) | 참취(나물) | 각시취(나물) | 갯기름나물(튀김, 샐러드) | 골등골나물(나물) | 갯기름나물(나물) | 두릅나무(나물, 장아찌, 튀김, 전, 물김치) | 곰취(장아찌) | 들메나무(나물) | 다래(나물) | 고사리(나물) | 참당귀(나물) | 터리풀(나물, 장아찌) | 밀나물(튀김, 묵나물)

* 나물을 먹는 시기 손으로 정리함



우산나물



두릅나무



고사리



고비

여름에 먹는 야생화

잎을 먹는 야생화

영어자(샐러드) | 머위(잎자루 데친 찜, 나물) | 박하(어린잎 샐러드) | 질경이(쌈, 튀김)

꽃을 먹는 야생화

나비나물(튀김) | 도라지(쌈, 튀김) | 등골나물(차) | 칩(차) | 물봉선(차)

열매를 먹는 야생화

초피나무(장아찌, 술) | 머루(생식) | 다래(생식, 과즙, 잼) | 오미자(차) | 질경이(차)

식물 전체를 나물로 먹는 야생화

등골나물(묵나물, 볶음) | 영어자(나물) | 마타리(볶음) | 파드득나물(나물) | 고려엉겅퀴(묵나물) | 쇠무릎(튀김)
| 배초향(나물) | 참당귀(장아찌) | 오리방풀(나물) | 갈퀴나물(나물) | 각시취(볶음) | 곰취(묵나물)

* 나물을 먹는 시기 순으로 정리함



나비나물



도라지



등골나물



칩

가을에 먹는 야생화

잎을 먹는 야생화

감국(샐러드) | 가막사리(쌈)

꽃을 먹는 야생화

구절초(차) | 산국(생화 또는 꽃차) | 감국(튀김, 생화 또는 꽃차)

열매를 먹는 야생화

산초나무(장아찌) | 구기자나무(식혜)

뿌리를 먹는 야생화

천문동(정과, 반찬) | 참나리(시루떡, 조림, 데침, 볶음) | 마(즙)

식물 전체를 나물로 먹는 야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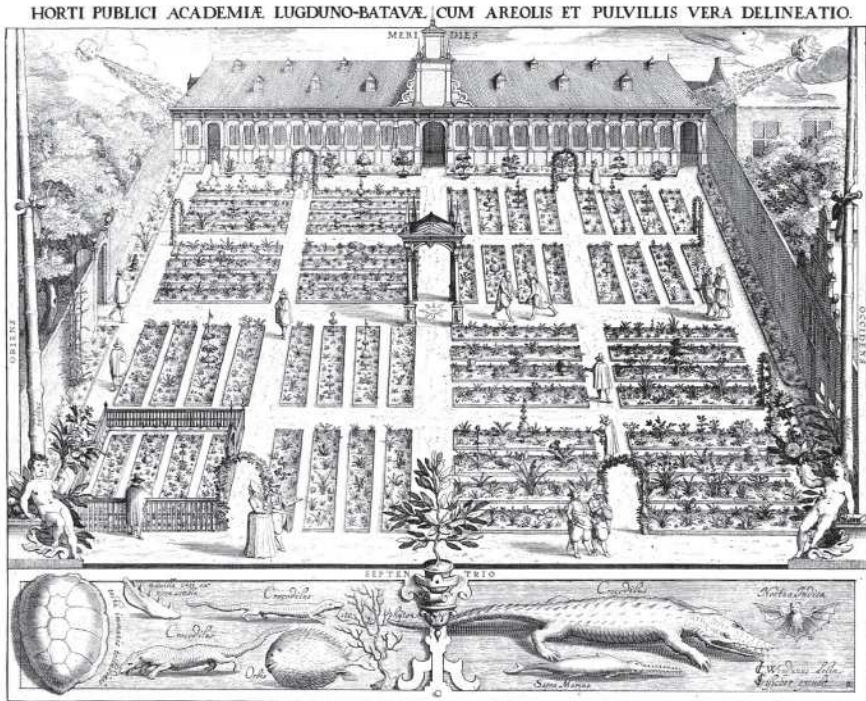
고마리(나물) | 가막사리(나물) | 엉겅퀴(볶음) | 과남풀, 용담(볶음) | 수리취(볶음) | 궁궁이(간장 무침) | 구절초(된장 무침) | 산국(고추장 들깨가루 무침) | 감국(초무침, 데침, 김치) | 미역취(데침)

* 나물을 먹는 시기 순으로 정리함



2015 청와대 사랑채
“야생화 우리 삶 속에 피다” 꽃차 전시

1590년에 세워진 라이덴 식물원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물원 중의 하나이다. 식물원 내 약초정원은 초대 식물원장으로 취임한 카를루스 클루시우스(Carolus Clusius)가 1594년 의학 학부생들의 약초 연구와 교육을 위해 식물 표본실을 만든 것에서 시작한다. 초기 식물원은 의학생들의 교육 장소이자 세계 각지의 식물종 수집을 통한 ‘살아있는 박물관’이었다. 2009년 복원되었으며 초기 식물원의 형태와 식물 목록을 갖추고 있다.



Woudanus 그림, 1610, www.hortus.leidenuni.nl

약초정원

Medicinal Garden

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만든 정원

식물원의 역사는 약초정원에서 시작한다.

의학생들의 교육과 외국에서 수집한 식물을 체계적인 순서로 분류하여 심어놓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었다.

약초에 대한 기록

서양

인간이 식물을 약재로 사용한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몸이 아플 때 야생에서 식물을 뜯어 먹다가 병이 낫는 것을 알고 약초로 이용된 식물이 구전으로 전하다가 그림이나 글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 최초 식물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약용식물과 종교적 의식에 쓰였던 상징적인 식물들에 대한 것이고, 이는 점차 식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이어진다.

식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자연주의자 테오프라스토스Theophrastos(기원전 370~286년)의 「식물 연구An Enquiry into Plants」로 그는 당시 세상에 알려진 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의학에 사용하는 식물의 용도를 책에 기록하였다.

약용식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초본서는 1세기에 의사 디오스코리데스Dioscorides가 쓴 「약물에 대하여De Materia Medica」라는 책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본 500 여종의 식물에 대한 이름과 생김새, 효능, 생활사, 채취방법, 보관 방법에 대해 식물 그림과 함께 쓰여있다. 그리스어로 된 원본은 분실되었고, 6세기에 만들어진 필사본 「코덱스 빈도보넨시스」, 7세기에 제작된 「코덱스 네아폴리타누스」 필사본 2권이 현재 남아있다. 이 책은 16세기가 훨씬 지나서도 식물 연구에 대한 기본서로 활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200년이 넘도록 디오스코



Blackberry_코덱스 빈도보넨시스(Wikipedia 사진)

리데스의 식물들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계속되었다. 약학대학 학생들의 졸업식에서 행해지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국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보듯 우리 선조들도 선사시대 이전부터 자연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터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백제에는 약초를 채취해서 보관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약부’라는 관청도 있었고 약초에 관한 책을 편찬했다는 사실이 일본 책에 적혀있지만 우리나라에 전하는 책은 없다. 고려 중기와 후기에 들어서면서 ‘향약’에 관심이 높아지며 우리 땅에서 자라는 약초로 우리 병을 다스리자는 생각이 싹트면서 1236년 「향약 구급방」이라는 책을 펴냈다. 「향약 구급방」에는 우리나라 약재 180종류의 한자 이름과 민간에서 쓰는 이름, 약 성질, 독성 여부, 채취 시기 등이 적혀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책이 남아 있지 않고 일본에 있다.

우리나라 약초 연구의 기틀은 조선시대 세종 때에 「향약채취월령」과 「향약집성방」을 집필하는 것에서 마련된다. 「향약채취월령」에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초 160종 약초에 대해 채취 시기와 캐는 방법, 약으로 쓰는 곳, 약재 만드는 방법 등을 적어놓았다.

민족의학연구원 편집부, 2012,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약초도감」, 보리, pp.249-250.

조선시대에는 의원과 의서는 많았으나 정확한 학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지한 의원들이 처방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약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전국이 황폐화하여 병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의서마저 부족하였다. 이에 허준은 1613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이루어진 180여 종의 의서를 반영하여 「동의보감」을 집필함으로써 우리 의학은 과학적, 철학적으로 체계화되었다.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총 25권(목차 2권, 의학 내용 23권)으로, 의학 내용은 5편(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보감은 신체에 관한 내용을 안팎으로 나누어 신체 내부와 관련된 내용을 내경편에 신고, 신체 외부와 관련된 내용을 외형편에 두었다. 신체 관련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병에 대한 이론과 구체적인 내용은 잡병편에 묶였다. 탕액편은 가장 주요한 치료수단인 약에 관한 이론과 구체적인 약물에 관한 각종 지식을 실었고, 그때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이루어진 약초 연구 성과들을 모두 반영해서 중국 이름과 우리 이름으로 정리했다. 침구편은 또 하나의 치료수단인 침, 뜸의 이론과 실재를 다뤘다.

동의보감은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라는 동양 철학이 담긴 의학 서이기도 하다. 동의보감 서론에는 인간은 자연의 원리를 따라야 하고, 그 원리를 거스른다면 인체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질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해야 할 것이니 반드시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 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마음에 있는 의심, 생각, 일체의 망념, 일체의 불평 불만, 일체의 다른 사람과 자신 간에 쌓인 후회와 평생 동안의 과오 등을 곧바로 떨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준, 「동의보감 신형편」

동의보감 본문은 이 철학을 담은 글과 신형장부도(身形臟腑圖)로 시작한다.



동의보감, '신형장부도'

사람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의 둥글을,
 사람 발이 각진 것은 땅의 각짐을 본받는다.
 하늘에 사계절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다.
 하늘에 오행이 있으니 사람에게 오장이 있으며,
 하늘에 여섯 극점이 있으니 사람에게 육부가 있다.

하늘에 여덟 방위에서 부는 바람이 있으니
 사람에게 여덟 군테 마디가 있고,
 하늘에 아홉 별이 있어 사람에게 아홉 구멍이 있다.
 사람의 열두 경맥은 하늘의 12시를 본받고,
 사람의 스물네 개 혈자리는 하늘의 24절기를 본받는다.
 또한 하늘에 265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365 관절이 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 눈과 귀가 있다.
 하늘에 낮과 밤이 있듯이 사람에게 잠들과 깨이 있다.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기쁨과 노함이 있다.
 하늘에 비와 이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눈물과 콧물이 있다.
 하늘에 음양이 있듯이 사람에게 추위와 신열이 있다.
 땅에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 혈액이 있으며,
 땅에서 초목이 자라듯 사람 몸에서 털과 머리카락이 자란다.
 땅에 금석이 있듯이 사람에게 치아가 있다.

첼시 피직 가든 Chelsea Physic Garden

런던 첼시지구 중심에는 벽으로 둘러싸인 1.6ha의 약초정원이 있다. 1673년 런던 약사 협회가 견습생들의 약초학 실습을 위해 세워진 민간 정원으로, 약용 및 유용식물의 역사와 활용 현황을 약 350년 동안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이 정원은 5,000종이 넘는 식물들의 특징과 기원, 관리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있는 약용식물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정원의 역사는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약의 성분이 되는 식물과 치료법을 안내판, 식물 라벨, 다양한 시설물 등에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식물 분류 및 해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보 과학자, 사진가, 예술가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온실에서 증식한 식물을 판매하기도 한다.





정원 일구



린네의 업적과 관련 기념품 전시



동남아시아 약용식물 전시



시판되는 약과 재료가 되는 식물 전시



중식온실



알콜의 원료가 되는 식물 소개

약초정원 철학

“누구를 위한 치유정원인가”

약초정원은 정원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약초정원은 식물의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된 정원으로 재배하는 식물의 활용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향료를 채취한다던가, 변비를 치료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젊음의 묘약을 생산한다던가...

ex.엄마를 위한 정원, 남편을 위한 정원, 변비와 다이어트에 좋은 식물 수집 ...

목적에 맞는 약초를 공부하고, 필요한 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산과 들에는 약이 되는 식물도 많지만 독초도 많다. 약초와 독초의 잎의 형태가 너무 비슷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산에서 함부로 식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한다. 식물의 효능과 성질을 공부하기 위해 다음 책을 추천한다.

안덕균, 「한국본초도감」(서울:교학사, 2008), 국립수목원, 「세밀화로 보는 약용식물」(서울:지오북, 2008)

마음도 치유될 수 있는 편안한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약용식물을 재배하는 농장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다시 인지하고, 몸과 마음에 힐링을 주는 정원을 상상해서 만들자.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코 끝을 스치는 식물의 향과, 눈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색상의 꽃들, 마음을 정화하는 물이 흐르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임..감각이 살아서 즐거울 수 있는 편안한 정원...

약초정원은 정원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심장에 좋은 식물

금불초, 딱지꽃, 메꽃,
산사나무, 순비기나무,
쇠고비, 으름덩굴,
철, 한라부추, 향유 등

간에 좋은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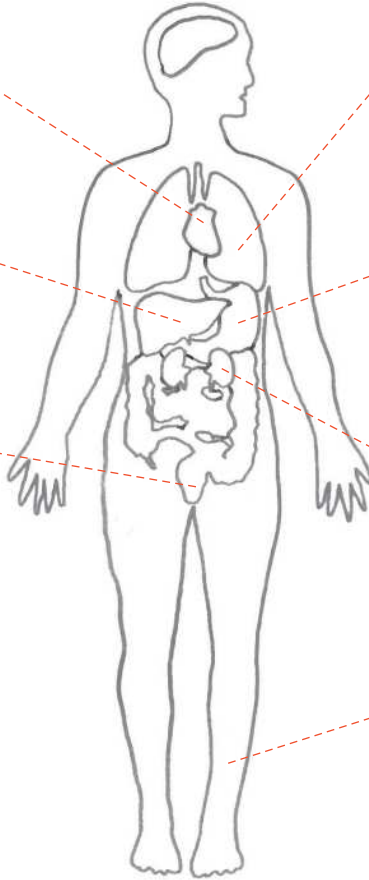
간병꽃풀, 꿀풀, 낙지다리,
미나리아재비, 민들레,
바위솔, 벌꽃, 솔나물, 애기똥풀,
영경취, 질경이 등

남성에 좋은 식물

꾸지나무, 말오줌때, 뱀무,
야광나무, 좀쥐똥나무,
초피나무, 황벽나무, 회향 등

여성에 좋은 식물

구절초, 냉이, 동백나무,
등근배암차즈기, 모시풀,
바늘꽃, 붓꽃, 삼주, 쑥, 양지꽃,
이스라지, 익모초, 조뱅이,
죽제비고사리, 주목, 해당화 등



폐, 기관지에 좋은 식물

개구릿대, 고본, 광대수염, 기름나물,
냉초, 노루오줌, 도라지, 등굴레,
마타리, 맥문동, 머위, 미역취,
바디나물, 반하, 속새, 잔대,
주걱비비추, 토현삼, 홀아비꽃대 등

위·장에 좋은 식물

고마리, 고사리, 관중, 금평의다리,
다래, 마가목, 배초향, 보리수나무,
불나무, 사위질빵, 인동덩굴,
좁쌀바귀, 차나무, 공배나무,
팔꽃나무, 할미꽃 등

신장에 좋은 식물

개감수, 골풀, 미나리, 범꼬리,
병아리꽃나무, 비짜루, 석위,
석잠풀, 솜방망이, 야산고비,
절레꽃, 큰고랭이, 패랭이꽃 등

뼈, 관절, 근육에 좋은 식물

가시나무, 갈퀴덩굴, 골담초,
넉줄고사리, 돌콩, 된장풀,
말뚝비름, 반디지치, 버럭나물,
산딸나무, 종가시나무 등

약초 재배와 관리법

재배지 환경

각 식물이 자라는 자생지 환경과 유사하게 조성하는 것이 기본임

- 토양: 대부분의 약초는 비옥한 땅을 선호, 대부분의 약초는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좋은 흙을 선호
- 광: 봄에는 햇빛이 잘 들고, 여름에는 그늘진 곳을 선호

시기	관리법
종자 파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잘 자라지 않는 약초는 솎아줌
봄 (3-5월)	5월에 유기질 비료를 흙과 섞어 소량 줌
여름(6-8월)	가뭄때 오전 10시, 오후 4시쯤 뿌리에 물을 줌 햇볕이 너무 강하면 차광막을 씌어줌 비료는 주지 않음
가을(9-11월)	10월, 거름을 약초 근처에 소량 줌(열매 결실 후 거름 주지 않음)
겨울(12-2월)	비닐을 덮어 온도 유지 비료 주지 않음

식물 이용부위별 채취 시기

이용부위	채취 시기
	식물 예
잎, 줄기	6-7월(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
	구절초, 마가목, 삼지구엽초, 쑥 류, 오갈피나무, 오리나무, 으름덩굴, 인동덩굴, 화살나무, 황칠나무, 헛개나무 등
뿌리	7월, 9-10월(꽃이나 잎 등이 자라지 않아 약기운이 그대로 뿌리에 남아있음)
	개구릿대, 개발나무, 고삼, 골담초, 구릿대, 갯쟁이풀, 삽주, 쇠무를, 시호, 억새, 왜전근, 율판나무, 쥐오줌풀, 지치, 참당귀, 초피나무, 황기 등
꽃	개화 초기
	감국, 과꽃, 구절초, 금불초, 때죽나무, 머위, 배초향, 산철쭉, 익모초, 인동덩굴, 큰바늘꽃, 함박꽃나무, 황매화 등
열매	충분히 성숙한 후
	가래나무, 귀룽나무, 꾸지뽕나무, 노간주나무, 다래, 말발도리, 비자나무, 산사나무, 아그베 나무, 오미자, 익모초, 쥐똥나무, 짚레꽃, 팔배나무, 화살나무 등
껍질	5-6월(물이 올랐을 때 껍질이 벗겨지기 쉬움)
	꾸지뽕나무, 노각나무, 느릅나무, 산겨릅나무, 생강나무, 소태나무, 신갈나무, 예덕나무, 음나무, 자작나무, 황벽나무 등
수지류 (송진 등)	7월(덥고 건조할 때)
	개웃나무, 복자기 등

약초정원 공간구상

오늘날의 약초정원은 식물원, 약학대학, 화장품이나 제약회사 등에 조성되어 있다. 연구를 위한 실용정원이 점차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약초정원은 특정한 대상(여자, 남자, 어린이 등), 인체 기관(폐와 기관지, 심장, 뼈와 근육, 피부 등), 질병(감기, 변비, 두통, 알레르기 등), 국가나 지역(중국 전통 약초, 아프리카 약초, 동남아시아 약초 등), 오감(향, 색, 촉감 등), 책(동의보감, 본초학에 나온 식물 등)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주제로 전시된다.

모델정원 주제선정

- ▶ 어머니(부인)를 위한 정원, 여성의 몸에 좋은 약초로 구성

디자인 컨셉

- ▶ 조각보 패턴

천 조각을 이어 만든, 조각보는 조선시대 서민층에서 통용된 규방 문화로 어머니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예술적 감각이 느껴지는 조형 작품이기도 하다.

단순하지만 정형적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조각보 패턴을 정원디자인에 접목시켜 향기롭고 몸에 좋은 우리 꽃이 한국적이면서 감각적인 패턴 속에서 만발하기를 상상하며 디자인 한다.



여성에 좋은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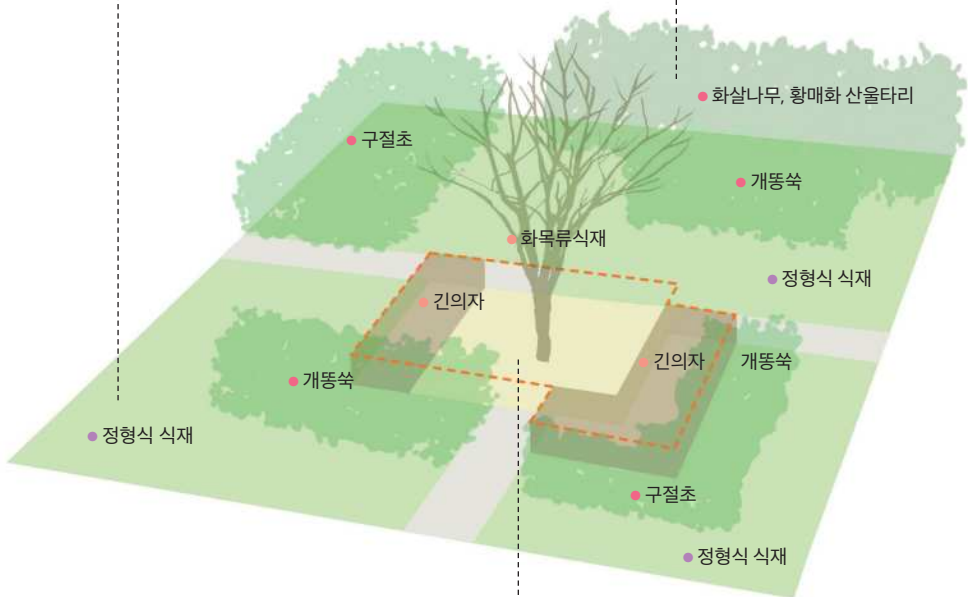
- ▶ 구절초, 긴병꽃풀, 냉이, 마타리, 매발톱, 물레나물, 바늘꽃, 바위손, 뱀딸기, 부처꽃, 부처손, 붓꽃, 뼈꼭채, 사위질빵, 산복사나무, 산이스라지, 삽주, 생강나무, 쇠뜨기, 십싸리, 쑥 류, 쑥부쟁이, 양지꽃, 억새, 용담, 으뜸덩굴, 익모초, 인동덩굴, 장구채, 절굿대, 정향나무, 조뱅이, 쯤썸바귀, 쥐오줌풀, 짚신나물, 참당귀, 참반디, 초롱꽃, 층꽃나무, 큰범무, 탐꽃, 톱풀, 패랭이꽃, 패모, 풀솜대, 해당화, 홀아비꽃대, 화살나무, 황기 등

1 꽃 향기로 가득한 공간

- ▶ 여성에 좋은 식물이 식재된 공간
- ▶ 사계절 변화와 생동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다년생 초화류로 구성, 산만하지 않은 꽃색,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정형식 식재
- ▶ 외부에서 내부 휴게공간이 쉽게 인지되지 않고 외부공간도 고려한 식재

3 위요공간을 위한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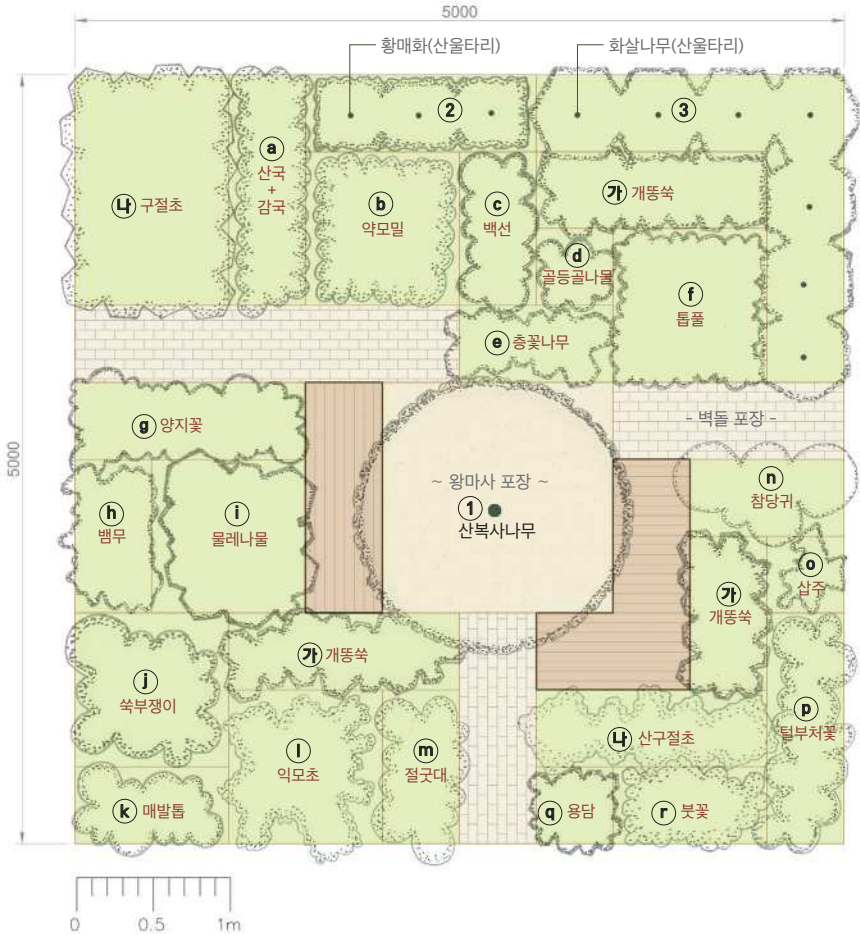
- ▶ 중심 휴게공간이 아늑하게 느껴지도록 울타리가 되는 식물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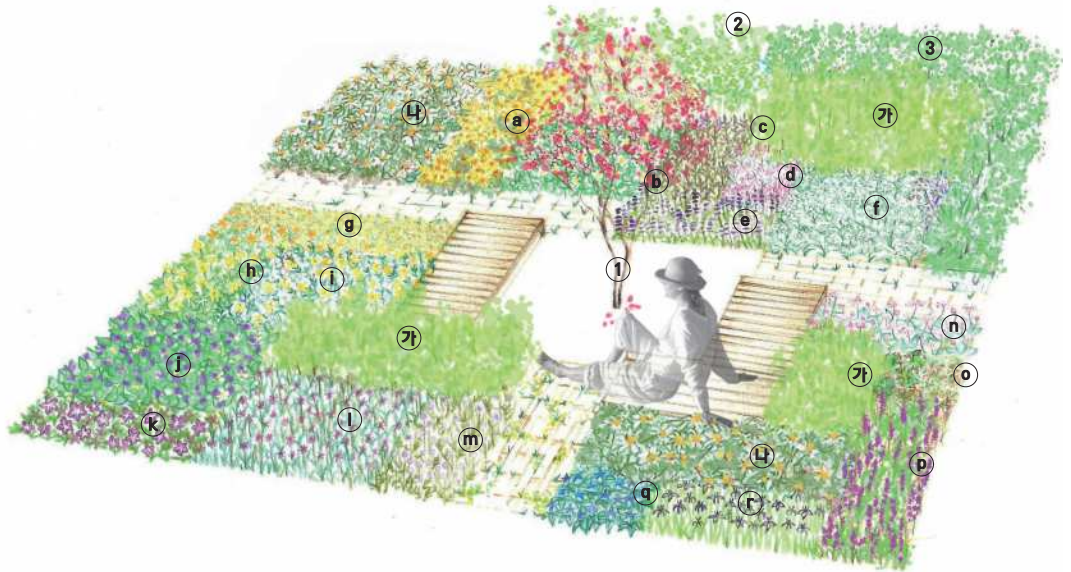


2 쓸 수 있는 공간 계획

- ▶ 그늘을 주는, 공간의 중심에서 초점이 되는 화목류
- ▶ 울타리와 식물로 둘러싸여 정원을 바라보는 공간
- ▶ 편안한 마사포장

약초정원 모델정원







① 산복사나무



② 황매화



③ 화살나무



④ 구절초



⑤ 약모밀



⑦ 개똥쑥



⑧ 산국



⑨ 백선



⑩ 퉁퉁



⑪ 흥꽃나무



⑫ 골동골나무



㉞ 뱀무



㉠ 물레나물



㉠ 쪽부쟁이



㉞ 양지꽃



㉞ 털부처꽃



㉞ 매발톱



㉠ 익모초



㉞ 참당귀



㉞ 절굿대



㉠ 봇



㉞ 삽주



㉞ 용담



개똥쑥

Artemisia annua L.
Sweet wormwood

한해살이풀 ↓1m ❁ 6-9월, 녹황색

생약명 청호(菁蒿) 개똥쑥의 지상부

효능 ① 여름 더위로 인한 메스꺼움, 구토,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많은 증상에 유효
 ② 뼈마디가 쭈시면서 열이 나는 증상 ③ 땀이 없으면서 미열이 나는 증상 ④
 여름 감기

자생지 인가 주변의 빈터나 길가, 강가

식재 양지의 배수가 잘 되며 비옥한 곳

관리 집단으로 심어 관리해야 주변에 잡초나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에서 버틸 수 있음

증식 9월경에 열리는 종자를 가을에 뿌리거나(가을에 파종하면 흑한기를 이겨내어 약성이
 좋아짐), 이듬해 봄에 파종



0605 국립수목원



0708 국립수목원

골담초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Chinese peashrub

낙엽활엽관목. ↑2m ❀ 5월, 노란색

생약명 금작근(金雀根) 뿌리를 말린 것, 금작화(金雀花) 꽃을 말린 것

효능 금작근 ① 신체 허약 시 기침 ② 백대하, 생리불순 ③ 관절염, 타박상, 통풍, 요통, 신경통 ④ 고혈압

금작화 ① 체력을 과다하게 소모해서 일어나는 발열, 만성기침 ② 두통, 어지럼증

자생지 전국의 산지

식재 양지나 반그늘의 유기질이 풍부한 곳(추위와 건조에 강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람)

관리 작은 잎들이 많아 수분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이른 봄에는 2-3일 간격으로 관수

증식 9월경에 종자가 열리지만 결실이 잘 안됨. 이른 봄 포기나누기



골등골나물

Eupatorium lindleyanum DC.
Lindley eupatorium

여러해살이풀 ↑70-100cm * 7-10월, 연한 자주색

생약명 패란(佩蘭) 등골나물, 골등골나물, 향등골나물, 서양등골나물의 지상부

효능 ① 여름철 소화불량, 배가 더부룩한 것, 구토, 설사 ② 습열로 인한 소화장애 및 설태가 끼는 증상, 갈증 ③ 습싸리와 같이 쓰면 타박상으로 붓고 아픈 곳 치료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식재 양지 혹은 반그늘의 보수력이 있고 배수가 양호한 곳

관리 2-3일 간격으로 관수, 어느 곳에 심더라도 잘 자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음

증식 10월에 종자를 받아 보관한 후 이듬해 봄에 파종, 이른 봄이나 가을에 포기나누기



0905 국립수목원



0904 강원 원주

골풀 *Juncus decipiens* (Buchenau) Nakai Golpul(Common rush)

여러해살이풀 ↓25-100cm ❁ 5월, 녹갈색

생약명 등심초(燈心草)_골풀의 골속

효능 ① 열이 있으면서 소변을 못보고 소변 색이 붉은 증상 ② 가슴 속이 답답하고 편안하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루는 증상, 어린 아이가 밤이면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증상 ③ 폐열로 인후가 붓고 아픈 증상

자생지 전국 들판의 물가나 습지

식재 배수가 잘 되는 유기질이 많은 곳, 다습하고 바람이 적게 부는 곳

관리 충분히 관수

증식 9-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0608 국립수목원



0613 경기 평화원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m.
White-lobe Korean dendranthema

여러해살이풀 ↑50cm ❀ 9-10월, 흰색

생약명 구절초(九折草)_구절초의 지상부

효능 부인의 자궁이 허약하고 차서 발병한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증에 유효(민간에서는 환약 또는 엷을 고아서 장기간 복용하면 생리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임신하게 된다고 하여 널리 활용됨)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또는 높은 지대의 능선부

식재 양지의 보습력이 있고 물빠짐이 좋은 곳

관리 성장기간 동안 토양의 습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많은 꽃을 볼 수 있지만 과습에 주의

증식 10-11월에 채취한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0930 강원 평창



0921 국립수목원



0921 국립수목원

꽃향유 *Elsholtzia splendens* Nakai

Shiny mint

한해살이풀 160cm * 9-10월, 분홍빛이 나는 자주색

생약명 향유(香薷)_꽃향유의 지상부

효능 ① 여름 감기로 열이 나고 춥고 두통과 땀이 안 나는 증상 ② 여름철에 복통 및 설사를 일으킬 때 편두와 배합해서 사용 ③ 이뇨 작용이 있어 소변을 잘 못 보는 증상에 삽주를 가미하여 사용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산지의 숲 밖 경사지, 초지

식재 양지 또는 반그늘의 배수가 잘 되는 곳

관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는 식물이지만 여름철에는 가능한 시원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생장에 좋음

증식 11월경에 채취한 종자를 곧바로 파종하면 이듬해 봄에 발아함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Balloon-flower

여러해살이풀 ↑40-100cm ❁ 7-8월, 하늘색 또는 흰색

생약명 길경(桔梗)_도라지의 뿌리

효능 ① 만성기침, 가래, 코막힘, 두통 ② 편도선염, 인후염에 감초와 같이 활용 ③ 폐렴, 급만성 기관지염, 인후염 ④ 이질이나 목구멍이 아프고 부을 때 ⑤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소변의 양이 적을 때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식재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는 비옥한 곳

관리 자갈이 많거나 가뭄이 심한 곳에서는 잔뿌리 발생이 많아 발육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관리에 주의

증식 9-10월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0703 국립수목원



꽃이 피는 과정



0908 국립수목원

백선 *Dictamnus dasycarpus* Turcz. Dense-fruit dittany

여러해살이풀 ↑90cm ❀ 5-6월, 연한 홍색

생약명 백선피(白鮮皮)_백선의 뿌리 껍질

효능 ① 습열로 인해 피부가 험고 발진이 생겼을 때 및 습진, 가려움증에 내복하거나 달인 물로 환부 세척 ② 급성간염으로 황달이 오거나 습열이 많아 발생한 사지마비 ③ 열로 인한 만성기침, 인후건조

자생지 전국의 산록이나 산기슭

식재 양지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습윤한 곳

관리 어린 유묘는 습기에 강하지만 충분히 성숙한 식물체는 지하부의 습기에 약함. 봄에 물이 부족하면 잎이 아래로 처지므로 충분히 물을 주고, 성장속도가 대단히 빨라 특별한 시비관리 필요없음

증식 8월경에 익는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 뿌리가 커서 분주는 어려움



0518 국립수목원



0716 국립수목원

뱀무

Geum japonicum Thunb.
Asian herb bennet

여러해살이풀 ↑25-100cm ❁ 6월, 노란색

생약명 수양매(水楊梅)_뱀무의 지상부

효능 ①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고 무거우며 잠을 못 이루는 증상 ② 허약해서 일어나는 사지무력증, 허약성해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발기부전, 허약성 정신불안 ③ 부인의 생리불순과 하복통

자생지 중부 이남의 숲 속이나 산기슭

식재 반그늘의 배수가 잘 되고 유기질이 풍부한 곳(배수가 좋은 곳이라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람)

관리 심한 가뭄이 아니라면 관수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됨

증식 7-9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복분자딸기

Rubus coreanus Miq.
Bokbunja (Korean blackberry)

낙엽활엽관목. ↑3m ❁ 5-6월, 분홍색

생약명 복분자(覆盆子)_복분자딸기, 가시복분자딸기, 덩굴뱀딸기, 섬딸기, 나무딸기, 거지딸기의 털 익은 열매

효능 ① 유정, 몽정 또는 소변이 저절로 나오거나 자주 볼 때, 양기가 부족할 때 ② 간기능이 허약해서 오는 시력 약화 ③ 흰 머리를 검게 함

자생지 양지의 산기슭

식재 양지의 배수가 잘 되고 유기물이 풍부한 곳

관리 줄기 속이 비어있어 바람 피해가 심하면 줄기에 상처를 입고 생육이 저하됨

증식 이른 봄 포기나누기, 종자 발아는 어려움



0708 국립수목원



0609 국립수목원



0815 국립수목원

삼주 *Atractylodes ovata* (Thunb.) DC.

Ovate-leaf atractylodes

여러해살이풀 ↑30-100cm ❁ 7-10월, 흰색 또는 홍색

생약명 창출(蒼朮)_삼주의 뿌리줄기

효능 ① 배가 더부룩하거나 메스껍고 구토, 묽은 변이 있는 증상 ② 여름철 설사, 위산과다, 위·십이지장 궤양 ③ 감기로 인한 발한·해열작용 ④ 사지와 관절이 붓고 아프면서 무거운 증상 ⑤ 야맹증

자생지 전국 산과 들 또는 수목 아래 다소 서늘한 반그늘

식재 양지 또는 반그늘의 물 빠짐이 좋고 비옥한 곳

관리 뿌리가 과습에 약하므로 물빠짐이 좋도록 관리

증식 11월초에 채종한 종자를 이른 봄에 파종, 꽃이 핀 포기는 힘이 약해져 다음해 꽃을 볼 수 없으므로 해마다 이른 봄에 포기나누기를 하여 다시 식재해야 함



솜방망이 *Tephroseris kirilowii* (Turcz. ex DC.) Holub East Asian groundsel

여러해살이풀 ↑25-70cm * 5-6월, 노란색

생약명 구설초(狗舌草)_ 솜방망이의 지상부

효능 ① 이뇨작용이 있어서 신우신염으로 몸이 부었을 때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및 요로감염 ② 구내염 ③ 타박상

자생지 전국의 양지바른 건조한 풀밭

식재 양지의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좋은 곳

관리 장마철 과습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자라지만 유기질이 많은 곳에서 군락을 이룸

증식 7-8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함, 이른 봄 포기나누기



용담 *Gentiana scabra* Bunge Korean gentian

여러해살이풀 ↑20-60cm ✨ 8-10월, 자주색

생약명 용담초(龍膽草)_용담, 과남풀, 큰용담, 비로용담의 뿌리

효능 ① 간담습열로 인한 황달, 이질, 음부가려움증, 대하, 습진에 활용 ② 고열로 인한 수족경련 ③ 두통과 입 안이 쓰고 눈이 충혈되며 소리가 안들리는 증상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풀숲

식재 양지의 습기 있지만 배수가 잘 되는 곳

관리 유기질 비료를 주면 꽃봉오리가 많아지고 잘 자람, 물을 좋아하므로 흠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

증식 10-11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봄에 올라오는 줄기를 5-6월에 잘라 꺾꽂이를 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1007 국립수목원



0427 국립수목원



1020 국립수목원

익모초 *Leonurus japonicus* Houtt. Oriental motherwort

두해살이풀 150-100cm ❁ 7-8월, 연한 홍자색

생약명 익모초(益母草)_익모초의 지상부

효능 ① 부인과 질환에 상용하는 약물로 생리가 없을 때, 또는 생리통이 있을 때 ② 산후 자궁 수축 불량으로 출혈이 있거나 복통이 있을 때 ③ 소변 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을 때와 몸이 부었을 때 ④ 습진, 가려움증

자생지 전국 산과 들의 햇볕이 잘 들어오는 풀숲

식재 양지바르고 건조하지 않은 곳

관리 산성 토양이나 습기가 부족한 모래땅에서는 생육이 불량함,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두둑의 높이를 높게 해야 함

증식 10월경에 익는 종자를 바로 파종(종자 발아율 매우 높음)



0803 국립수목원



0826 충남 태안



뿌리 잎



줄기 잎

절굿대

Echinops setifer Iljin
Purple globe thistle

여러해살이풀 ↑1m ❁ 7-8월, 남자색

생약명 누로(漏蘆)_절굿대, 삐꾹채의 뿌리

효능 ① 열독으로 인한 중기에 소염·진통·해열 작용 ② 유방염 초기 증상에 민들레와 같이 사용 ③ 유즙 분비 부족시 촉진 ④ 차고 습한 것이 경락에 쌓여 근육과 관절의 통증이 나타날 때

자생지 전국의 양지쪽 산지, 풀밭

식재 양지의 물 빠짐이 좋고 다소 건조한 곳

관리 토양이 너무 기름지거나 시비를 과다하게 하면 식물체가 웃자라 개화 상태가 좋지 않음

증식 9-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종자는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듬해 봄에 뿌리면 발아율이 매우 낮음)



0831 국립수목원



0730 국립수목원

쥐손이풀 *Geranium sibiricum* L. Siberian geranium

여러해살이풀 ↑30-80cm ❀ 6-9월, 연한홍색 또는 홍자색

생약명 노관초(老觀草)_쥐손이풀, 이질풀, 선이질풀, 세잎쥐손이, 털쥐손이 등의 지상부와 열매

효능 ① 풍습을 제거시키고 경락을 소통시켜 골격과 근육을 강하게 하므로 사지 마비 통증, 관절이 부드러워지 않을 때 ② 타박상 ③ 이질과 만성설사복통, 장염 ④ 피부가려움증, 부스럼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길가나 인가 주변의 빈터

식재 양지 또는 반그늘의 물빠짐이 좋은 곳

관리 공중습도가 적당히 유지되도록 관리

증식 9월경에 익는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이른 봄 포기나누기



잠신나물 *Agrimonia pilosa* Ledeb.

Hairy agrimony

여러해살이풀 ↑30-100cm ❁ 6-8월, 노란색

생약명 용아초(龍芽草)_잠신나물의 지상부

효능 ① 혈열로 인한 각혈, 토혈, 소변 출혈, 변혈, 자궁출혈 등에 활용 ② 수렴성 지혈제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식재 양지 또는 반그늘의 물이 잘 빠지는 곳

관리 봄에는 2-3일 간격으로, 나머지 기간에는 4-5일 간격으로 관수

봄·가을에는 햇빛을 충분히 보여주고 한여름에는 반그늘로 관리

증식 9월경에 익는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이른 봄 새순이 올라올 때 포기나누기



찔레꽃 *Rosa multiflora* Thunb. Multiflora rose

낙엽활엽관목 ↓2m ❁ 5월, 흰색 또는 연한 붉은색

생약명 영실(營實)_찔레꽃의 열매

효능 ① 노인이 소변을 잘 보지 못할 때, 전신이 부었을 때 ② 불면증, 건망증, 성기능이 감퇴되었을 때 ③ 중기, 약창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의 기슭과 계곡, 하천 유역

식재 양지의 배수가 잘 되는 다소 습한 곳

관리 심은 뒤 2년이 지나면 흙에 새로운 유기질을 공급해줘야 함.

증식 10월에 익는 종자를 노천매장한 후 이듬해 봄에 파종, 2-3월·6월·9-10월에 가지를 삽목



0601 경남 지리산



0602 국립수목원



0510 전북 고창

참당귀

Angelica gigas Nakai

Korean angelica

여러해살이풀 ↑1-2m ❁ 8-9월, 자주색

생약명 토당귀(土當歸)_참당귀의 뿌리

효능 ① 사지관절 통증 ② 보혈작용 ③ 여자의 생리조절 작용이 뛰어나고, 산전·산후의 여러 증상 개선 ④ 타박상, 골절상에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부종을 내림

자생지 산지 반그늘 혹은 양지의 냇가 근처

식재 양지 혹은 반그늘의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되는 부드러운 토양

관리 토양에 유기질이 부족하면 식물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유기질이 많은 비료를 사용하고 충분히 관수

증식 10월에 받은 종자를 바로 파종, 봄에 뿌리나누기



톱풀 *Achillea alpina* L. Alpine yarrow

여러해살이풀 ↑50-120cm ❁ 7-10월, 흰색

생약명 일지호(一枝蒿)_톱풀의 지상부

효능 ① 생리가 없으면서 통증이 있는 증상 ② 급성 유선염 등 부인과의 염증 ③
중기나 뱀에 물린데 해독 작용 ④ 타박상 등 급성외과 감염증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식재 양지의 보수력이 있으면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관리 여름철 고온기에는 건조로 식물체가 약해지기 쉬우므로 자주 관수

증식 가을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 4월, 11월에 포기나누기



실내에 식물을 식재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식물이 발산하는 신선한 향기와 부드러운 촉감은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에서 활력을 불어넣는다. 실내정원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롱 우드 가든 오랑제리 Longwood garden orangery

실내정원

Indoor Garden

실내에서도 자연을 느끼는 정원

자연을 곁에 두고자하는 인간의 바람에서 나온 실내정원은
공기를 정화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
반복되는 일상공간 속에서 신선한 활력소를 줄 것이다.

실내정원에 대한 기록

약 3천여년전 이집트 룩소르Luxor에 있었던 벽화에서 여왕 하셉슈트가 에디오피아에서 수집한 식물을 방에 장식한 모습이 실내정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로마시대에는 운모조각으로 만든 온실이 지어져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장미를 도입하여 겨울철에도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원후 290년에는 우리가 개발되어 장미, 포도, 백합과 같은 식물들을 온실에서 재배했다고 한다. 중세 유럽에서는 왕족, 식물학자, 수집가, 탐험가들이 세계 각지의 희귀한 식물을 수집하면서 관리를 위한 온실들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중세 중엽에는 식물을 용기에 심어 장식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감귤류 등을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여 겨울에는 온실로 옮겨 관리하였다. 16세기에는 양치류, 아스파라거스, 선인장 등을 식재하였고 18세기에는 관엽식물과 같은 이국적인 식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새로운 식물이 도입되었다. 당시 영국의 상류층은 부의 상징으로서 화려한 온실을 지었으며 연중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서울시청 신청사 실내정원

온실은 ‘겨울정원’이라고도 불렸는데 프랑스 파리식물원은 1937년에 겨울정원을 만들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을 식재하고, 마치 에텐동산에 온 듯한 느낌을 주도록 연출하였다. 귀족 주택에서 온실은 전 세계의 희귀한 식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집과 떨어진 독립된 형식으로 지었는데 점차 주거공간과 연결되어 거실과 겨울정원이 일체적 공간으로 변화였고 이후 지금의 실내정원이 탄생하게 된다.



롱우드 가든 온실 Longwood garden conservatory

실내정원 철학

1. 변화와 이동에 유연해야 한다

식물관리가 편하고 한 여름과 한 겨울에는 식물을 실내로 이동하는 것이 쉬워야 한다.

식물의 배치는 실내공간을 구획하고 차폐하며 불쾌한 조망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실내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 한다

실내의 광량, 온도에 견디는 식물을 선정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병충해와 공해에도 강한 식물을 선택한다.

3. 몸과 마음에 위로가 되는 정원을 만든다

인간의 뇌파는 식물을 볼 때 알파파가 많아져 피로회복 및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식물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를 정화하며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실내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새집증후군을 완화하기도 한다.

실내식물을 위한 환경과 관리 Tip

1. 광도

- ▶ 실내에서는 채광을 500Lux이상으로 조절해야 함
- ▶ 식재 후에 실내 광량에 적응할 수 있는 약 1개월 정도의 광순화 기간이 필요함
- ▶ 한 여름에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블라인드 등을 활용하여 햇빛을 가려주고 광이 너무 부족하면 형광등 등 인공광으로 보광을 해주는 것이 좋음

2. 온 · 습도

- ▶ 온도(주야 온도차 10℃ 내외, 13~25℃ 유지), 습도(최저 30~50%, 최적 50~70%)로 유지하고 식물을 냉 · 난방 장치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음

3. 관수

- ▶ 물주는 시기는 손가락으로 흙 표면의 약 1cm 깊이를 만져서 물기가 만져지면 물을 주지 않은 것이 좋음
- ▶ 배수시설이 없는 실내정원의 경우에는 물을 흠뻑 줄 수가 없으므로 흙 표면에 골고루 주도록 함
- ▶ 물의 온도는 실내온도와 비슷한 것이 좋음

명지병원 '숲마루'

실내정원 안에 건강검진센터가 위치한 명지병원 '숲마루'는 삼림욕을 하면서 진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치유정원이다. 천장이 온실처럼 유리로 되어 있어 채광이 좋으며, 정원 내에 계류가 흐르고 벽천, 연못이 있어 청량함을 주며, 배롱나무, 비비추, 속새, 물양귀비, 수련 등 30여종이 넘는 식물로 구성된 울창한 정원은 숲 속에 온듯한 느낌을 준다.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숲마루'

실내정원 공간구상

1. 공간구조 고정식 화단과 이동식 화분 배치

고정식 화단의 경우, 화분을 배치하는 것보다 작업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므로, 여유가 된다면 작은 정원을 디자인하고 가꿀 수 있는 고정식 화단 조성을 일부 권장한다. 사용하는 흙은 가볍고 병충해나 잡초의 오염이 없는 원예상토, 펠라이트, 피트모스 등 식물별 용도에 맞는 부엽토를 1:1로 배합하여 가벼우면서 영양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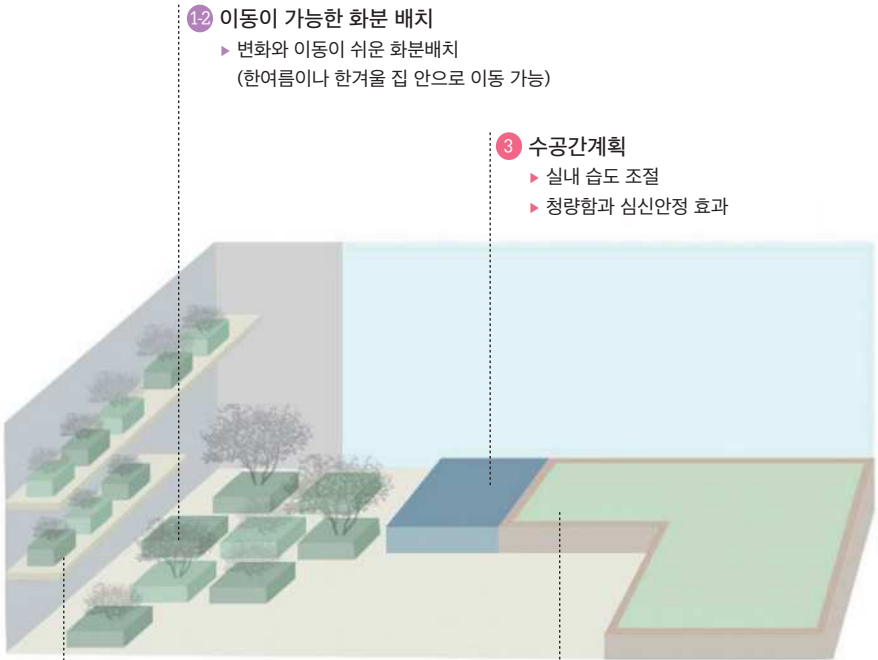
선호하는 식물이 관엽식물이나 난대성 식물인 경우 한겨울 추위에 유의해야 하므로 실내로 쉽게 옮길 수 있는 화분에 식재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때때로 베란다 식물을 내부로 옮겨 실내분위기를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도 화분을 이용할 수 있다.

2. 입체적 공간 활용

좁은 베란다에서 벽면은 녹색환경을 만드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된다. 벽면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화분을 놓거나, 공중걸이용 화분을 벽에 매달거나 매트형 녹화소재로 이끼류 등을 부착하여 주변이 보다 푸르게 되도록 계획해보자.

3. 수공간 계획

정원에 물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면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작은 연못은 실내 공기에 수분을 공급하는 자연 가습기 역할도 한다.



1-2 이동이 가능한 화분 배치

- ▶ 변화와 이동이 쉬운 화분배치
(한여름이나 한겨울 집 안으로 이동 가능)

3 수공간계획

- ▶ 실내 습도 조절
- ▶ 청량함과 심신안정 효과

2 입체적 공간 활용(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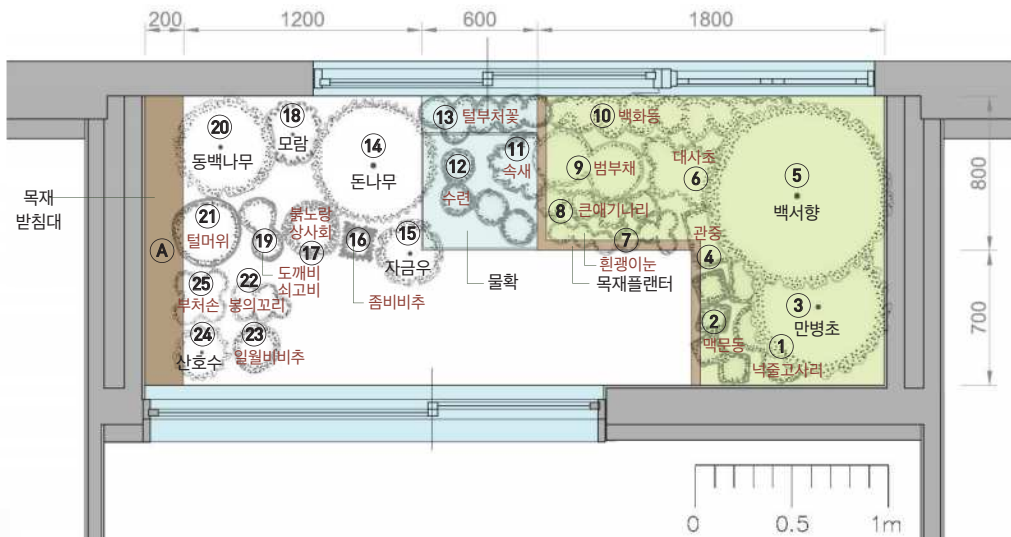
- ▶ 더 넓은 식재 공간 확보
- ▶ 풍성한 녹음을 위해 벽면 받침대를 활용하여 화분배치

1-1 고정식 화단 설치

- ▶ 다양한 식물을 자유롭게 식재 할 수 있는 공간
(높이 0.8m x 폭 0.8m-1.5m)
- ▶ 실내에도 향이 전달되는 방향성 식물 식재

실내정원 모델정원





(A) 목재 받침대 입면도



① **늑줄고사리**



④ **관층**



⑥ **대사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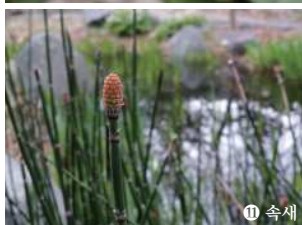
⑨ **범부채**



② **맥문동**



⑦ **흰괘이누**



⑪ **속새**



⑬ **틸부치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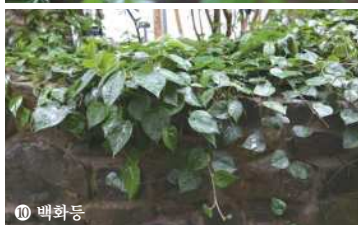
③ **만병초**



⑤ **백서향**



⑧ **큰애기나리**



⑩ **백화등**



⑫ **수련**



⑭ **돈나무**



15 자금우



18 모람



21 털머위



17 붉노랑상사화



20 동백나무



23 일월비비추



16 줄비비추



19 도깨비쇠고비



22 봉의꼬리



25 부처손



28 산호수



26 콩짜개덩굴



27 보춘화



28 세복수초



29 밀사초



30 석위



31 송악



32 줄사철나무

관중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Shield fern

하록성 여러해살이풀 ↑50-100cm

총생하는 잎은 중앙부를 비워둔 채 규칙적으로 둘러나고 45도 각도로 솟은 이파리들의 배열이 단정하여 보기 좋음. 교목 하부의 습하고 그늘진 사면에 이끼와 함께 식재하면 인상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음

자생지 전국의 산지

식재 그늘의 유기질과 습기가 많은 토양

관리 공중 습도를 높게 관리하고 환기가 필요함, 2-3일 간격으로 관수

증식 이른 봄 포기나누기 또는 6-9월에 포자번식(포자로도 번식이 가능하나 어려움)



넉줄고사리 *Davallia mariesii* T.Moore ex Baker

Squirrel's-foot fern

하록성 여러해살이풀 ↑15-20cm

작은 돌이나 바위에 이끼와 같이 심어 뿌리를 덮어 주면 초기 생육이 좋으며 이끼를 뚫고 올라온 뿌리는 밖으로 노출되어 생육함. 개체로 심는 것보다는 균락으로 식재하는 것이 관상가치가 높음

자생지 중부 이남의 숲 속, 바위 또는 나무에 착생

식재 반그늘지는 바위

관리 공중습도를 높게 관리

증식 가을에 포기나누기 또는 6-9월에 포자 번식(포자번식은 가능하나 어려움)



0603 지리산피어골



0401 국립수목원

대사초 *Carex siderosticta* Hance

Creeping broad-leaf sedge

여러해살이풀 ↑10-40cm ❁ 6-7월, 녹갈색

대나무 잎과 닮은 잎들이 봄부터 겨울에 낙엽이 지기 전까지 변함없는 형태로 지면을 촘촘히 피복하여 지피식물로 많이 활용함. 한번 식재하면 관리가 거의 필요없음

자생지 전국의 산지 숲 속 그늘진 곳

식 재 반그늘이나 그늘의 습기가 풍부한 곳

관 리 과밀하게 자란 경우 6월경에 줄기나 포기를 적당히 솜아내고 유기질 비료와 마사를 섞어 가볍게 복토해 줌

증 식 7-8월경에 익는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도깨비쇠고비

Cyrtomium falcatum (L.f.) C.Pre
Hollyfern

상록성 여러해살이풀 ↑30-50cm

잎이 항상 푸르기 때문에 실내정원에서 다른 식물들과 혼식하기에 좋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지피식물로 식재하면 모양이 독특함. 남부지방에서는 정원에 심어 관상함

자생지 해안가의 숲 가장자리 돌 틈

식재 양지나 반그늘의 돌 틈

관리 내건성 식물이지만 공중 습도는 높은 것이 좋음

증식 이른 봄 포기나누기 또는 7-9월 포자 번식



돈나무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
Australian laurel

상록활엽관목. ↑2-3m ❀ 5-6월, 흰색

작은 흰색 꽃송이들이 모여피어 향기롭고, 작고 둥근 녹색잎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이용가치가 높음. 남부지방에서는 정원이나 공원의 진입로, 건물 하부, 화단이나 정원의 경계식재, 차폐용,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이용됨

자생지 남부지방 해안가

식 재 습기가 충분하고 비옥한 사질토

관 리 질소성분이 많은 토양에서는 그을음병이 발생하기때문에 과도하게 비료를 주지 않음

증 식 6-7월경에 삼목하면 뿌리가 더 잘내림



만병초 *Rhododendron brachycarpum* D.Don ex G.Don

Short-fruit rosebay

상록활엽관목. ↑1-4cm ❁ 5-6월, 연한 분홍

만병에 효과가 있는 약초라하여 '만병초'로 이름을 붙였고 식물체 크기에 비해 꽃이 크고 화려하며 잎도 아름다워 그늘아래 관상용으로 식재되고 있음

자생지 높은 산 중턱의 숲속

식 재 반그늘의 시원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

관 리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관리해야 생육에 좋음. 비옥한 곳에서 잘자라므로 유기질이 풍부하도록 시비해서 관리

증 식 가을에 익은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함. 9월경에 가지 삼목을 함(휘문이로 증식하기도 하나 발근이 어려움)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Big blue lilyturf

여러해살이풀 ↑30-50cm ❀ 5-6월, 보라색

겨울에도 상록성잎을 볼 수 있으며 그늘용 지피식물로 활용가능하여 공원, 정원, 가로변 하부식재용으로 많이 식재되고 있음. 뿌리가 강하고 음지, 양지를 가리지 않고 잘 적응함

자생지 전국 산지의 나무 그늘

식재 습기가 있는 그늘진 토양

관리 6월 하순과 8월 하순 두 번에 걸쳐서 웃거름을 줌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생육에 좋지 않음

증식 10-11월에 익는 종자를 바로 파종. 이른 봄이나 가을에 포기나누기



0605 아침고요수목원



0612 국립수목원

모람 *Ficus oxyphylla* Miq. ex Zoll. Oriental vining fig

상록활엽덩굴 ❁ 7-8월, 보라색

두껍고 뾰족한 잎을 가진 덩굴식물로서 생장이 느리고 내음성과 내건성에 강해 실내식물로서 가치가 있음. 줄기에서 공기 뿌리가 나와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어 벽면녹화에 활용도가 높음

자생지 남부지방의 해안, 섬지방

식재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

관리 과습지에는 생육이 어려우므로 과도한 관수는 피함

증식 6-7월경에 삽목하거나 가을에 익은 열매를 따서 으깨어 종자를 분리후 직파



백화등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majus* (Nakai) Ohwi
White-flower Asian jasmine

상록활엽덩굴 ❁ 5-6월, 흰색

나무 아래 심어 타고 올라가게 하거나 실내정원에서 키울때는 작은 분재형으로 키우는 것이 좋음. 흰색꽃을 많이 피워 관상가치가 높음

자생지 남부지방 산지의 숲 속

식재 물 빠짐이 좋으며 반그늘이나 그늘에 식재

관리 기근(줄기에서 나오는 뿌리)이 많이 나오므로 쉽게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나 웬스 등 지지체를 둬

증식 9월경에 익는 열매를 노천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함, 봄철, 장마철을 이용하여 줄기 삽목을 함



0117 제주도



0526 경남 거제

봉의꼬리 *Pteris multifida* Poir.

Spider brake fern

상록성 여러해살이풀 ↑30-70cm

전설 속에 나오는 봉황새의 꼬리를 닮은데서 이름 붙여진 ‘봉의꼬리’는 그늘에서도 잘 자람. 부드러운 질감의 상록성 잎을가지고 있어 분화로 이용하거나 바위와 함께 정원에 식재되며 남부지방에서는 지피식물로 활용 가능함

자생지 중부이남 바위틈과 숲의 가장자리

식 재 반그늘 또는 그늘

관 리 환기를 요하고 공중습도가 높도록 충분히 관수해야 함

증 식 이른 봄 포기나누기 또는 7-9월에 포자번식 (포자번식을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쓰지 않음)



부처손

Selaginella involvens (Sw.) Spring
Tree spikemoss

상록성 여러해살이풀 ↑15-40cm

정원에 있는 큰 자연석과 함께 식재하면 숲 속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분재 연출로 많이 쓰임. 부처손은 잎이 두 개씩 돌려나며 이와 유사한 바위손은 잎이 모여나는 차이가 있음

자생지 산지의 바위 위나 나무 위

식재 건조한 바위 표면

관리 과습한 조건은 싫어하므로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해야 함 (건조할 때는 잎이 안쪽으로 공처럼 둥글게 말리고 다습하거나 비가 오면 다시 펴짐)

증식 이른 봄 포기나누기 또는 7-8월에 포자 번식(포자로도 번식이 가능하나 보편적으로 잘 쓰지 않음)



0519 국립수목원



바위손 0428 국립수목원

산호수 *Ardisia pusilla* A.DC. Tiny ardisia

상록활엽관목 1.5m ❁ 6월, 흰색

내음성이 강해 남부지방에서는 교목의 하부식재용, 정원, 공원 등에 지피식물로 식재함. 상록성인 잎의 모양이 독특하고 빨간열매가 아름다워 관상가치가 높고, 근경이 포복성 이므로 옆으로 길게 뻗어 나감

자생지 남부지방 낮은 지대의 숲이나 골짜기

식재 강한 햇볕 아래 척박한 토양에 식재

관리 과습에 약하고 뿌리가 썩기 쉬우므로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관리해야 함

증식 9월에 성숙하는 종자를 바로 파종 또는 이른 봄 포기나누기



0926 천리포수목원



0601 국립수목원



1002 국립수목원

송악

Hedera rhombea (Miq.) Siebold & Zucc. ex Bean
Songak

상록활엽덩굴 ❁ 10-11월, 녹황색

상록의 잎과 열매가 아름답고 그물망 같은 곳에 올려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거나 벽면이나 각종 구조물에 붙여서 키울 수 있는 유용한 관상수임

자생지 남부지방의 그늘진 숲 속 또는 나무 위

식 재 반그늘 또는 그늘의 습도가 높은 곳

관 리 어떤 토양에서나 잘 자라고 관리가 특별히 필요없음

증 식 5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봄철에 잎이 붙은 마디를 잘라 삽목함



일월비비추

Hosta capitata (Koidz.) Nakai
Ilwol hosta

여러해살이풀 150-60cm ❀ 8-9월, 연보라색

주걱비비추에 비해 잎이 약간 둥근모양이며 꽃이 주먹처럼 뭉쳐서 핏. 지하부의 뿌리가 매우 강하여 토양을 고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절개사면의 녹화용으로 활용하거나, 낙엽활엽수 하부에 지피식물로 활용함

자생지 전국의 산 또는 산속 시냇가와 같은 습지

식재 반그늘의 유기질이 풍부한 곳

관리 한여름 속 더위에 약한 식물이므로 직사광선을 차단해주고 통풍이 좋게 관리

증식 9-10월경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반그늘에 파종 또는 이른봄 포기나누기



0627 국립수목원



0627 국립수목원



0702 국립수목원



0531 국립수목원

자금우

Ardisia japonica (Thunb.) Blume
Marlberry

상록활엽관목 ❁ 6월, 흰색 또는 연한 홍색

실내에서 재배하여도 꽃이 잘 피고 결실이 잘 됨. 가을에 붉게 익은 열매도 관상가치가 높으며 분재로도 활용하고 남부지방에서는 정원의 큰 나무 밑에 지피식물로 활용함

자생지 남부지방 산지의 숲 아래

식재 반그늘의 유기질이 풍부하고 약간 습한 곳

관리 한여름에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잎이 타들어가기므로 주의해야 함

증식 9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줄사철나무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old & Miq.) Rehder
Radicans winter creeper spindletree

상록활엽덩굴 ❀ 5-6월, 연한 녹색

황폐지나 절사면의 지피식물로서 효과가 있음, 주로 줄기에서 공중 뿌리가 나와 바위나 나무 위를 기어올라 흡착하면서 뽀어감 수형의 질감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연분홍색으로 익는 열매는 관상가치가 높음

자생지 산기슭의 숲 속

식재 배수가 잘 되며 다소 습한 곳

관리 음지성 식물이나 반그늘, 양지에서도 잘자라며 토양을 가리지 않음. 성질이 강하여 관리에 용이하나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관리에 신경써야 함

증식 10월에 익는 종자를 노천에 매장 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이른 봄에 일년 생가지를 삽목



057 콩짜개덩굴 *Lemnaphyllum microphyllum* C.Preslvar. *microphyllum* Green bean fern

상록성 여러해살이풀

콩을 반으로 쪼갠것 같은 잎을 가졌다하여 ‘콩짜개덩굴’이라 이름 붙임. 바위에 착생시키거나 고사목 또는 수석에 착생시켜 재배하면 관상가치가 높음

자생지 남부지방 해변가 바위위나 나무줄기

식재 반그늘의 고사목이나 바위 위 이끼 위에 부착

관리 공중 습도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생육이 좋아짐

증식 잎에 붙어있는 뿌리줄기를 적당히 잘라 분주하거나 7-9월에 포자번식(포자로도 번식이 가능하나 보편적으로 잘쓰지 않음)



큰애기나리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Green fairybell

여러해살이풀 ↑30-70cm ❁ 5-6월, 연한 녹색

잎은 둥글레와 비슷하나 흰꽃이 줄기의 끝에 자라는 것이 차이점임(둥글레는 잎이 달린 마디 마디에 꽃이 달림) 넓은 면적에 군식해도 좋으며 하부지피식재용으로 활용

자생지 전국 산지의 숲 속

식재 반그늘의 유기질이 풍부한 곳

관리 2-3일 간격으로 관수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음

증식 9월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가을철 포기나누기



0516 국립수목원



0505 기청산식물원



0516 국립수목원

털머위

Farfugium japonicum (L.) Kitam.
Leopard plant

여러해살이풀 ↑30-50cm ❁ 9-10월, 노란색

남부지방에서 가을에 아름다운 노란꽃이 군락을 이루어 관상용으로서 가치가 높음. 낙엽수림 하부에 지피식물로 식재하거나 잎이 넓고 커서 정원 가장자리에 심어 경계로서 역할을 함

자생지 바닷가 숲 속

식 재 반그늘의 습기가 많은 토양

관 리 충분히 관수하고, 다습하게 관리해야함

증 식 11-12월경에 익는 종자를 바로 뿌리하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함. 또는 이른봄 새순이 올라올때 포기나누기



1106 제주도



1017 제주도



0908 제주도

흰꿩이눈

Chrysosplenium pilosum var. *fulvum* (N.Terracc.) H. Hara
White-hair golden saxifrage

여러해살이풀 ↑5-20cm ❀ 4-6월, 황록색

개화기가 빠르므로 이른 봄의 낙엽수림 아래 정원식물로 활용하기 좋음. 잎의 가장자리에는 굵고 무딘 톱니가 있고 꽃이 필무렵 약간 노란빛을 띠기는 하나 녹색을 유지함

자생지 전국 산지의 물가나 습지

식재 반그늘의 서늘한 습지

관리 여름철의 고온 건조한 환경조건에 식물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마철에는 지하부의 통기성 부족과 과습에 의해서도 고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함

증식 5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함 (파종해서 발아한 유묘는 1년 후에 개화함), 이른 봄 줄기를 잘라서 삽목



0502 국립수목원



0515 국립수목원

빗물정원은 주택이나 건물 그리고 건물과 연결된 도시개발 지역에서 흘러넘치는 빗물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움푹하게 파여진 작은 정원이다. 빗물정원은 빗물의 흐름을 완화하고 도시경관을 개선시키며 침수를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자연 여과하는 기능을 한다.



고창 상하농원 주차장 빗물정원

빗물정원

Rain Garden

빗물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원

빗물정원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하고

물이 순환하는 정원이다.

빗물정원에 대한 기록

미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자원이 고갈되면서 빗물 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도시에서 빗물이용에 대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70년대 가장 처음으로 시설을 설치한 곳은 캘리포니아였는데, 급격한 물 수요의 증대와 물 생산 비용 증가, 심한 가뭄 때문이었다.

1980년대에는 미국 메릴랜드Maryland 주에서는 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빗물정원이 빠르게 전파된다. 기존의 빗물정원이 과학적이거나 환경적인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과 달리 메릴랜드주에서는 환경이 아름다운 것과 기능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빗물정원을 정의하였다.



포틀랜드 SW 12th Avenue 빗물정원, ©City of Portland, Environmental Service, 2009

2006년 완공된 미국 포틀랜드에 위치한 마운트 타보 중학교Mount Tabor Middle School의 빗물 정원은 가장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빗물정원의 하나로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았던 학교 건물 앞 뜰 입구 약 270㎡ 규모의 아스팔트 주차장을 예술, 교육, 생태적인 빗물정원으로 변화시켰다. 타보중학교의 경우, 지표에 흐르는 빗물을 모으고, 정화하며, 지면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역의 낮은 하수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학교의 아스팔트 구역, 주차장, 옥상 등 약 2,780㎡의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수로를 통해서 빗물정원으로 흘러 모아진다.

독일은 가장 적극적으로 빗물을 이용하는 나라로 빗물이용량을 늘려 제한된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전하고 있다. 하노버의 크론스베르크 주거단지는 빗물을 최대한 단지 내에 침투 및 저류시키기 위한 자연에 가까운 배수체계를 갖춘 빗물정원을 곳곳에 조성하였다.



대전시청 빗물정원

빗물정원 철학

1. 빗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여과하기 위한 식재 계획을 해야 한다

빗물정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습지에 강한 육상식물과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습지식물을 혼합하여 식재해야 한다. 키가 작은 단일 초종 식물은 유출수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효과가 적으므로 효율적인 물 흡수와 여과 기능을 위해 다양한 식물종을 식재한다. 빗물은 토양입자와 식물 뿌리 사이를 이동하면서 여과된다.

2. 도심 내, 생물서식지가 될수 있도록 한다

빗물정원은 건조한 도심에서 습지역할을 하며, 동물들에게 물을 제공한다. 또한 겨울에 남겨진 다년생 식물의 줄기와 풀은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한다.

3. 아름다운 경관을 만든다

빗물정원은 도심의 불투성 포장을 제거한 곳 또는 부지의 활용도가 낮거나 지대가 주변보다 낮고 좁은 공간 어디든지 가능하다. 식물이 식재된 작은 정원은 회색빛 빌딩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다.

고창 상하농원 빗물정원

고창 상하농원은 흐르는 빗물을 모아 화장실 중수로 활용하고 있다. 주차장, 건물 지붕 아래에는 움푹파인 빗물정원을 만들고, 저지대 땅에는 2개의 저류지를 조성하여 빗물을 모은다. 빗물정원에는 물푸레나무, 만병초, 노랑일본조팝, 붓꽃, 골풀, 털부처꽃을 식재하여 비가오지 않을 때에도 화사한 경관을 만들고 있다.



주차장 빗물정원 전경



털부처꽃, 은쭉, 테누이시마나래새



부처꽃, 은쭉, 글라우카김의털 '블라우글루트'



건물하부 빗물정원 골풀과 테누이시마 나래새



털부처꽃, 은쭉, 테누이시마나래새



저류지

빗물정원 공간구상

1. 빗물이 유입되는 양 인지

빗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빗물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그 양을 계산해야 한다. 빗물 양에 비해 너무 작은 빗물 정원을 만든다면 빗물이 순식간에 흘러넘쳐서 오히려 지저분한 경관을 만든다.

2. 빗물이 모아졌다가 땅 속으로 스며들도록 조성

일반적으로 대상지의 빗물이 고여 있다 빠져나가는 시간은 48시간이 적당하다. 배수가 너무 좋거나 나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48시간 정도 물빠짐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토양이 얼마나 물을 잘 배수하는지 측정하는 방법은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직후에 정원토양을 조사하고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조사하여 물이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 측정해 보는 것이다. 흙을 물이 잘 빠지는 상태로 만들려면 진흙과 모래, 자갈을 섞어서 실험한 후 정원을 조성한다.

3. 저지대 입지

물은 자연상태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흐르게 되므로 낮은 지형, 습한 곳,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에 빗물정원을 조성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pyrl Uncapher, 2012, 『Creating Rain Gardens』, Timber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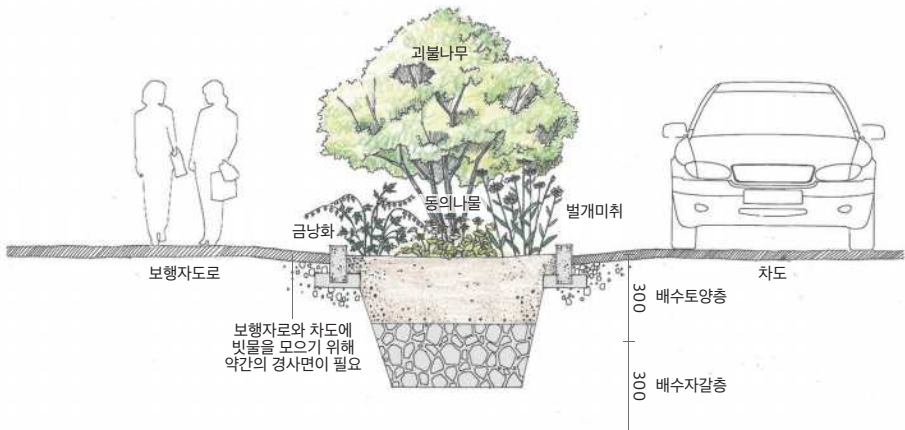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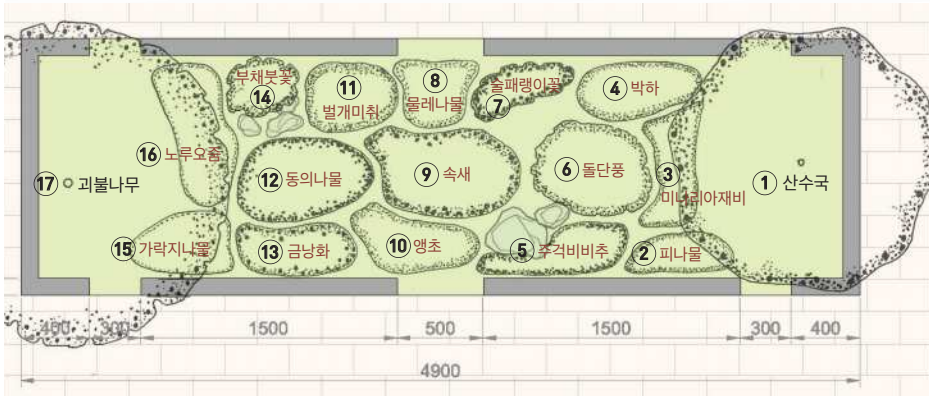
빗물정원의 식재수종

- ① 도시의 건조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종
- ② 빗물이 고였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수종
- ③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없는 종
- ④ 가로수 하부에 조성되는 경우는 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종

빗물정원 추천식물

구분	목 본	초 본
건조에 잘 견디는 습지 식물	갯버들, 버드나무, 왕버들, 호랑버들, 황철나무	갈대, 골풀, 도깨비사초, 들단풍, 동의나물, 물레나물, 미나리아재비, 박하, 부채붓꽃, 속새, 제비붓꽃, 좁쌀풀, 털부처꽃, 피나무
습한 곳에서 잘 견디는 육상 식물	개회나무, 괴불나무, 고광나무, 고추나무, 꼬리조팝나무, 국수나무, 나래회나무, 누리장나무, 당단풍나무, 덜꿩나무, 딱총나무, 말발도리, 병꽃나무, 백당나무, 병아리꽃나무, 산뽕나무, 산사나무, 산수국, 산앵도나무, 산이스라지, 수수꽃다리, 오갈피나무, 작살나무, 조팝나무, 쥐똥나무, 진달래, 철쭉, 화살나무, 회잎나무	감국, 구절초, 금낭화, 금불초, 꽃향유, 꿀풀, 노루오줌, 돌단풍, 맥문동, 들나물, 돌마타리, 둥굴레, 땅채송화, 모시대, 바위구절초, 박하, 배초향, 백선, 뼈꼭재, 병조희풀, 산비장이, 샷가나물, 수크령, 솔패랭이꽃, 쑥부쟁이, 애기나리, 양지꽃, 역새, 엉겅퀴, 용담, 우산나물, 은방울꽃, 일월비비추, 주걱비비추, 층꽃나무, 패랭이꽃

빗물정원 모델정원





① 산수국



② 피나무



③ 미나리아재비



④ 뽕잎재



⑤ 주걱비비추



⑥ 돌단풍



⑦ 술래랭이꽃



⑧ 물레나물



⑨ 속새



⑩ 앵초



⑪ 벌개미취



⑫ 동의나물



⑬ 금낭화



⑭ 부채붓꽃



⑮ 노루오줌



⑯ 괴불나무



⑯ 가락지나물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Rupr.
Korean mock orange

낙엽활엽관목 ↑2-4m ❁ 6-7월, 흰색

흰꽃이 무리지어 피어 밤을 밝힐 정도로 하여 고광나무라 이름 붙여짐. 은은한 향기가 매우 좋고 정원의 큰 나무 아래 심거나 모아심으면 풍성한 느낌을 줌. 덩굴 형태로 자라므로 산울타리로도 이용이 가능함

자생지 전국의 산기슭이나 골짜기

식재 토양의 물빠짐이 좋고 주변습도가 높으며 유기질이 풍부한 곳

관리 양수이지만 다소 그늘진 곳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며 건조한 곳은 좋아하지 않음

증식 7-8월에 삽목하거나, 9월-10월경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



0610 설악산



0605광릉



0520 왕고광나무



0518 얇은잎고광나무, 국립수목원

괴불나무

Lonicera maackii (Rupr.) Maxim.
Amur honeysuckle

낙엽활엽관목 ↑5m * 5-6월, 흰색

잎 겨드랑이에서 피는 향기나는 흰꽃은 점차 노란색으로 바뀌며 벌과 나비의 좋은 밀원식물이 됨. 여름부터 붉게 달리는 열매는 광채를 내며 겨울까지 달려있어 관상가치가 높음.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하고 맹아력도 좋아 도심에서도 생육이 양호함

자생지 전국의 산기슭 및 골짜기

식 재 양지 또는 반그늘의 배수가 잘되는 곳 양지에서 수형이 좋고 개화결실이 잘됨

관 리 건조한 곳은 보통으로 관수, 이식 용이

증 식 9-10월에 익은 종자를 노천 매장하여 이듬해 봄에 파종



금낭화 *Dicentra spectabilis* (L.) Lem.

Bleeding heart

여러해살이풀 ↑40-50cm ❁ 5-6월, 연한 홍색

꽃이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를 닮았다고 금낭화라 이름 붙였고 순우리말로 ‘머느리주머니꽃’으로 불리기도 함. 꽃이 흰색인 흰금낭화도 있음

자생지 중부지방 산지

식 재 반그늘의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되는 곳

관 리 반음지 식물이므로 8월 한여름에는 해가림을 해주어야 함 보통으로 관수하며 약간 건조해도 잘 자라지만 잎이 타들어가면 바로 관수 해야함

증 식 6-7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늦가을에 포기나누기



0512 국립수목원



0512 국립수목원



0512 국립수목원

꼬리조팝나무

Spiraea salicifolia L.
Willow-leaf spirea

낙엽활엽관목 1-1.5m ❀ 6-8월, 분홍색

작은 꽃들이 모인 원추꽃차례의 모습이 동물의 꼬리와 같아하여 꼬리조팝나무라 이름 붙임. 조팝나무속 식물 중에 꽃이 유일하게 분홍색이며 아름답고 향기로워 밀원식물로써 이용됨

자생지 전국의 산골짜기의 습지

식 재 양지의 사질양토

관 리 일정하게 수분을 유지해야 하며, 전정으로 수형조절이 자유로움

증 식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온실에서 파종. 3-4월, 6-7월, 9월경에 가지 삽목



범의귀과 노루오줌속 Saxifragaceae *Astilbe*

노루오줌

Astilbe rubra Hook.f. & Thmsn
False goat's beard

여러해살이풀 130-70cm ❁ 7-8월, 연분홍색

노루가 자주 오는 물가에서 많이 피어있어 노루오줌이라는 이름 붙여짐. 늦여름에 연분홍색으로 군식하면 그 모습이 장관임. 어린순은 식용하며 뿌리를 포함한 전초와 꽃은 약용으로 쓰임

자생지 전국 산과 들의 물가나 습지

식재 물빠짐이 좋은 부식질의 사질양토가 좋으며 보통으로 관수

관리 천근성 뿌리를 가지므로 적당히 거름을 주어 강하게 키우며 건조하지 않게 관리

증식 9-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



0702 강원 함백산



0724 국립수목원

돌단풍 *Mukdenia rossii* (Oliv.) Koidz. Maple-leaf mukdenia

여러해살이풀 130cm ❀ 5월, 흰색

잎이 단풍잎 모양을 닮았고, 바위틈에서 자란다고 돌단풍이라 이름 붙였으며, 가을에 단풍이 든 모습이 단풍잎과 비슷함. 잎이 나올때 꽃줄기에 연분홍빛을 띠고 함께 올라오는 꽃봉오리는 매력적임. 내습성과 내건성이 매우 강하여 어디든지 식재할 수 있는 소재이며 특히 연못가 돌틈에 잘 어울림

자생지 전국의 깊은 산, 개울 주변 바위틈

식재 반그늘의 배수가 잘되는 곳

관리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함

증식 9월에 포기나누기



0410 강원 영월군 동강



0514 국립수목원

미나리아재비과 동의나물속 Ranunculaceae *Caltha*

동의나물

Caltha palustris L.
Marsh marigold

여러해살이풀 160cm ❀ 4-5월, 노란색

오무린 잎의 모양이 물둥이를 닮아서 ‘동의나물’이라고 불리지만 독이 있으므로 먹으면 안됨. 노란색의 꽃이 아름다워 정원의 연못 주변에 심으면 봄에 화사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음

자생지 산지의 습지나 늪지, 개울가

식재 반그늘의 유기질이 풍부하고 습한 곳

관리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함

증식 6월에 종자를 채취하여 바로 파종함. 가을철 포기나누기

동의나물



톱니가 둔하며 잎자루에 줄무늬가 없음

곰취



잎의 가장자리가 뾰족하고 잎자루에 두줄의 적갈색 세로 줄무늬가 있음



말발도리 *Deutzia parviflora* Bunge Mongolian deutzia

낙엽활엽관목 12m ❀ 5-6월, 흰색

열매의 모양이 말발굽의 편자 모양이어서 말발도리로 이름 붙여짐. 맹아력이 좋아 생울타리나 차폐식재로 적합하고 절사지 녹화용으로도 좋음

자생지 산지의 계곡부 바위틈

식재 양지의 잘들며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양

관리 내건성이 커서 어디에서나 잘 자라지만 습지에서도 볼 수 있음

증식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파종



.0518 국립수목원



.0516 국립수목원



꼬리말발도리 0518 국립수목원



매화말발도리 0427 국립수목원

물레나물과 물레나물속 Hypericaceae *Hypericum*

물레나물 *Hypericum ascyron* L.

Great St. John's-wort

여러해살이풀 150-100cm ❀ 6-8월, 노란색

꽃잎 5장이 마치 물결치는 물레바퀴처럼 한 쪽 방향으로 틀어진 모양에서 물레나물이라고 이름 붙임. 키가 큰 노란색의 꽃은 관상가치가 높으며 개화한 후 금방 낙화하지만 꽃망울이 많이 맺히며 지속적으로 개화가 이루어져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음

자생지 전국의 양지바른 풀밭이나 계곡과 같이 습기가 있는 땅

식재 강한 햇빛에서도 잘 자람. 비탈면이나 척박한 곳에서도 생육 가능

관리 아래쪽 잎은 2-3장 남기고 잘라주면 다시 결순이 나와 가지를 치므로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음

증식 9월경에 채취한 종자를 바로 파종



0703 국립수목원



0627 국립수목원



0627 국립수목원

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japonicus* Thunb. East Asian buttercup

여러해살이풀 150cm ❀ 4-6월, 노란색

미나리와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라하여 미나리아재비라 이름 붙여짐. 광택이 있는 노란색의 꽃이 아름다워 연못이나 수변가에 군락으로 식재하면 화사함. 식물전체에 독성이 있으나 말라리아, 천식, 편두통 등의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며, 약으로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야 함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습기가 있는 양지

식재 양지의 통풍이 잘되는 곳

관리 토양을 가리지 유기질이 풍부한 곳에 기르는 것이 좋음

증식 9월경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봄, 가을에 포기나누기



박하

Mentha arvensis var. *piperascens* Malinv. ex Holmes
Bakha

여러해살이풀 130-60cm ❀ 7-10월, 연한 자주색

잎의 맛이 시원하고 독특하여 여러 가지 향료나 음식에 향을 첨가하는데 사용됨. 청량한 향의 어린 잎은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샐러드로 먹거나 과자, 시럽, 껌, 젤리로 만들어서 먹음

자생지 저지대의 습지, 습기 있는 들판

식 재 양지바른 곳의 흙이 깊고 비옥한 곳(배수가 잘 되어야 발육이 양호해지고 생육이 좋아짐)

관 리 땅속줄기가 너무 뻗어 조밀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자주 솎아주어 관리해야 함, 잎이 많기 때문에 물은 1-2일 간격으로 줘야함

증 식 11월에 채취한 종자는 저온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가을에 포기 나누기



1014 국립수목원



0918 경북 만경산

벌개미취 *Aster koraiensis* Nakai

Montane aster

여러해살이풀 ↑1m ❁ 6-10월, 연보라색

개화기간이 길어 군락으로 식재하면 훌륭한 경관을 선사함. 벌개미취는 뿌리가 튼튼하고 성장이 왕성하여 노출된 절개사면, 척박지 등에 식재하면 토양 고정 능력이 뛰어나 녹화용으로 많이 쓰임

자생지 산 속 계곡주변이나 들판

식재 양지의 배수가 잘되고 유기질이 풍부한 곳

관리 추위와 더위와 강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음

증식 10월경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늦봄 포기나누기



붓꽃

Iris sanguinea Donn ex Horn
Blood Iris

여러해살이풀 ↑30-60cm ✿ 5-6월, 보라색

시원하게 뻗은 잎사귀 사이로 길게 올라온 보랏빛 꽃은 청초한 느낌으로 시골집 한옥 앞 마당에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잘 자라고 적응력이 뛰어나 도로변, 도심지 화단 식재용으로 적합함

자생지 전국 산이나 들의 약간 습한 풀밭, 건조한 곳

식재 양지 혹은 반그늘의 석회암질의 모래를 섞은 흙

관리 생육 중 땅속줄기가 땅위로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1년에 1-2회 증토해 줌, 물을 지나치게 주거나 배수가 안되면 뿌리가 썩으므로 주의

증식 9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꽃이 진 직후 포기나누기



0527 국립수목원



0512 국립수목원



0519 국립수목원

산수국 *Hydrangea serrata* f. *acuminata* (Siebold & Zucc.) E.H. Wilson

Mountain hydrangea

낙엽활엽관목 ↓1m ❁ 7-8월, 연보라색

여름에 백자색으로 피는 꽃은 청초한 느낌을 줌. 여름철에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므로 교목의 하부에 군식하면 자생지에서 느껴지는 야생의 멋을 연출할 수 있음

자생지 산골짜기나 전석지

식재 그늘의 비옥하고 습기가 충분한 곳

관리 강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토양의 보습성이 좋도록 관리

증식 2-3월이나 7월경에 꺾꽂이를 하거나, 9-10월경에 익은 종자를 파종함



속새 *Equisetum hyemale* L. Scouringrush horsetail

여러해살이풀. ↑30-70cm ❁ 6-8월, 홍자색

숲 속에 군락으로 자라는 모습은 작은 대나무를 연상시키는 듯한 청량한 느낌을 줌. 연못, 계곡부 등 습한 곳에 식재하며 상록성 식물로 실내 연못가 등에 식재해도 좋음. 속새는 고생대 지구를 뒤덮었던 식물이며, 원줄기에 규산염이 축적되어있어 딱딱하기 때문에 사포처럼 나무를 갈거나 가구나 쇠그릇을 닦아 표면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음

- 자생지 산지의 나무 밑, 축축한 반그늘
- 식재 반그늘의 적당한 습기가 유지되는 곳
- 관리 건조지의 강한 햇볕에서는 고사함
- 증식 포자번식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0320 안도수목원

수수꽃다리 *Syringa oblata* var. *dilatata* (Nakai) Rehder

Korean early lilac

낙엽활엽관목 12-3m ❁ 4-5월, 연한 자주색

초록의 잎사이에서 피는 연한 자주색 꽃은 향기가 진해 향수의 원료로도 이용됨. 독립수로 포인트 식재해도 좋고 모아심거나 생울타리로 활용해도 좋음. 토질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 심어도 잘 자람. 내한성, 내충해성, 내공해성이 강함

자생지 석회암지대의 산기슭 양지

식재 양지의 물 빠짐이 좋은 곳, 근락 식재 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재

관리 겨울철 바람으로 인한 건조로 꽃눈이 고사할 수 있으므로 겨울철 방풍 필요

증식 9-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



앵초 *Primula sieboldii* E.Morren

East Asian primrose

여러해살이풀 110-40cm ❁ 4-5월, 홍자색

분홍색꽃이 아름다워 외국에서는 품종개량이 많이 이루어질 만큼 정원용으로 인기있는 수종임. 꽃이 필 무렵 채취하여 잘 말려서 가루로 복용하면 천식, 기관지염, 종기 등에 효능이 있음

자생지 전국 산과 들의 습지

식재 반그늘의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곳

관리 물을 충분히 주어 알맞은 습도를 유지함

증식 7월경에 종자를 채취하여 바로 파종하거나 3월에 포기나누기



주걱비비추 *Hosta clausa* Nakai

Closed-flower hosta

여러해살이풀 130-40cm ❀ 7-8월, 연한 자주색

잎이 주걱모양이라하여 주걱비비추라고 이름붙여짐. 잎이 넓고 아름다워 정원의 화단이나 암석원의 바위틈에 심으면 여름철에는 아름다운 연한 자주색꽃을 감상할 수 있음. 어린순은 나물로 먹음

자생지 산속 골짜기의 냇가

식 재 양지의 습윤하되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토양

관 리 토양은 가리지 않고 보통으로 관수관리 함

증 식 9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가을철 포기나누기



피나물

Hylomecon vernalis Maxim.
Forest poppy

여러해살이풀 130cm ❀ 4-5월, 노란색

줄기를 자르면 붉은색의 액이 나오는데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는것과 유사하다하여 피나물이라고 이름 붙여짐. 크고 둥근 4장의 노란색 꽃잎은 밝고 화사하며 근락으로 식재하면 장관임. 뿌리를 약재로 쓰며 타박상, 종기 습진에 생뿌리를 찢어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있음

자생지 경기도 이북 습한 산지

식재 반그늘의 유기질이 많고 배수가 잘되는 곳

관리 추위에는 강하지만 건조하면 발육상태가 현저히 나빠짐

증식 6-7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름 봄 포기나누기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Burning bush spindletree

낙엽활엽관목 13m * 5월, 황록색

줄기가 화살의 날개처럼 생겼다하여 화살나무라고 이름 붙여짐. 붉게 물드는 단풍과 꽃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주홍색의 루비같은 열매는 가을 정원소재로 좋음. 잔가지에 나는 날개를 약재로 쓰며 동맥경화, 월경불순, 폐경에 효능이 있으며 어린잎은 나물로 먹음

자생지 전국 산지

식 재 양지의 토심이 깊고 보수력 있는 비옥한 토양

관 리 이식이 용이하며 전정 후 맹아가 잘나와 수형을 만들기 좋음

증 식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과육을 제거하고 저온저장하였다가 파종



1015 국립수목원



1015 국립수목원



0426 국립수목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Beirut는 이스라엘과의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매연과 자동차 스모그로 가득 찬 암울한 도시였다. 영국의 건축회사인 인비저블 스튜디오Invisible Studio는 "wonder forest: 도심 건물 옥상 곳곳에 나무를 심어 하늘에서 보면 마치 숲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간단하면서 강력한 제안을 했다. 전쟁을 겪은 도시, 스모그로 가득찬 공업도시에서 살아숨쉬는 숲처럼 보이는 도시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계획안은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상상처럼 전세계 도시의 옥상이 녹색으로 바뀌는 즐거운 생각을 해본다.



Invisible Studio의 "Wonder Forest" 계획안

옥상정원

Roof Garden

땅을 벗어난 공중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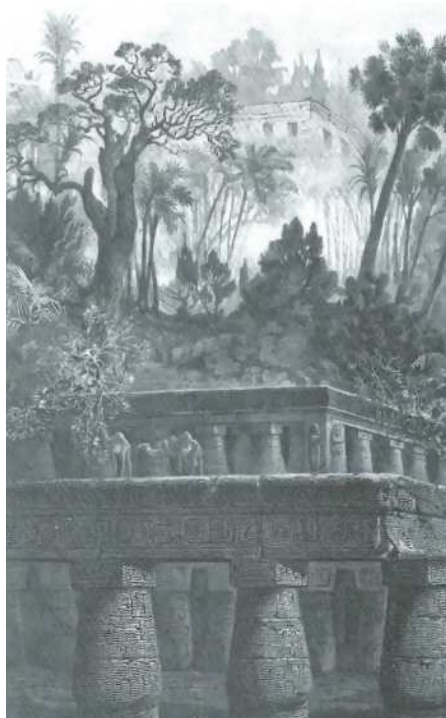
더 이상 넓은 정원을 가질 수 없게 된 현대 도시민들에게
옥상정원은 가까이서 푸르름을 향유할 수 있는 대안공간이다.

옥상정원에 대한 기록

자연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인류의 바람과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멀리 보고자 하는 바람은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옥상정원을 만들고 있다. 옥상정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외국의 향료용 나무를 옮겨오는 이집트 핫셉수트 여왕의 신전(BC 1400년경) 벽화인데, 아마도 신전의 테라스에 심어졌을 것이라 유추한다.

고대 건축 재료였던 단단한 돌로 한층 한층 쌓아올려 견고하게 만든 거대한 테라스형 신전인 지구라트에 바빌로니아 왕인 네브카드네자르 2세는 메디아에서 시집 온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거대한 공중정원 hanging garden을 만든다(BC 500년경). 지구라트의 연속된 계단식 테라스 단에 성토하여 나무와 꽃을 식재했던 공중정원은 멀리서 보면 마치 푸르른 작은 산과 같았다고 한다. 산이 많고 과일과 꽃이 풍부했던 메디아를 사막과 같은 기후를 가진 바빌론에 구현한 이상이었다. 정원 아래에 위치한 방의 창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현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한다.

당시의 기술로 비가 거의 오지 않았던 사막같은 기후의 바빌론에서 식물을 어



공중정원은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있다는 의미로 총높이 105m에 달하는(별당 30층 높이) 거대한 옥상정원을 말한다. 19세기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 속의 낙타로 공중정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땡게 푸르게 유지했을까? 그 넓은 정원에 물은 어떻게 쫓으며, 정원 아래에 위치한 방에 물이 새진 않았을까?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물은 수력기계나 펌프로 운반하여 꼭대기 물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했을 것이라고 하고, 방에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방 위에 갈대를 펴고, 그 위에 납으로 만든 두꺼운 판을 놓았다고 한다. 당시의 옥상정원에도 방수와 배수를 위한 기술이 고안되었던 것이다.

이후 옥상정원은 로마시대 귀족들의 테라스 정원, 중세 기도실 위에 지어진 중정,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의 테라스 정원으로 이어졌다. 르네상스 시대 테라스 정원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실용적이고 진귀한 식물을 식재하여 부를 과시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바로코, 로코코 시대에 이르러 발코니는 레크레이션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귀족의 축제 장소이자 일반 시민도 바깥 계단을 이용해 옥상정원을 감상하였다고 한다.

옥상정원이 특권계층의 사치품에서 일반 시민의 것으로 확대된 것은 17-18세기로, 공공주택의 지붕이나 베란다 등에 조성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재료(시멘트와 철근콘크리트)의 발달은 다양한 도시 건물에 옥상정원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도록 도왔다. 뉴욕 브로드웨이에는 옥상정원극장Theater Roof Garden이 생겨 도시경관을 구경하며 공연도 관람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유행하였고, 상류층 주택과 호텔, 백화점으로 그 유행이 이어지기도 했다. 1938년 영국 런던의 데리 톰스Derry&Toms백화점에서는 옥상에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을 만들어 손님들을 옥상공간으로 끌어들이고, 그곳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영상의 전략으로 옥상정원을 만들기도 했다. 이후 옥상은 상업건물, 공공건물, 광장, 공공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자유로운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옥상정원 철학

“도시생태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의 보금자리.”

옥상정원은 사람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다

옥상은 내 곁에 자연을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든 아지트 같은 공간이다.

자연을 향유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자

석양지는 도시 풍경을 감상하는 장소, 그늘진 휴게공간, 도시 속 유기농 텃밭정원 등

옥상정원은 새와 곤충 등 생물의 서식공간이기도 하다

새와 벌, 곤충이 도시에 우연히 들어왔다가 먹이를 찾고 쉴 수 있는 몇 안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새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웅덩이, 새와 벌이 좋아하는 열매와 꽃이 있는 식물, 새집과 덩굴 등

옥상정원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옥상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식물과 시설물로 계획해야 한다

옥상정원은 자연지반이 아님을 다시 인지하고, 계획에 앞서 건물의 안전성이 중요하다.

안전성을 얻기 위해 건물의 구조적 성능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정원 유형(지관리형, 반집중관리형, 집중관리형)을 구분하여 바람과 햇볕에 견딜 수 있는 식물과 시설물로 계획한다

건물 구조적 안전성(하중, 배수, 방수 등) 확인, 강한 햇볕과 바람에 견디는 요소들로 계획

옥상정원 계획 전 체크 사항

하중에 따른 옥상 유형

건물이 허용하는 하중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검토(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뢰) 한 후 이에 따라 적합한 옥상정원의 유형(저관리형, 반집중관리형, 집중관리형)을 결정하고, 계획 가능한 범위(토양두께, 시설물 정도 등)를 인지한다.

일반적으로 식생 토심에 따른 식물선정을 기준으로 경량형, 혼합형, 중량형으로 나누지만 국제옥상녹화협회(IGPA)에서는 관리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저관리형, 반집중관리형, 집중관리형으로 구분을 했다.

구분	저관리형 Extensive Green Roof	반집중관리형 semi-Intensive Green Roof	집중관리형 Intensive Green Roof
관리도	낮음	정기	높음
관개	없음	정기	항상
식생	경량토양	경량토양	경량 및 중량 토양 사용
토심	6-20cm	6-20cm	15-40cm
하중	6-150kg/m ²	120-200kg/m ²	180-500kg/m ²
조성비	저가	보통	고가
적용	생태 보호층	옥상녹화디자인	공원식 정원
건물	기존 건물	기존 건물	하중 문제없는 건물

옥상정원 유형, 국제옥상녹화협회(IGPA)

배수 및 방수 검토

구조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물 혹은 방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옥상의 배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수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한 후, 바닥에 물을 한번 뿌려보고 물이 배수구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옥상 바닥 혹은 지붕면의 기울기가 배수에 적절(1.5-2.0% 적당)한지 확인한 후 옥상녹화시스템을 구성한다.

저관리형 옥상정원 사례

남해에 가면 20여명의 원예인들이 정원을 가꾸며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 "원예예술촌 (HOUSE n GARDEN)"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다양한 크기의 집과 정원이 나라별 이미지를 드러내는 큰 주제 아래 주인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되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마을의 정원 중 "풀꽃지붕"은 저관리형 옥상정원의 개성있는 사례이다. 바닥에서부터 꽃이 심겨져 지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름 붙인 그대로의 풀꽃지붕은 '저관리형 옥상녹화=돌나물과 세덤 속 식물 식재'라는 획일화된 관점을 뛰어넘어 지상에서의 정원이 하늘로 이어지는 주인의 정원에 대한 이상향이 개성있게 표현되었다. 정원 주인은 본인의 정원을 이렇게 설명했다:

프랑스 정원의 아름다움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뜰이기에 지붕과 계단에도 꽃을 심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마음에 꽃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비와 벌들이 찾아들고 달빛 별빛이 머물다 가는 풀꽃지붕 아래 사는 어린 아이 같은 기쁨을 느껴보세요.



저관리형 옥상녹화: 풀꽃지붕_원예예술촌

집중관리형 옥상정원 사례

한겨레신문사 옥상정원은 가을 들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집중관리형 옥상정원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는 없지만 한겨레신문 회원이면 사전 신청 후 둘러볼 수 있다. 산국, 감국, 억새가 풍성하게 식재되어 야생의 정취가 느껴지며, 식재 수종 대부분이 야생화(구절초, 두메부추, 배초향, 별개미취, 범부채, 층꽃나무, 혜국, 으아리 등)로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형 옥상정원 _한겨레신문사 옥상



층꽃나무



억새와 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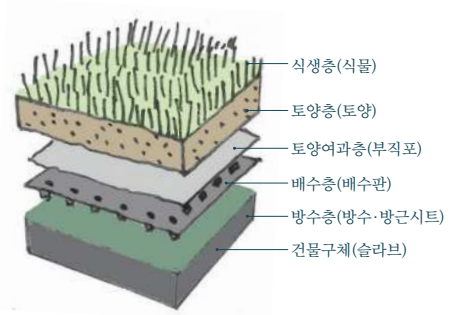
산국



으아리

옥상정원 시스템의 구성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건물 바닥 위로 방수·방근층, 배수층, 여과층, 토양층이 갖춰져야 한다.



1. 방수·방근층

- ▶ 수분과 식물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는 것을 차단함
- ▶ 방수재료 및 공법
 - 칠하고 붙이는 방수공법 : 아스팔트 방수
 - 칠하는 방수공법 : 우레탄 고무계 도막 방수, FRP 도막
 - 붙이는 방수공법 : 염화비닐계 시트 방수, 고무계 시트 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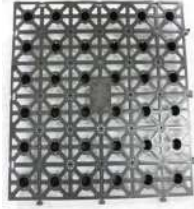
우레탄 도막방수 염화비닐계 시트방수

2. 배수층

- ▶ 침수로 인해 식물이 죽는 것을 예방함
- ▶ 배수관: 건물 슬라브와 흙이 직접 만나지 않고 공기와 물을 통하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플라스틱 판



▶ 규격: 50cmx50cmx높이3cm
- 수량: 4개/m2



▶ 흠이 있는 것으로 추천
▶ 흠이 없으면 배수관을 테이프로 붙여야 함



시공시 측면으로 배수관 1/2장 추가

3. 토양여과층

- ▶ 관수나 빗물로 씻겨 내리는 세립토가 배수층 하부로 침투하여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여과하는 기능
- ▶ 부직포(세립 토양은 거르고 투수 가능)를 일반적으로 사용



부직포 겹치게 시공 측면으로도 10cm 정도 올라오도록 시공

4. 식재지반층

- ▶ 식재를 위한 흙이 하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인공토(펠라이트)와 혼합 권장_
- 부엽토 5 : 인공토 5

- ▶ 최소한의 식재 토심(배수층 두께 제외)

- * 초화류: 15cm 이상(인공토양 10cm이상)
- * 소관목: 30cm 이상(인공토양 20cm이상)
- * 대관목: 45cm 이상(인공토양 30cm이상)
- * 교 목: 70cm 이상(인공토양 60cm이상)

종류	단위용적중량(kg/㎡)		
	건조상태	보통상태	습윤상태
자연토양	점토	1,200~1,800	1,800~1,900
	보통 흙	1,400~1,700	1,500~1,800
	모래	1,700~1,800	1,800~2,000
	자갈	1,700~1,800	1,800~1,900
	버미큘라이트	-	-
	펠라이트(2.5mm 이하)	-	-
경량토양	피트무스	-	-
	화산회토	1,500	1,650
	화산모래	-	1,150
	석탄재	1,000	1,450

자료: 한국조경학회(2013), 「조경설계기준」 pp.438-439

5. 표토의 피복(덮침)

- ▶ 토양수분 유지, 토양침식 및 잡초 발생 방지, 토양경화 완화, 태양 복사열에 의한 급속한 온도 상승 완화, 토양 비산을 방지하기 위함
- ▶ 재료: 왕마사, 바크(나무껍질), 화산석, 분쇄목, 잣나무 열매 껍질 등



왕마사

바크

화산석(붉은색, 검은색)

옥상정원 공간구상

1. 공간구조_차폐와 전망 &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옥상정원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으로 풍경을 전망할 수 있는 곳이다. 달리 말하면 사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웃의 시선을 받기도 쉬운 공간이다. 시원하게 전망하고, 시선을 가릴 곳을 고려하여 식물과 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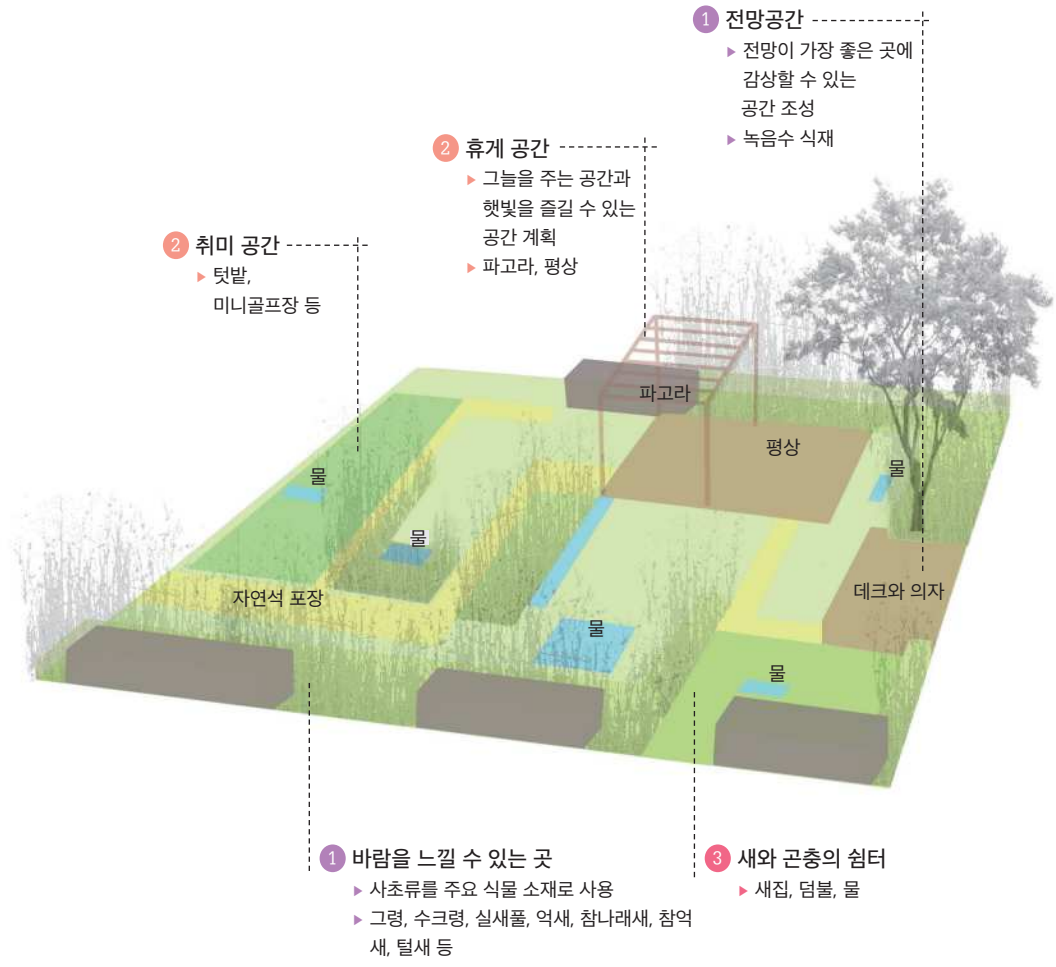
옥상은 바람과 햇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바람에 날리는 그래스류, 미니풍력기, 바람개비 등으로 바람을 눈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해보자. 옥상은 바람이 세므로 높이가 있는 식물을 지양하고, 목본류 식재시 지주목이 필요하다.

2. 나의 쉼터_취미공간, 휴게공간

옥상은 일상공간에서 나의 아지트이다. 나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고 필요한 시설을 계획한다. 야외에서 달콤한 낮잠을 원한다면 그늘이 필수적일 것이고, 먹거리를 기르고 싶으면 흙을 담은 곳이 필요할 것이다. 나의 취미는 무엇인가?

3. 새와 곤충의 쉼터

우리는 자연 생태계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새와 잠자리, 벌 등과 같은 곤충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생물서식처를 곳곳에 마련한다. 그들은 물이 필요하고, 쉴 수 있는 안락한 집(덤불,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내 정원은 훨씬 풍부해 질 것이다.



옥상정원 모델정원







㉓ 산꼬리풀



㉑ 매발톱



㉒ 오이풀



㉔ 참나리



㉖ 붓꽃



㉕ 층꽃나무



㉗ 꿀풀



㉘ 갯쭈부쟁이



㉙ 큰꿍의비름



㉚ 두메부추



㉛ 노루오줌



㉜ 털부처꽃



㉝ 벌등골나물



㉑ 패랭이꽃



㉒ 땅채송화



㉓ 꽃향유



㉔ 주걱비비추



㉕ 기린초



㉖ 바위솔



㉗ 양지꽃



㉘ 신쭈바귀



㉙ 글취



㉚ 참취



㉛ 갯기릅나무



㉜ 참나무

기린초 *Sedum kamschaticum* Fisch. & Mey. Orange stonecrop

여러해살이풀 ↑5-30cm ❁ 6-7월, 노란색

햇빛이 강한 바위틈이나 암석원 등에 식재하면 키가 작게 자라고 노란 꽃 색깔이 더 선명해짐. 내한성, 내서성, 내습성, 내건성이 강해 척박한 곳, 건조한 곳의 지피식물로 적합함

자생지 전국의 산지 바위 곁

식재 해가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모래가 많이 섞인 흙, 처음에는 잎이 작지만 여름에는 커지기 때문에 공간을 잘 배치하는 것이 좋음

관리 물은 자주 주지 않아도 되며 자연강우에 의존

증식 8-9월경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 10월경 포기나누기, 5-6월경 줄기 삽목



0520 정선군 정선읍



0602 국립수목원

꿀풀

Prunella vulgaris subsp. *asiatica* (Nakai) H.Hara
Lilac self-heal

여러해살이풀 ↑25-30cm ❁ 5-7월, 적자색

정원 가장자리나 밭허도 크게 상관없는 곳에 심으면 지천으로 퍼지고, 꽃이 마치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경관을 연출함. 내음성과 내건성이 강하므로 다른 식물들의 적응성이 떨어지는 다소 척박하거나 경사진 곳에 식재 가능

자생지 전국의 들판이나 길 가장자리, 산기슭의 양지바른 풀밭

식재 반그늘 또는 양지의 배수가 잘 되는 곳(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곳)

관리 관수는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다소 적게 함

증식 7-8월경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포기나누기



돌나물

Sedum sarmentosum Bunge
Stringy stonecrop

여러해살이풀 ↑5-30cm ❀ 5-6월, 노란색

양지바른 곳에 군락으로 식재하면 노란색 꽃이 용단처럼 피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음.
강한 햇볕, 건조하거나 습한 환경 등 어느 환경에나 적응성이 강해 인공지반 식재용으로 널리 활용됨

자생지 전국의 양지바른 풀밭 또는 바위틈

식재 해가 잘 들고 보습과 통기가 적당하며 배수가 좋은 곳

관리 질소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웃자라서 썩음병 증세를 보임

증식 8월에 결실된 종자를 바로 파종, 4월부터 8월까지 포기나누기



0512 국립수목원



0602 국립수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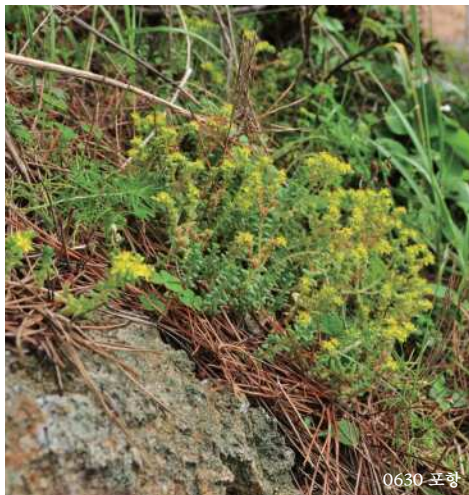
땅채송화

Sedum oryzifolium Makino
Coastal mosslike stonecrop

여러해살이풀 ↑5-15cm ❀ 5-7월, 노란색

암석원 또는 사면 녹화용 소재로 많이 활용하며 척박한 땅에 서도 잘 자람. 다른 세덤류와 혼식하거나 초화류 밑에 심으면 수분 증발을 막는 효과도 있음

- 자생지 햇볕이 잘 들고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사면 또는 바위 위에 약간의 토양이 있는 곳
- 식재 해가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곳
- 관리 여름철의 고온 다습한 조건에 약하므로 지하부의 배수와 통기에 주의해야함, 과도한 시비는 지하부를 썩게 함
- 증식 개화기를 제외한 시기에 줄기를 잘라 삽목하면 발근이 잘 됨



마타리

Patrinia scabiosaefolia Fisch. ex Trevir.
Golden lace

여러해살이풀 ↑60-150cm ❁ 7-8월, 노란색

햇볕이 잘 드는 산지 초원에 밝은 노란색으로 높이 서있는 마타리는 야성적이며 화려하여 시선을 끌며, 키가 커서 정원 뒤편에 심어 시선을 유도할 수 있음, 방향성 식물로 심한 고린내를 풍기는데, 특히 기온이 높을수록 냄새가 더 강하므로 정원 소재로 활용시 장소에 유의해야 함

자생지 전국의 양지바른 산과 들

식 재 해가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다소 건조하고 유기질이 많은 곳

관 리 식물체가 강하고 건조에도 강하여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됨

증 식 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이른 봄 포기나누기



0803 국립수목원



0820 국립수목원

매발톱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Oriental columbine

여러해살이풀 ↑30-130cm ❁ 5-7월, 노란빛이 도는 자주색

늦봄 혹은 여름에 피는 꽃은 줄기 끝에 고개를 숙인 채 달리는 독특한 생김새로, 낚아챌 듯 오므리고 있는 매의 발톱을 닮아 이름 붙여짐. 개울가와 같이 습기가 있는 정원에 심으면 잘 어우러지며, 식물체가 매우 튼튼하여 관리도 쉽고 잘 자라며 어떤 정원에나 잘 어울리는 소재임

자생지 전국의 햇볕이 잘 드는 계곡이나 산지

식 재 해가 잘 들고 배수가 좋은 곳 (강한 직사광선 하에서는 잎이 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

관 리 어느 정도의 습기는 필요하나 지하부의 과습은 식물체의 뿌리를 썩게하므로 관리에 주의

증 식 8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면 2주내에 발아하고 이듬해 꽃이 필



0616 국립수목원



0609 국립수목원



0512 국립수목원

물싸리

Potentilla fruticosa L.
Stiff shrubby cinquefoil

낙엽활엽관목 ↑30-150cm ❁ 6-8월, 노란색

낮은 키에 옆으로 뻗은 줄기마다 노란 꽃을 달고 있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음. 개화기간이 길고 회록색의 잔털이 있는 잎과 가지가 안정감을 주므로 바위와 함께 연못 가장자리에 식재하면 시야도 가리지 않고 풍성한 느낌을 줌

자생지 고산의 습지나 바위 틈

- 식재 늘 습윤하되 배수가 잘 되며 유기질이 풍부한 곳(물이 부족하면 금세 부분적으로 낙엽이 질 만큼 건조에 약함), 여름철의 더위에 약하므로 가능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식재
- 관리 여름에 이식하거나 건조하게 관리하면 고사할 수 있으므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
- 증식 종자가 결실하지 않으므로 봄-여름에 가지를 잘라 삽목



바위솔 *Orostachys japonica* (Maxim.) A. Berger

Rock pine

여러해살이풀 ↑30cm ❀ 9-10월, 흰색

햇빛이 잘 드는 암벽에 붙어 자라므로 암석정원에 잘 어울리며 건조지의 녹화용 지피식물로도 활용할 수 있음. 형태가 독특하여 분재로도 많이 활용함

자생지 산지의 바위, 오래된 기와장 위, 돌담 또는 바위 등

식재 양지 또는 반그늘의 배수가 좋은 곳

관리 수분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으며, 꽃을 피우면 고사해 버리지만 꽃대를 잘라서 여러해살이풀로 키울 수 있음

증식 이듬해 봄에 고사한 모식물 주변에 많은 자식물체가 자연 증식하므로 적당히 분주함



1020 국립수목원



0627 국립수목원

산꼬리풀

Veronica rotunda var. *subintegra* (Nakai) T.Yamaz.
Mountain spike speedwell

여러해살이풀 140-80cm * 6-8월, 연보라색 * 한국 특산식물(전국 분포)

꽃이 짐승의 꼬리를 닮아서 이름 붙여졌으며, 줄기는 곧게 서며 초장에 비해 길고 풍성한 꽃차례를 이루어 모아 심으면 여름철 풍성한 아름다움을 줌, 꽃 향이 좋아 벌과 나비를 모음

자생지 전국의 산기슭이나 풀밭

식 재 양지의 공중습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곳

관 리 잎이 커서 광합성이 활발하므로 공중습도가 높아야 함

증 식 8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양지꽃 *Potentilla fragarioides* L.

Sunny-place cinquefoil

여러해살이풀 130-50cm ❁ 4-6월, 노란색

개화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길고 꽃의 수도 많아 화사함. 초장이 길지 않고 줄기가 비스듬히 자라 지피식물로 적합하여, 양지의 자연석 포장 사이 틈, 암석 주변에 식재하면 밝고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음

자생지 전국의 양지바른 산지

식재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추위와 더위, 건조에 강함

관리 1-2일에 한 번씩 관수

증식 7월경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0519 강원 삼척



0423 국립수목원



0423 국립수목원

벼과 억새속 Gramineae *Miscanthus*

억새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Matsum.
Purple maiden silvergrass

여러해살이풀 ↓1-2m ❀ 9월, 은백색

습지 주변 모래 땅에서 자라는 갈대와 달리 억새는 산과 들에 지천으로 무리지어 자라며 높고 생명력 또한 왕성하여 바람부는 들판에서 파란 하늘과 맞닿은 털이 달린 열매는 시원한 느낌을 줌

자생지 전국의 산이나 평지 초원

식 재 양지의 유기질이 풍부한 곳

관 리 뿌리가 강하고 건조에 잘 견디므로 약간 건조하게 관리

증 식 이른 봄 새싹이 올라올 때 포기나누기



1007 제주 김문오름



1020 국립수목원

오이풀 *Sanguisorba officinalis* L.

Great burnet

여러해살이풀 130-150cm ❀ 7-9월, 자주색

잎을 한움큼 뜯어 냄새를 맡으면 오이 냄새가 나며, 뿌리의 활력이 왕성한 5월 경 근압이 높아지면 잎 가장 자리에 물방울이 맺히는 일액현상을 볼 수 있음(아래 사진). 자주색 꽃이 긴 꽃자루 끝에 뭉쳐서 피면 종이 질감의 독특한 느낌으로 가을 꽃꽂이 소재로 이용됨

자생지 산 속 벌이 잘 드는 풀밭이나 물가

식 재 반그늘 혹은 양지의 사질양토

관 리 건조에 약하므로 충분히 관수

증 식 9-10월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3-4월에 포기나누기



1005 해남 땅끝마을



0624 국립수목원

좀작살나무

Callicarpa dichotoma (Lour.) K.Koch
Purple beautyberry

낙엽활엽관목 ↓1.5m ❀ 7-8월, 연한 자주색

늦가을, 늘어진 가지에 보라색 열매가 다닥다닥 달리는 모양이 탐스럽고 풍성하여 가을 소재로 좋음. 열매가 새들의 먹이가 되므로 생태조경용으로 공원에 많이 식재되며, 뻣뻣한 잎과 가지가 늘어지므로 산울타리용으로도 활용됨

자생지 숲 속이나 나무 밑 반그늘

식재 배수성이나 보습성이 좋은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의 반그늘 혹은 양지

관리 이식을 하면 세력이 급속히 감퇴되나 한번 활착하면 맹아력이 좋아 포기 번식이 잘 됨

증식 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노천매장 한 후 이듬해 봄에 파종, 포기나누기와 꺾꽂이



청사초 *Carex breviculmis* R.Br.

Short-stem sedge

여러해살이풀 15-40cm ❁ 4-6월, 담녹색

전국 산지나 풀밭에 흔하게 자라며 지하경이 짧고 포기식으로 자라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으나 아직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지 않은 종임. 척박한 토양이나 건조한 곳에서도 자라며 내한성이 매우 강함

자생지 양지바른 길가, 초지

식재 물 빠짐이 좋고 양지 바른 곳

관리 잡초처럼 잘 자라므로 원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예초를 통한 꽃대 제거 작업 필요

증식 6-7월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0406 국립수목원



0724 국립수목원

층꽃나무

Caryopteris incana (Thunb. ex Houtt.) Miq.
Common bluebeard

여러해살이풀 130-60m ❀ 8-10월, 남보라색

남보라색 꽃이 층층이 피어 늦여름과 가을에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며, 개화기간도 길어 최근 가을 정원 소재로 많이 사용됨. 자생지는 전라남도, 남해안 섬, 제주도 등 남쪽지방이지만 중부지방에서도 식재 가능한 밀원식물임

자생지 양지의 척박하고 건조한 절개 사면지 또는 바위 곶

식재 햇볕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곳

관리 너무 비옥한 토양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여 당년에 개화하고 고사하므로 최대한 척박하고 건조한 조건으로 관리하여야 여러해살이풀로 이용 가능

증식 9-11월경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바로 파종



0912 국립수목원



0827 국립수목원

큰평의비름

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Ohba
Showy stonecrop

여러해살이풀 130-70cm ❁ 8-9월, 홍자색

건조에 강한 돌나물과 식물 중 키가 크고 산방화서의 홍자색 꽃이 풍성하므로 군락을 이루면 인상적이고, 그래스류와 잘 어울림

자생지 경기 이북의 산과 들

식재 양지의 물 빠짐이 좋은 곳, 척박한 토양이나 암석지대에서도 잘 자람

관리 건조하게 관리

증식 10월경에 익은 종자를 채종하여 이듬해 봄에 파종



패랭이꽃

Dianthus chinensis L.
Rainbow Pink

여러해살이풀 †30cm ❀ 6-8월, 진분홍색

강렬한 꽃색과 가운데 짙은 무늬 그리고 가장자리의 톱니모양의 결각으로 꽃은 화려하며, 다양한 꽃색과 무늬의 재배종이 많이 개발되어 있음. 양지바르고 건조한 전국의 산과 들 어디에서든 볼 수 있음

자생지 전국의 낮은 지대 또는 메마른 풀밭, 냇가의 모래땅 및 숲 가장자리에 간격을 두고 서식

식 재 양지바른 곳의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관 리 진드기, 진딧물 같은 해충이 잘 붙으므로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뿌림

증 식 9월경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



0630 국립수목원



슬패랭이꽃, 0622 국립수목원

할미꽃

Pulsatilla koreana (Yabe ex Nakai) Nakai ex Nakai
Korean pasque-flower

여러해살이풀 130-40cm ❀ 4월, 검붉은 자주색

잎과 줄기, 꽃에 부드러운 흰 털이 많으며, 꽃은 아래로 향하여 꼬부라져 펴, 꽃이 진 후 결실된 종자는 노파의 백발을 연상하여 할미꽃이라 불림. 햇볕이 잘 드는 무덤가에서 많이 자라며 건조와 석회질 토양에서 잘 자라므로 암석원이나 척박지 녹화용으로 권장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의 양지바른 곳

식 재 배수가 잘되는 양지, 가능한 건조한 상태 유지

관 리 시비는 거의 필요하지 않음, 부적절한 시비관리는 식물체를 고사시키고 이식에도 좋지 않음

증 식 6월경에 익은 종자를 곧바로 파종



해국

Aster sphathulifolius Maxim.
Seashore spatulate aster

여러해살이풀 130-60cm * 7-10월, 연한 자주색

해변에서 자라는 국화라하여 ‘해변국’ 이라고도 이름 붙여짐. 연한 자주색 꽃은 개미취와 비슷하며 가을부터 겨울까지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어서 지피소재로 좋음. 자생지처럼 바위틈에 군락으로 식재해도 좋음

자생지 전국의 바닷가 절벽

식재 양지, 바람이 많이 부는 곳도 좋음

관리 발아 후 심한 건조나 과습을 피해야 함

증식 11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



흰말채나무 *Cornus alba* L. Red-bark dogwood

낙엽활엽관목 ↑3m ❁ 5-6월, 흰색

나무껍질과 어린가지가 붉은 색이어서 흰 눈이오는 겨울에 인상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음. 줄기의 밀도가 뻣뻣하여 산울타리로 좋음

자생지 전국의 산지 또는 물가

식 재 양지와 음지 모두에서 잘 자람, 보수력이 있으면서 배수가 잘되는 토양

관 리 지상으로 많은 줄기가 나오는데, 강한 전정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좋음, 전정 후에는 반드시 절단 부위에 발코트 등을 발라서 줄기가 마르거나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증 식 중부지방에서 재배하는 경우 종자가 결실하지 않으므로 이른 봄 가지를 잘라 삽목



0216 국립수목원



0714 국립수목원



0511 국립수목원

아이들이 오래 간직하는 유년기의 기억은 대부분 외부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며, 그 곳에서 특별한 비밀을 만들거나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기억들이다. 그 곳은 흙과 모래, 나뭇잎, 풀 또는 나뭇가지처럼 바깥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장소이다.

Clare Cooper Marcus. 1992. Environmental Memories. Place Attachment. 12:89-91.



서울_삼각산초등학교 야생화정원

학교정원

School Garden

생명, 신비, 놀라움이 가득한 야외교실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Rachel Carson-

학교정원에 대한 기록

인간이 이해하는 모든 것은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다. 사람의 첫 번째 이성인 감각 이성이고, 우리 지식의 첫 번째 달인은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눈이다.

- Jean Jacques Rousseou, 「On Education」 -

학교정원에 대한 생각은 18-19세기 유럽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한번쯤 들어봤을 루소Jean Jacques Rousseou(1712-1778), 페스탈로치Johann Pestalozzi(1746-1827), 프뢰벨Friedrich Froebel(1782-1850)이 어린시절 감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정원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1869년에는 오스트리아, 1882년에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러시아에서 학교정원 교육이 학교의 의무조항이 되기도 했다.

페스탈로치는 루소의 「에밀」을 본 따 아들 야곱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산책하며 새롭고 자연스러운 교육 방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를 일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 「육아일기」라는 책을 썼다. 페스탈로치의 자연주의 교육 철학은 이베르동Yverdon학원(1805-1810)의 변창으로 전 유럽에 전해졌다. 그의 연구소는 유럽의 군주 및 지식인들에게 순례지가 되었고, 제자들은 그의 교육학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프뢰벨은 페스탈로치에 영향을 받아 자연을 벗삼아 노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주장하며 어린시절 교육을 중시했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신장시키며, 놀이 도구가 중요한 매체라 주장하며(유아용 교구 전문 브랜드 프뢰벨을 연상하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1840년 세계 최초의 유치원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아이들kinder이 노는 정원garten)을 설립해 유아교육에서 정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유럽의 교육개혁에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경험, 자연과의 교감, 학습의 비형식성 및 자발성에 기반하여 자연을 통해 과학을 학습하는 Nature-Study가 과학교육에서 유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학교정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미국 최초의 학교정원은 1891년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록스베리Roxbury의 조지 풋남 학교George Putnam School에 만들어졌고, 국가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1906년에는 미국 전역에 75,000개의 학교정원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학교정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쇠퇴 양상을 보이다가 비만, 자연결핍의 문제를 개선하고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제주_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들꽃나라'

학교정원 철학

“넘쳐나는 호기심의 공간, 야외교실”

Why is the School Gardens?

환경적 책임의식 고취한다

Environmental Stewardship

학교정원은 강력한 환경 교육의 장이다. 정원에서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연과 가까워지게 되고, 자연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긍정적인 환경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와 사회성을 함양한다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정원은 협력해서 일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살핌의 정도에 따라 다른 식물의 성장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책임감을 지니게 되고,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서 아름답고 생산적인 정원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건강한 삶을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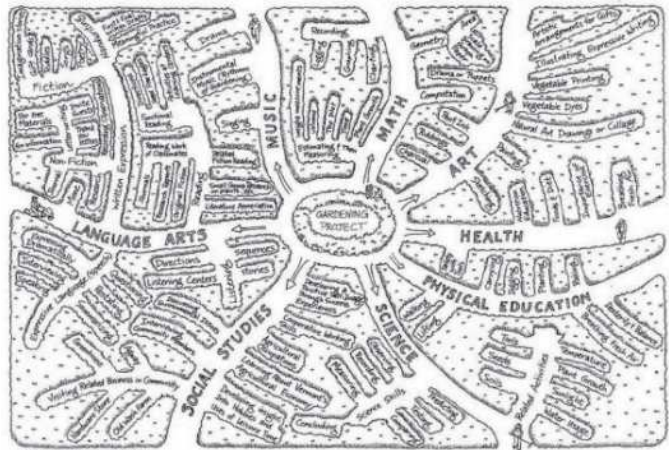
Healthy Lifestyle

서구형 식습관에 익숙한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의 비만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원가꾸기는 신체적 활동을 기반으로 영양과 건강한 삶을 가르친다. 재미있게 정원가꾸기를 하면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생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Academic Achievement

많은 과학 선생님들은 정원에서 날씨, 곤충, 새, 토양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식물의 성장을 도표로 나타내면 수학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정원 디자인을 통해 미술 수업을, 정원에 대한 감상을 남겨 문학 수업 등과 연결하면 정원은 자연을 기반으로 한 즐거운 학습 공간이 된다.



미국의 스쿨가든 네트워크 단체@<http://www.csgn.org>

학교정원 공간구상

1. 생태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정원가꾸기는 우리가 가장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일로, 작은 화분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꾸준함과 끈기이다. 정원가꾸기에 애정을 갖게 되면 스스로 자연 생태계의 일부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학교 여건이 허락한다면 물의 순환, 숲의 천이과정, 가꾸는 정원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아이들 중심의 편안한 공간

아이들이 가꾸는 정원은 드나들기 쉬운 장소에 위치하고, 정돈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움이 있는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 식물을 심은 줄이 빼돌빼돌해도 좋고, 매년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스스로 정원을 디자인하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자.

3.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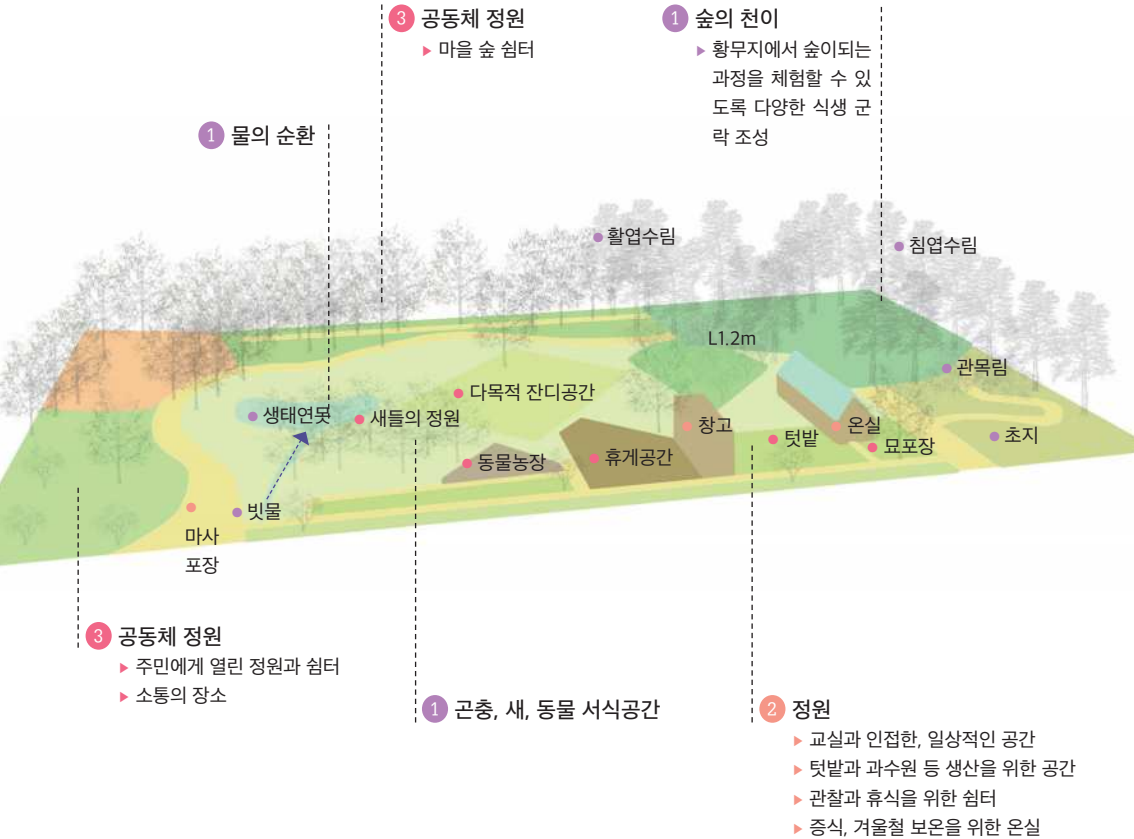
학교는 지역 공동체를 통합하는 중심공간이 될 수 있다. 학부모, 지역 주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원은 유지·관리의 지속성을 높여준다.

생태계를 체험하는 학교정원 요소 **Tip**

- ▶ 물이 순환하는 곳
생태연못 조성: 빗물 → 계류 → 연못
- ▶ 숲의 천이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곳
황무지 → 초지(1-2년생 초지) → 다년생 초지) → 관목림 → 침엽수림 → 참나무림 조성
- ▶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곳
자연을 가꾸며 생명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자연 생태계의 일부임을 지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정원 **Tip**

- ▶ 정원위원회 구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참여하면 정원이 오랫동안 유지되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도해볼 수 있음
: 정부기관, 대학 등 전문기관, 지역사회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 유도
- ▶ 주변의 다른 정원들과 연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생물이 서식하는 거점으로서 정원



1 물의 순환

3 공동체 정원
▶ 마을 숲 심터

1 숲의 천이
▶ 황무지에서 숲이 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생 군락 조성

3 공동체 정원
▶ 주민에게 열린 정원과 심터
▶ 소통의 장소

1 곤충, 새, 동물 서식공간

2 정원
▶ 교실과 인접한, 일상적인 공간
▶ 텃밭과 과수원 등 생산을 위한 공간
▶ 관찰과 휴식을 위한 심터
▶ 증식, 겨울철 보온을 위한 온실

학교정원 모델정원





활엽수림

참나무류(갈참나무, 졸참나무 등)
단풍나무류(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복자기, 산겨릅나무 등)



침엽수림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

관목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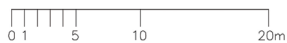
조팝나무, 싸리나무, 진달래, 질레꽃, 쪽동백나무, 산초나무 등

다년생 초지

좁섬바귀, 민들레, 미나리아재비, 엉겅퀴,
쑥, 벌개미취, 산국, 쑥부쟁이, 수크령 등

1-2년생 초지

봄맞이, 흰양귀비, 솔제꽃, 산괴불주머니, 꽃향유 등



1-2년생 초지 (식재하지 않아도 자연 발생하는 초본 포함)



흰양귀비



애기똥풀



꽃다지



솔제꽃



벌맞이



꽃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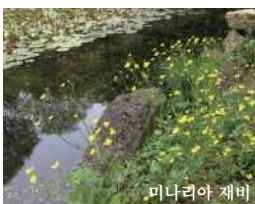
다년생 초지



엉겅퀴



벌개미취



미나리아재비

관목림



조팝나무



진달래



산초나무

습지식물



침엽수림

활엽수림



미나리아재비과 노루귀속 *Ranunculaceae Hepatica*

노루귀

Hepatica asiatica Nakai
Asian liverleaf

여러해살이풀 ↑10cm ❁ 4월, 흰색, 연분홍색, 연보라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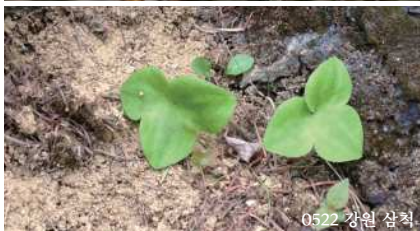
새순이 돋아날 때 잎의 보송보송한 솜털이 '노루의 귀 모양'이라 이름 붙여짐. 잎이 나오기 전에 양중맛과 귀여운 꽃이 먼저 피며, 개화시기가 비교적 빨라 이른 봄 정원 소재로 좋음. 노루귀 속 식물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 자생지에 따라 꽃의 색(흰색, 분홍색, 보라색 등)을 달리함

자생지 전국의 숲 속 낙엽수림 아래

식 재 유기질이 풍부하고 배수가 양호한 낙엽수 아래

관 리 여름철 서늘하게 관리하고, 토양은 부엽토가 많은 비옥한 것으로 관리

증 식 5-6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면 이듬해 봄에 발아함



더덕 *Codonopsis lanceolata* (Siebold & Zucc.) Benth. & Hook.f. ex Trautv. Deodeok (Lance Asiabell, Bonnet bellflower)

여러해살이풀 ❀ 8-9월, 겉은 연한 풀빛, 안은 자주빛

덩굴식물로 정원의 울타리에 식재하거나 나무를 감고 올라가게 기르면 한여름 아래로 향해서 피는 종 모양의 독특한 꽃을 감상할 수 있음, 뿌리는 나물로 먹거나 약으로 쓰는데 도라지 모양이지만 도라지처럼 쓴맛이 나지는 않고 씹쌀하면서도 단맛이 나며 특유의 향이 있음.

자생지 전국의 숲 속

식 재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며 주변 습도가 높은 곳,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며 부엽질이 많은 곳

관 리 가지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 조성, 반그늘 화단에 식재(양지 식재시 뿌리 맛도 좋지 않고 잎이 탐)

증 식 10월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



0731 국립수목원



0511 국립수목원



0731 국립수목원

독활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Kitag.) Y.C.Chu
Manchurian angelica

여러해살이풀 ↓1-1.5m ❁ 7-8월, 연한 녹색

봄에 땅에서 나는 새순이 두릅 순과 유사해 "땃두릅" 혹은 "땅두릅"이라고 흔히 부르며, 새순은 향기가 좋고 사각거리며 담백한 맛이 좋아 데쳐서 먹음. 말린 뿌리는 근육통, 신경통, 두통에 효과가 있어 약재로도 재배하며, 한여름 자랄한 연녹색 꽃이 등글게 모여 달려 전체적으로 원추형을 이루는 꽃이 독특함. 풀이지만 관목처럼 넓게퍼져 한 개 체만으로도 매우 인상깊음

자생지 전국의 산지

식 재 양지의 유기질이 풍부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배수가 잘 되는 곳

관 리 가을에 낙엽이 진 다음 흙을 덮으면 어린 순이 잘 자람

증 식 9-10월경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0918 국립수목원



0717 국립수목원

등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Japanese wisteria

낙엽덩굴목본 ❀ 5월, 연한 자주색

성장이 빠르고, 내한성이 강하며, 건조하고 척박한 곳, 바닷가나 공해가 있는 곳에서도 잘 자라 전국의 공원과 정원 파고라, 벽, 구조물 등에 많이 식재되고 있음. 5월에 잎과 함께 주렁주렁 매달리는 연보라색 꽃은 향기롭고, 휘감아 올라가는 줄기에서는 웅장함이 느껴짐

자생지 비옥한 계곡이나 산기슭

식재 적당히 습기가 있고 비옥한 양지

관리 뿌리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매년 유기질 비료를 적당히 주며 흙갈이를 하는 것이 좋음

증식 9월경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2-3월에 가지를 삽목



마름

Trapa japonica Flerow
East Asian water-chestnut

한해살이풀 ❀ 7-8월, 흰색

뿌리는 땅 속에 박고 가느다란 줄기가 길게 자라서 잎이 줄기 윗부분에 여러 개가 뭉쳐서 남, 잎은 마름모 모양의 삼각형으로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 물에 뜨는데, 잎들이 겹치지 않게 펼쳐져 관상 가치가 있음

자생지 전국의 연못, 늪, 못 바닥

식 재 흐르는 물에서는 자라지 않으므로 충분한 햇볕이 드는 고여있는 물

관 리 부식질이 풍부한 점질양토에서 잘 자람

증 식 가을에 익은 열매는 물 속에 가라앉아 이듬해 봄에 싹을 틔움



0731 국립수목원



0511 국립수목원



0731 국립수목원

물봉선 *Impatiens textori* Miq.

Field touch-me-not

한해살이풀 †60cm ❀ 8-9월, 홍자색

물가에 피는 봉선화라 "물봉선"이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한여름에 서서히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여름이 끝날 때까지 개울가, 자작한 물기가 남아 있는 숲길 혹은 깊은 산골짜기의 물가에서 화려한 색상으로 꽃을 피움

자생지 산과 들의 약간 그늘진 곳, 물가

식 재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곳

관 리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라며 충분히 관수하여 관리해야함

증 식 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



0820 국립수목원



0907 국립수목원



노랑물봉선, 0903 국립수목원

물수세미 *Myriophyllum verticillatum* L.

Whorled water-milfoil

여러해살이풀 ↑50cm ❀ 7-8월, 연한 황색

잎이 3-4개씩 둘러나고 깃모양으로 갈라지는데, 깃모양의 갈라진 조각이 수세미를 닮아서 이름 붙여짐. 물 속의 잎과 물 위의 꽃(암수한그루로, 윗부분에 수꽃이 피고, 아래에 암꽃이 펴)이 신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물 속 산소 증대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수족관이나 어항의 수초로 널리 이용됨

자생지 전국의 못이나 늪

식 재 양지에 잎까지 물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식재

관 리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음

증 식 8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상부 줄기를 잘라 삽목



0527 국립수목원



민들레 *Taraxacum platycarpum* Dahlst. Korean dandelion

여러해살이풀 ↑30cm ❀ 4-5월, 노란색

로제트형 잎에서 꽃줄기가 나와 끝에 노란 꽃이 하나 뿜. 5-6월이면 꽃이 피고 진 자리에 씨앗을 퍼트리기 위해 봄바람 불기를 기다리는 하얗고 둥근 모양의 민들레씨 몽치가 인상적임. 어린 잎은 나물로 먹고, 전체를 기관지염, 해독, 산모의 젖이 빨리 나오게 하는 약으로 씀

자생지 전국의 산과 양지바른 들이나 길가

식 재 양지의 물 빠짐이 좋은 곳

관 리 생활력이 강하여 어느 환경에서나 잘 자람

증 식 5-6월경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



0515 국립수목원



0426 국립수목원



0515 국립수목원

부들

Typha orientalis C.Presl
Oriental cattail

여러해살이풀 ↑1-1.5m ❁ 7월, 노란색

잎이 부들부들 부드러워 "부들"이라 이름 붙였고, 뿌리줄기가 땅속에서 옆으로 뻗으며 무리지어 자람. 잎은 방석이나 돛자리를 만들고, 꽃이 핀 줄기는 꽃꽂이 재료로 활용함. 씨가 여물면 꽃이삭은 갈색 솜방망이처럼 부풀어 종자가 바람을 타고 퍼짐. 큰잎부들, 애기부들, 꼬마부들을 섞어 심는 것도 식재연출의 한 방법임

자생지 전국의 연못가, 강가, 습지

식재 양지의 유기질이 풍부한 진흙, 비교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지만 토양은 가리지 않음

관리 심한 가뭄이 아니라면 물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됨

증식 9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0729 국립수목원



0725 국립수목원

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 Hemsl. Korean spice viburnum

낙엽활엽관목 ↑2m ❁ 4-5월, 연한 분홍색

이른 봄 잎과 함께 피는 향기좋은 꽃은 봄 기운을 전하며, 꽃이 아름답고 수형이 단아하여 정원에서 포인트 식재 소재로 좋음. 내한성과 내염성이 강해 도시는 물론 해안가에서도 생육이 양호함

자생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등 주로 서해안 지역

식재 양지의 적당하게 비옥한 곳

관리 뿌리에서 많은 줄기와 근매아가 올라와 반구형의 수형을 이루며, 지상부를 바짝 자르면 둥글게 수형을 만들 수 있고, 2-3m까지 자라지만 키를 낮게 기를 수도 있음

증식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2년간 노천매장하였다가 이른 봄에 파종, 초여름에 미숙지를 채취하여 녹지삼목함



0418 국립수목원



0426 '2015코리아가든쇼' 수목원을 통해 정원을 보다

수련과 수련속 Nymphaeaceae Nymphaea

수련

Nymphaea tetragona Georgi
Pigmy water-lily

여러해살이풀 ↓10cm ❀ 6-8월, 흰색

꽃은 낮에만 피고 밤에는 오므라들기 때문에 ‘잠자는 연꽃’이라는 뜻으로 수련이라 이름 붙여짐. 깨끗한 순백의 꽃이 한여름에 피며, 물 위에 뜨는 둥근 잎은 밑 부분이 화살촉 모양으로 깊게 갈라졌으며 두꺼움

자생지 전국의 늪이나 연못, 저수지

식재 연중 햇빛이 강한 곳(빛이 부족하면 꽃을 피우지 못함)에 물속에 잠기도록 식재

관리 어린 묘를 물 속에 옮겨 심어 일단 활착하면 특별히 관리가 필요없음

증식 9-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0603 국립수목원

수련

- 잎자루가 물속에 잠김
- 꽃 속에 연방이 없음
- 꽃이 낮에 피었다가 밤에 오므라들



연꽃

- 잎자루가 수면 위로 올라옴
- 꽃 속에 연방이 있음
- 잎에 털이 있어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흐름



수크령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Foxtail fountaingrass

여러해살이풀 130-80cm ❀ 8-9월, 검은 자주색

가을에 길가에서 군락으로 핀 수크령의 흑자색의 원통형 꽃이 바람에 휘날리거나 역광을 받아 반짝이면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김

자생지 전국의 양지쪽 길가, 황무지

식재 양지의 물 빠짐이 좋은 곳

관리 토양을 가리지 않아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며 내건성 식물이므로 관수하지 않아도 됨. 이식도 용이하며 환경에 대한 내성이 강함

증식 9-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쑥부쟁이

Aster yomena (Kitam.) Honda
Field aster

여러해살이풀 130-100cm ❁ 7-10월, 연한 보라색

줄기와 곁가지가 성글하게 자라 토속적인 분위기를 연출함. 연보랏빛 꽃송이들이 여름이면 피기 시작하여 가을이 깊어 가도록 은은한 향기를 뿜으며 길게 꽃을 피우며 어디서든 잘 자람

자생지 전국 들의 습지

식 재 양지의 보수력이 있는 곳

관 리 대체로 가뭄에 강한편이고 양지인 경우 건조한 곳이나 습기가 있는 곳 모두 가리지 않음

증 식 10-11월경에 익은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이른 봄 포기나누기



0919 평창군 대관령면

엉겅퀴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Ussuri thistle

여러해살이풀 ↑50-100cm ❁ 6-8월, 자주색

무리지어 자라듯 꽃을 피우는 엉겅퀴는 큰 키와 잎에 난 결각상의 톱니와 날카로운 가시로 야성미를 풍김. 가을에 맺는 열매는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하얀 솜털을 달고 바람에 날려감. 피를 엉기게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실제로 지혈에 효능이 있음

자생지 전국의 습기가 있는 양지바른 풀밭

식 재 햇볕이 잘 드는 양지의 서늘하며 공중습도가 높은 곳

관 리 토질은 배수가 잘 되면서도 보수력이 있는 토양이 좋으며 건조가 계속되는 곳은 좋지않음

증 식 9-10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



0610 국립수목원



0610 국립수목원

은방울꽃

Convallaria keiskei Miq.
Lily of the Valley

여러해살이풀 ↑20-35cm ❀ 4-5월, 흰색

양쪽으로 널찍한 타원형의 잎사귀 사이에서 가녀린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에는 작은 흰색 꽃이 은방울 모양으로 아래로 매달려 땀. 넓은 이파리 조각이 주는 느낌이 시원스럽고 꽃에서 좋은 향이 남

자생지 전국의 산지 또는 산기슭

식 재 반그늘의 배수가 잘 되고 유기질이 풍부한 곳

관 리 주변 환경은 적절히 습도가 유지되는 곳이 좋으며 개화하기 전까지는 벌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개화 후에는 반그늘이 좋음

증 식 8-9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가을이나 봄에 포기나누기



0510 국립수목원



0922 국립수목원

제비꽃 *Viola mandshurica* W.Becker Manchurian violet

여러해살이풀 110-25cm ❀ 4-5월, 짙은 보라색

종류가 50가지나 되는 제비꽃 종류는 이른 봄 제비가 날아올 즈음 핀다고 이름 붙여졌으며 정원에 지피식물로 심어 놓으면 금세 퍼져 나가 이듬해 풍성하게 지표를 덮음

자생지 산과 들의 양지바른 곳

식재 양지의 배수가 잘되는 곳

관리 겨울철 뿌리가 땅위로 올라오거나 이른 봄 된서리 등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흙을 덮어주어야 함

증식 5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9월경 포기나누기



참나리 *Lilium lancifolium* Thunb.

Tiger lily

여러해살이풀 ↑1-2m ❁ 7-8월, 주황색

흑자색 반점이 있는 주황색 꽃이 아래를 향해 피는 참나리는 한여름 정원에서 키가 큰 초본으로 가장 화려한 빛깔을 자랑하며 무리지어 심어도 좋고, 몇 개체 포인트로 식재해도 인상적임

자생지 전국의 산과 들

식재 식사광선은 피하고, 적당한 햇볕이 드는 물 빠짐이 좋은 곳, 유기질이 많은 비옥한 토양

관리 물은 보통으로 공급, 겨울에 건조하지 않게 관리(화분재로 땅에 묻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임)

증식 9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파종하거나 10월경 땅속의 둥근 비늘줄기의 비늘 조각을 떼어 내 심음



0725 국립수목원



0701 국립수목원

창포 *Acorus calamus* L. Common sweet flag

여러해살이풀 ↓70cm * 5-6월, 연한 황록색

식물체의 향이 좋아 단오날 뿌리와 잎을 우려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풍습이 아직까지 이어짐. 물가에 심어 놓으면 녹색잎이 시원한 분위기를 내며, 물을 맑게 하고 물속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처로도 좋음. 초여름에 꽃자루 중간에 마치 애벌레처럼 길쭉한 꽃차례가 달림

자생지 양지에 30cm 미만의 얇은 물속이나 물가 혹은 습지

식 재 양지의 비옥한 습지

관 리 오염된 물에서는 자라지 않으므로 수질관리 필요

증 식 종자번식은 거의 불가능하나 분주에 의한 증식율이 좋으므로 겨울철을 제외하고 포기나누기



0627 국립수목원



0620 국립수목원

초롱꽃

Campanula punctata Lam.
Spotted bellflower

여러해살이풀 ↑40-100cm ❀ 5-7월, 흰색 또는 연한 홍자색

하얀 종들이 줄줄이 매달아 놓은 듯이 달린 꽃은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고 잘 퍼져나가며 향이 좋아 벌과 나비를 불러 모음

자생지 저지대 산 또는 산기슭, 풀밭

식 재 양지의 유기질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

관 리 충분한 관수를 요하지만 어느 정도 건조에도 견딤. 이식은 잘 되는 편이고 환경의 적응성도 좋으나 햇빛이 들지 않는 장소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므로 하루에 4시간 이상은 햇볕이 들도록 해야 함

증 식 8-9월경에 익은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또는 이른 봄 포기나누기



0614 강원도 양구



0612 국립수목원

흰양귀비 *Papaver amurense* (N.Busch) N.Busch ex Tolm. Amur poppy

두해살이풀 130-50cm * 6-8월, 흰색

50cm 정도 되는 시원한 줄기 끝에 한지로 만들어 놓은 듯한 흰꽃이 무리지어 들판에서 휘날리는 느낌이 야생적이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하기 좋음

자생지 두만강 연안, 만주, 아무르, 우수리 들판

식재 양지의 배수가 잘 되는 통기성 있는 토양

관리 물이나 거름이 부족하면 잎이 노랗게 지므로 주의, 잔뿌리가 적으므로 이식은 피해야 함

증식 7-8월에 채취한 종자를 곧바로 파종하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종자는 자연스럽게 바람에 잘 퍼짐)



0505 국립수목원



0521 국립수목원

풍석 서구유 선생의 「임원경제지」 식생활편 「정조지」에서
야생화 요리를 재현하다.

- 문성희 자연요리 연구가 -

우리나라 음식에는 다섯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

색美, 향香, 미味, 형型, 기器가 그것이다.

야생화로 만들어 재료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는 우리 음식은

요리법이 간단하고 정확하여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야생화가 꽃피우는 여섯 가지 요리

방풍죽

고비나물 무침

산구절초 샐러드

죽순구기자잎국

꽃비빔밥

오미자갈수

갯기름나물(방풍나물)

Peucedanum japonicum Thunb.



갯기름나물 꽃 (0702 국립수목원 사초원)

방풍죽 만들기



1



2



3



4



5

재료

멥쌀 1.5컵, 갯기름나물(방풍나물) 1줌, 물 7컵

만들기

- 1 미리 불린 쌀을 냄비에 넣는다.
- 2 물을 넣고 죽을 쑀다.
- 3 씻어 준비한 방풍나물을 죽에 넣어 먹기 쉽게 다듬는다.
- 4 죽이 반쯤 익으면 방풍나물을 넣어 마저 익힌다.
- 5 방풍죽을 완성한다.

고비(고비나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0608 국립수목원 양치원)

고비나물 무침 만들기



1



2



3



4



5

재료

말린 고비 ½줌, 집간장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만들기

- 1 말린 고비를 하룻밤 물에 불린다.
- 2 불린 고비를 충분히 삶아 연하게 한다.
- 3 삶은 고비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는다.
- 4 양념이 잘 스며들 때까지 볶는다.
- 5 고비나물 무침을 완성한다.

산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Herb.) Tzvelev



산구절초 꽃 (0921 국립수목원 소리정원)

산구절초 샐러드 만들기



1



2



3



4



5

재료

산구절초 1줌, 녹두 가루 ½컵,
현미유 3큰술, 마 1개,
집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만들기

- ① 씻은 산구절초 잎은 살짝 데친다.
- ② 데친 산구절초 잎에 녹두가루를 입혀 현미유로 노릇하게 지진다.
- ③ 마는 껍질을 벗기고 5mm 정도의 두께로 썰어 얇은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뺀다.
- ④ 그릇에 마를 담고 지진 산구절초 잎을 올려서 간장과 식초를 끼얹는다.
- ⑤ 산구절초 샐러드를 완성한다.

구기자나무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 잎 (0608 국립수목원 화목원)

죽순 구기자잎국 만들기



1



2



3



4



5

재료

구기자잎 1줌, 죽순 1개, 버섯 6개, 참기름 2작은술, 후추 ½작은술

만들기

- 1 어린 죽순은 껍질을 벗겨내고 얇게 썬다.
- 2 표고버섯은 얇게 저민다.
- 3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넣고 죽순과 표고버섯을 넣어 볶는다.
- 4 물을 붓고 끓인 다음 구기자잎을 넣고 끓이다 후추를 넣고 한소끔 더 끓인다.
- 5 죽순 구기자잎국을 완성한다.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꽃 (0401 국립수목원 키 작은 나무언덕)

꽃비빔밥 만들기



1



2



3



4



5

재료

돌나물 잎, 진달래꽃, 매실나무꽃, 개나리꽃, 초피나무 잎, 잣송이 발효액, 오미자 발효액
오이 3개, 두부 1/2모, 집간장 3큰술, 후추 1작은술

만들기

- 1 쌀을 씻어 돌솥에 넣고 밥을 삶히고 들꽃은 씻어 준비한다.
- 2 간장과 잣송이초 발효액을 1:2로 섞어 배초향을 썰어 넣는다(간장소스).
- 3 된장에 오미자 발효액을 적당량 붓고 초피나무 잎을 넣는다(된장소스).
- 4 그릇에 밥을 담고 꽃을 넣어 만들어 둔 소스를 뿌린다.
- 5 꽃비빔밥을 완성한다.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오미자 열매 (1009 국립수목원 키 작은 나무 언덕)

오미자갈수 만들기



1



2



3



4

“갈수는 목이 마를 때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약과 과일과 설탕을 담아 빛은 것으로 탕이나 장과 같은 종류다”

풍석 서유구, 임원경제연구소(정정기) 번역,
『생명밥상』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4), p.189



5

재료

오미자 100g, 흰콩 ½컵, 꿀 1컵

만들기

- 1 말린 오미자 100g을 끓인 물(1.5L)에 하루밤 담갔다 배보자기에 받친다.
- 2 삶은 콩을 믹서기에 간다.
- 3 오미자 즙과 콩 즙을 적당히 넣으면서 빛깔을 맞춘다.
- 4 섞은 즙은 배보자기에 걸러 꿀을 적당히 넣고 2시간 정도 문근한 불에 달인다.
- 5 오미자갈수를 완성한다.

참고문헌

- 국립수목원. 2015. 한반도 자생식물 영어이름 목록집. 삼성에드컴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nature.go.kr/>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www.nature.go.kr/kpni/>
기의호. 2011. 야생화 조경도감 365. (주)주택문화사
서구유. 2014. 풍석 서구유 선생의 생명 밭상. (㈜씨앗을뿌리는사람
이창복. 2013. 원색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조태동. 2006. 한국의 허브. (주)대원사

덧발정원

- 오경아. 정원의 발견. 2013. 정원의 발견, 궁리
이영득. 2009. 주머니 속 나물도감. 황소걸음
제갈영. 2011. 우리나라 베스트 산나물 먹기 먹는나물 & 먹는 꽃 도감. 혜성출판사
질 클레망. 이재형 역. 2012. 정원으로 가는 길. 홍시
한국임업진흥원. 2013. 산이 주는 보약 산나물과 산약초. GeoBook

약초정원

- 고정희. 신의정원 나의전국. 2011. 나무도시
안덕균. 2006. 원색한국본초도감. 교학사
정진해. 권영숙, 김경은. 2012. 한국토종약용식물도감-목본류. 학연문화사
조식제. 2012.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아카데미북
페렐러피 흡하우스. 최종희·윤상준·고정희 역. 2015.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서양정원사. 도서출판 대가

실내정원

- 김순자. 2007. 실내·외 정원 디자인. (도서출판)조경
김혜경. 2010. (실내에서 가꾸는) 녹색식물. 일진사
도테 니센. 2007. (쉽게 기르는) 실내식물. J&P
이종석. 2005. 신 실내조경학. (도서출판)조경

빗물정원

- NIGEL DUNNETT and ANDY CLAYDEN. 한설그린 부설 조경생태디자인연구소역. 2009. 지속가능한 도시 물관리를 위한 레인가든. 조경
조동범과 김수란. 2010.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에서 도시 내 소공지를 활용한 레인가든의 가능성.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25.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1):25-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해외환경기술정책보고서(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대책 녹색 대안 평가 : 경제적 효과와 사례연구). 국가환경정보센터

옥상정원

- 이상석. 2013. 조경재료학. (㈜일조각
한국조경학회. 2013. 조경설계기준. 기문당
Theodore Osmundson. 심우경 역. 2000. 옥상정원. 보문당

학교정원

- Arden Bucklin-Sporer and Rachel Kathleen Pringle. 최영애와 권혜진 역. 2011.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정원가꾸기. 학지사
금혜진. 미국 학교정원운동(School Garden Movement)의 발전과정.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7(5): 373-378.
박종석과 박상민. 2014. 미국 Nature-Study 형성 과정과 과학교육에의 시사점. 대한화학회지 58(1): 118-125.

국명 찾아보기

갑국	24	노루귀	196	머위	31
개똥쑥	66	노루오줌	132	모람	105
갯기름나물	25	눈개승마	30	물레나물	136
고광나무	128	대사초	100	물봉선	201
고려영경귀	26	더덕	197	물수세미	202
고사리	27	도깨비쇠고비	101	물싸리	190
골담초	67	도라지	72	미나리아재비	137
골등골나물	68	독활	198	미역취	32
골풀	69	돈나무	102	민들레	203
곰취	28	돌나물	166	바위솔	171
관중	98	돌단풍	133	박하	138
괴불나무	129	동의나물	134	배초향	33
구절초	70	등	199	백선	73
금낭화	130	땅채송화	167	백화등	106
기린초	164	마름	200	뱀무	74
꼬리조팝나무	131	마타리	168	별개미취	139
꽃향유	71	만병초	103	별개덩굴	34
꿀풀	165	말발도리	135	뼈꼭채	35
냉초	29	매발톱	169	복분자딸기	75
넉줄고사리	99	맥문동	104	봉의꼬리	107

부들	204	영경귀	209	참당귀	84
부처손	108	오미자	38	참취	42
분꽃나무	205	오이풀	175	창포	213
붓꽃	140	용담	78	청사초	177
산꼬리풀	172	우산나물	39	초롱꽃	214
산수국	141	은방울꽃	210	층꽃나무	178
산초나무	36	익모초	79	콩짜개덩굴	114
산호수	109	일월비비추	111	큰평의비름	179
삼주	76	자금우	112	큰애기나리	115
생강나무	37	잔대	40	털머위	116
속새	142	절굿대	80	톱풀	85
솜방망이	77	제비꽃	211	파드득나무	43
송악	110	좀작살나무	176	패랭이꽃	180
수련	206	주걱비비추	145	피나물	146
수수꽃다리	143	줄사철나무	113	할미꽃	181
수크령	207	쥐손이풀	81	해국	182
쑥부쟁이	208	짚신나물	82	화살나무	147
앵초	144	질레꽃	83	흰괭이눈	117
양지꽃	173	참나리	212	흰말채나무	183
억새	174	참나물	41	흰양귀비	215

학명 찾아보기

<i>Achillea alpina</i> L.	85	<i>Atractylodes ovata</i> (Thunb.) DC.	76
<i>Acorus calamus</i> L.	213	<i>Callicarpa dichotoma</i> (Lour.) K.Koch	176
<i>Adenophora triphylla</i> var. <i>japonica</i> (Regel) H. Hara	40	<i>Caltha palustris</i> L.	134
<i>Agastache rugosa</i> (Fisch. & Mey.) Kuntze	33	<i>Campanula punctata</i> Lam.	214
<i>Agrimonia pilosa</i> Ledeb.	82	<i>Caragana sinica</i> (Buc'hoz) Rehder	67
<i>Angelica gigas</i> Nakai	84	<i>Carex breviculmis</i> R.Br.	177
<i>Aquilegia buergeriana</i> var. <i>oxysepala</i> (Trautv. & Meyer) Kitam.	169	<i>Carex siderosticta</i> Hance	100
<i>Aralia cordata</i> var. <i>continentalis</i> (Kitag.) Y.C.Chu	198	<i>Caryopteris incana</i> (Thunb. ex Houtt.) Miq.	178
<i>Ardisia japonica</i> (Thunb.) Blume	112	<i>Trapa japonica</i> Flerow	200
<i>Ardisia pusilla</i> A.DC.	109	<i>Chrysosplenium pilosum</i> var. <i>fulvum</i> (N.Terracc.) H. Hara	117
<i>Artemisia annua</i> L.	66	<i>Cirsium japonicum</i> var. <i>maackii</i> (Maxim.) Matsum.	209
<i>Arnica dioica</i> var. <i>kamtschaticus</i> (Maxim) H. Hara	30	<i>Cirsium setidens</i> (Dunn) Nakai	26
<i>Aster konuiensis</i> Nakai	139	<i>Codonopsis lanceolata</i> (Siebold & Zucc.) Benth. & Hook.f. ex Trautv.	197
<i>Aster scaber</i> Thunb.	42	<i>Convallaria keiskei</i> Miq.	210
<i>Aster sphathulifolius</i> Maxim.	182	<i>Cryptotaenia japonica</i> Hassk.	43
<i>Aster yomena</i> (Kitam.) Honda	208	<i>Cyrtomium falcatum</i> (L.f.) C.Pre	101
<i>Astilbe rubra</i> Hook.f. & Thmson	132	<i>Davallia mariesii</i> T.Moore ex Baker	99

<i>Dendranthema indicum</i> (L.) Des Moul.	24	<i>Geranium sibiricum</i> L.	81
<i>Dendranthema zawadskii</i> var. <i>latilobum</i> (Maxim.) Kitam.	70	<i>Geum japonicum</i> Thunb.	74
<i>Deutzia parviflora</i> Bunge	135	<i>Hedera rhombica</i> (Miq.) Siebold & Zucc. ex Bean	110
<i>Dianthus chinensis</i> L.	180	<i>Hepatica asiatica</i> Nakai	196
<i>Dicentra spectabilis</i> (L.) Lem.	130	<i>Hosta capitata</i> (Koidz.) Nakai	111
<i>Dictamnus dasycarpus</i> Turcz.	73	<i>Hosta clausa</i> Nakai	145
<i>Disporum viridescens</i> (Maxim.) Nakai	115	<i>Hydrangea serrata</i> f. <i>acuminata</i> (Siebold & Zucc.) E.H. Wilson	141
<i>Dryopteris crassirhizoma</i> Nakai	98	<i>Hylomecon vernalis</i> Maxim.	146
<i>Echinops setifer</i> Ijijn	80	<i>Hylotelephium spectabile</i> (Boreau) H. Ohba	179
<i>Elsholtzia splendens</i> Nakai	71	<i>Hypericum ascyron</i> L.	136
<i>Equisetum hyemale</i> L.	142	<i>Impatiens textori</i> Miq.	201
<i>Euonymus alatus</i> (Thunb.) Siebold	147	<i>Iris sanguinea</i> Donn ex Horn	140
<i>Euonymus fortunei</i> var. <i>radicans</i> (Siebold & Miq.) Rehder	113	<i>Juncus decipiens</i> (Buchenau) Nakai	69
<i>Eupatorium lindleyanum</i> DC.	68	<i>Lemnaphyllum microphyllum</i> C. Presl var. <i>microphyllum</i>	114
<i>Farfugium japonicum</i> (L.) Kitam.	116	<i>Leonurus japonicus</i> Houtt.	79
<i>Ficus oxyphylla</i> Miq. ex Zoll.	105	<i>Ligularia fischeri</i> (Ledeb.) Turcz.	28
<i>Gentiana scabra</i> Bunge	78	<i>Lilium lancifolium</i> Thunb.	212

<i>Lindera obtusiloba</i> Blume	37	<i>Platycodon grandiflorum</i> (Jacq.) A.DC.	72
<i>Liriope platyphylla</i> F.T.Wang & T.Tang	104	<i>Potentilla fragarioides</i> L.	173
<i>Lonicera maackii</i> (Rupr.) Maxim.	129	<i>Potentilla fruticosa</i> L.	170
<i>Meehania urticifolia</i> (Miq.) Makino	34	<i>Primula sieboldii</i> E.Morren	144
<i>Mentha arvensis</i> var. <i>piperascens</i> Malinv. ex Holmes	138	<i>Prunella vulgaris</i> subsp. <i>asiatica</i> (Nakai) H.Hara	165
<i>Miscanthus sinensis</i> var. <i>purpurascens</i> (Andersson) Matsum.	174	<i>Pteridium aquilinum</i> (L.) Kuhn var. <i>latiusculum</i> (Desv.) Underw. ex A.Heller	27
<i>Mukdenia rossii</i> (Oliv.) Koidz.	133	<i>Pteris multifida</i> Poir.	107
<i>Myriophyllum verticillatum</i> L.	202	<i>Pulsatilla koreana</i> (Yabe ex Nakai) Nakai ex Nakai	181
<i>Nymphaea tetragona</i> Georgi	206	<i>Ranunculus japonicus</i> Thunb.	137
<i>Orostachys japonica</i> (Maxim.) A.Berger	171	<i>Cornus alba</i> L.	183
<i>Papaver amurense</i> (N.Busch) N.Busch ex Tolm.	215	<i>Rhaponticum uniflorum</i> (L.) DC.	35
<i>Patrinia scabiosaeifolia</i> Fisch. ex Trevir.	168	<i>Rhododendron brachycarpum</i> D.Don ex G.Don	103
<i>Pennisetum alopecuroides</i> (L.) Spreng.	207	<i>Rosa multiflora</i> Thunb.	83
<i>Petasites japonicus</i> (Siebold & Zucc.) Maxim.	31	<i>Rubus coreanus</i> Miq.	75
<i>Peucedanum japonicum</i> Thunb.	25	<i>Sanguisorba officinalis</i> L.	175
<i>Philadelphus schrenkii</i> Rupr.	128	<i>Schisandra chinensis</i> (Turcz.) Baill.	38
<i>Pimpinella brachycarpa</i> (Kom.) Nakai	41	<i>Sedum kamschaticum</i> Fisch. & Mey.	164
<i>Pittosporum tobira</i> (Thunb.) W.T.Aiton	102	<i>Sedum oryzifolium</i> Makino	167

<i>Sedum sarmentosum</i> Bunge	166
<i>Selaginella involvens</i> (Sw) Spring	108
<i>Solidago virgaurea</i> subsp. <i>asiatica</i> Kitam. ex H. Hara	72
<i>Spiraea salicifolia</i> L.	131
<i>Syneilesis palmata</i> (Thunb.) Maxim.	39
<i>Syringa oblata</i> var. <i>dilatata</i> (Nakai) Rehder	147
<i>Tanaxacum platycarpum</i> Dahlst.	203
<i>Tephrosia keirlowii</i> (Turcz. ex DC.) Holub	77
<i>Trachelospermum asiaticum</i> var. <i>majus</i> (Nakai) Ohwi	106
<i>Typha orientalis</i> C.Presl	204
<i>Veronicastrum sibiricum</i> (L.) Pennell	29
<i>Veronica rotunda</i> var. <i>subintegra</i> (Nakai) T.Yamaz.	172
<i>Viburnum carlesii</i> Hemsl.	205
<i>Viola mandshurica</i> W.Becker	211
<i>Wisteria floribunda</i> (Willd.) DC.	199
<i>Zanthoxylum schinifolium</i> Siebold & Zucc.	36

21세기의 정원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로써의 역할,
저비용으로 지속가능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